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무한도전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4년 10월 07일(월요일) / 장 소 : CLC 4층 동아리방																															
참석자 명단	학번	2020****	이름	남*현	학번	2020****	이름	유*민																								
	학번	2024****	이름	권*영	학번	2021****	이름	홍*우																								
	학번	2021****	이름	김*우	학번		이름																									
	학번	2021****	이름	서*원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div style="margin-bottom: 10px;"> 1. 1주차 토의 주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5px;"> <thead> <tr> <th style="width: 10%;">주차</th> <th style="width: 20%;">육하원칙</th> <th style="width: 70%;">내용</th> </tr> </thead> <tbody> <tr> <td>1주차</td> <td>누가</td> <td>대학을 다니고 있는 우리가</td> </tr> <tr> <td>2주차</td> <td>언제</td> <td>현재부터 10년 후까지의</td> </tr> <tr> <td>3주차</td> <td>어디서</td> <td>각자의 전공 혹은 관심 분야 중</td> </tr> <tr> <td>4주차</td> <td>무엇을</td> <td>어떠한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td> </tr> <tr> <td>5주차</td> <td>어떻게</td> <td>성공 사례를 보며 도달하기 위한 목적은 무엇인가</td> </tr> <tr> <td>6주차</td> <td>왜</td> <td>우리가 성공을 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인가</td> </tr> <tr> <td>7주차</td> <td>결론</td> <td>성공을 위한 마음가짐에 대하여</td> </tr> </tbody> </table> </div> <div style="margin-bottom: 10px;"> 2. 1주차 도서명 - 자살하는 대한민국: 1~3장 </div> <div> 3. 1주차 토의 세부 내용 Q1. '자살하는 대한민국'을 읽었을 때 현재 우리나라의 성공기준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남*현: '자살하는 대한민국'에서는 한국이 죽어가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에 대하여 다양한 이유를 설명한다. 하지만 책의 저자 또한 '죽어가고 있다'고 표현하기에 한국은 GDP 규모 세계 10위권의 국가이며 20세기 전후 국제 질서의 풍랑 속 경제발전을 이룩해 낸 몇 안 되는 공동체라 말한다. 이렇듯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 국가임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 한국이지만 책의 1장에서는 "한국인들은 돈이 없다."라고 말한다. 저자가 의도한 바에 대하여 다음 내용을 읽으며 알 수 있었다. 한국인들은 높은 생활 수준을 영위하기 위한 자원이 부족한 것이 아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지출할 자원이 없다는 것이다. 나는 이에 대한 원인으로 과거 우리나라는 국가 경제의 위기를 겪게 되며 부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하는 사회였다면,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경제적 상황이 과거와 다르며 이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영향으로 인해 개인의 경제에 더 중심을 두게 되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여기서 다양한 사회적 영향 중 하나로 </div>								주차	육하원칙	내용	1주차	누가	대학을 다니고 있는 우리가	2주차	언제	현재부터 10년 후까지의	3주차	어디서	각자의 전공 혹은 관심 분야 중	4주차	무엇을	어떠한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5주차	어떻게	성공 사례를 보며 도달하기 위한 목적은 무엇인가	6주차	왜	우리가 성공을 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인가	7주차	결론	성공을 위한 마음가짐에 대하여
주차	육하원칙	내용																														
1주차	누가	대학을 다니고 있는 우리가																														
2주차	언제	현재부터 10년 후까지의																														
3주차	어디서	각자의 전공 혹은 관심 분야 중																														
4주차	무엇을	어떠한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5주차	어떻게	성공 사례를 보며 도달하기 위한 목적은 무엇인가																														
6주차	왜	우리가 성공을 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인가																														
7주차	결론	성공을 위한 마음가짐에 대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는 정보통신 및 기술의 발달로 산업구조가 서비스업으로 변화한 것 또한 한 몫 하였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서비스에 대해 인색하며 저렴하거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저자 또한 우리나라는 특히 서비스업에 대하여 다른 나라보다 박하여 소모된 감정만큼의 수입은 아니며, 심지어 다른 나라에 비해 턱없이 높은 물가로 개인의 생활비가 높아지게 되었고, 개인의 재산이 보장되는 현 대한민국에서 본인의 재산이 본인에게 사용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공동체를 위해 사용되는 본인의 재산에는 타당성을 더욱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한국에서는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대부분이 금전적 여유가 있다면 실행할 수 있기에 본인의 재산 축적이 더욱 중요해지며 개인의 경제에 더욱 중점을 두게 된 것 같다. 그렇기에 내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사회에서 성공의 기준은 '경제적 여유'라고 생각한다.

> **권*영:** 보편적으로 우리나라의 성공기준이라고 하면 무엇일까? 여러 매체나 주위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보면 성공적인 사람의 모습은 이렇하다.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에서 일하거나 성공적인 창업을 하여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 가족을 이루는 것에 성공한 사람. 김현성 저자의 '자살하는 대한민국'를 참고하자면, 높은 물가와 계속해서 오르는 집값, 그것과 대비되는 비교적 낮은 인건비, 인프라 쏠림 현상으로 젊은이들은 모든 게 더 비싼 서울에 살고 싶어 하고, 대형 병원들과 복지 산업이 서울에 현저히 잘 형성돼 있음을 아는 고령자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충족할 수 있는 사람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대부분이 편안하고 안정적이며 행복한 삶을 위해 보편적인 우리나라의 성공기준을 따라 성공적인 삶을 이루고자 한다. 이러한 기초를 볼 때 학창 시절 나의 꿈은 한국 사회에서 성공이라 주장하는 기준과는 멀다고 생각하며 썩 보편적인 성공적 삶을 향한 길은 아니었던 것 같다.

> **김*우:** 내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에서의 성공은 '대한민국에서 평균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사람마다 평균의 의미는 다르겠지만 내 기준에서의 평균은 의식주 해결할 수 있을 만큼 벌면서 남들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으로 잘 사는 것이다. 이처럼 '평균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은 많은 한국인에게 익숙한 성공의 기준이라고 생각한다. '자살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책에서 내가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데 책 내용 중 '당신의 삶에 의미와 만족감을 주는 것은 무엇이나는 질문에 한국인은 물질적 풍요를 뽑았다.'라는 말이 있다. 이를 보면 물질적 풍요를 말하 돈 많이 버는 것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물질적 풍요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뿐만 아니라, 안정된 주거 환경, 건강, 그리고 사회적 지위와 같은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책에 '한국 구성원들은 실제 사회 전체의 평균이 그렇게 높지 않음에도 훨씬 높은 기준을 삶의 평균으로 맞추려고 인식한다. 또, 사회의 평균을 구성하는 대다수 사람마저 더 높은 평균을 찾는다.'라고 언급한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지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 타인과의 관계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더 큰 가치 두고, 남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얻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나는 기존 내 생각과 이 책의 내용을 합쳐보았을 때 대한민국 사람들의 성공 기준은 공동체보다는 개인의 성취

를 우선시하며, 경쟁을 통해 더 많은 부와 지위를 획득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고 생각한다.

> 서*원: 책 2장에 기술되어 있다시피 수도권 과밀화 현상에는 다 이유가 있다. 내가 가장 크게 생각하는 이유는 수도권에 몰려있는 회사들이 노동 시간 대비 소득이 높은 회사들이기 때문이다. 다른 지방 회사들보다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이상향을 볼 수 있는 곳이다. 여기서 쟁점은 '적게 일하고 많이 받는 것'이 과연 성공한 것이고, 행복한 것이냐인데, 나는 행복의 총량으로 봤을 때 수도권 지역의 일자리를 얻게 되는 것이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남들보다 일찍 퇴근해서 개인이 취미나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봤자 몇 시간 정도일 뿐이고 수도권의 대기업 회사들의 근무 스트레스는 악명이 높을 정도로 유명하다. 차라리 내가 원하는 스트레스가 비교적 낮고 몇 시간 더 일하는 곳에서 일하는 게 더 행복하고, 그런 직장에서 일하며 꾸리고 사는 것이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한다. 책에서는 수도권 과밀화 현상의 이유로 수도권 회사들이 대부분 노동 시간 대비 소득이 높은 회사들이고, 단순히 적은 시간 대비 많은 돈을 벌 수 있기에 사람들이 수도권에 몰린다고 설명하는데, 수도권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스트레스 통계를 가져다 놓지는 않아서 수도권 직종을 갖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를 놓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위를 종합해서 나는 워라밸이 훌륭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만족할 수 있는 직종을 가지게 되면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수도권으로 오고 싶어 하고, 수도권에 정착한 것만으로도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나는 만약에 지금보다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이 높아지고, 공기업 적자를 버티지 못하고 사회간접자본과 에너지 물가가 올라가게 되고, 제2의 세금인 사교육비가 더 높아지게 된다면 수도권의 대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을 성공한 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다.

> 유*민: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 성공의 기준은 '원할 때 언제든지 서울에 집을 구해 서울에서 살 수 있는가?'이다. 물론 서울에서 사는 것이 성공이라 확신하고 말을 할 수 없지만, 개인의 기준과는 별개로 한국 사회의 보편적인 성공이라는 이미지는 돈을 충분히 벌고 있다거나, 아니면 충분한 돈을 축적해 놓은 상황을 보고 성공이라 하는 것 같다.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성공기준은 돈이 빠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 '자살하는 대한민국'에서는 '서울 공화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강조하고 있는데 나는 이것이 우리나라의 성공기준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다 느꼈다. 현재 대한민국은 대부분의 인프라뿐만 아니라 일자리마저 서울에 집중이 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렇게 서울에 모든 것이 모여 있으니 자연스럽게 서울은 물가부터 집값까지 모든 것이 타 지역에 비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기에 나는 돈이 성공의 중요한 척도인 우리나라에서 '원할 때 언제든지 서울에 집을 구해 살 수 있는가?'가 우리나라 성공의 기준이라고 생각한다.

> 홍*우: 대한민국은 유난히 성공을 추구하는 국가 중 하나이다. 본인이 생각하는 대한민국 내에서의 성공의 기준은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가?'라고 생각한다. 위에서 서술했다시피 아직 대한민국에서 어떤 사람이 성공했냐고 묻는다면, 대다수 사람은 소위 '사짜' 직업군 및 전문직이라고 말하곤 한다. 이들은 모든 사

람이 생각하는 성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며 본인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였고, 그 노력에 대한 대가로 많은 재화를 벌어들이며 살아가고 있다. 이전부터 한국 사회 내 해당 고부가가치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성공한 사람이라 일컫는 것이 사회적 통념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나의 생각 또한 마찬가지이다. 소위 고부가가치 산업인 대기업 임원직, 반도체, 자동차 등 10대 주요 산업 종사자들은 총 26.8%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고부가가치 일자리가 높은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기에, 이는 현 사회에서의 성공의 기준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들은 본인의 높은 재화 수준을 통해 많은 소비를 하며 인프라의 지속적 추가 및 개발을 불러일으키는 등 경제활동을 이끌어가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큰 비용을 투자하여 해당 지역 인프라의 지속적 추가 및 개발을 이끌고 있으며, 이를 통해 좋은 거주 환경을 조성하여 수요를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고소득층(부자, 성공한 사람)들이 소비하는 과정에서 국가 및 지역의 발전이란 선순환을 내고 있기에 이를 성공의 기준이라고 생각한다.

Q2. 학창 시절 생활기록부 등 본인의 과거 장래희망을 확인한 후 현재 장래희망과 비교해 보자. 만약 변화하였다면 왜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는가?

> **남*현:** 초등학교 시절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인물은 담임선생님이었다. 부모님의 직업으로 인해 많은 이사를 경험하게 되고 이사만큼 변경되는 주변 환경은 어린 시절의 나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였다. 전학을 갈 때마다 학생 시절 가장 중요한 또래 관계를 위해 새로운 친구를 만들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을 자주 겪었는데, 이럴 때 담임선생님께서 가장 많은 도움을 주셨다. 이렇게 받게 된 도움을 돌려주고 싶어서 초등학교 때의 나의 진로는 초등학교 교사였다. 이후 중학교에 가게 되면서 나의 진로는 변하게 되었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모든 교과목을 담임선생님이 가르치며 선생님과 교류할 기회가 많이 존재하였는데 중학생이 되며 각각의 교과목마다 담당하는 선생님이 따로 계셨고, 학업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다 보니 담임선생님과의 교류가 줄어들게 되었다. 그래서 학교보다는 가족과의 시간을 더 많이 보내게 되었고, 이 시기 군인이신 아버지의 직업적 복지혜택을 '군인 가족'이라는 이유로 나 또한 혜택을 받게 되었고 '군인'이라는 직업을 목표로 삼게 되었다. 이때 내가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은 직업에 대한 '복지'를 중점으로 선택하였던 것 같다. 고등학생이 되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보다 현실적인 직업을 추구하게 되었다. 공부에 크게 관심이 없던 나는 취업률이 높은 직업군을 희망하게 되었고 '사회복지사'를 꿈꾸게 되었다. 사실 나와는 타협이 직업을 선택하게 된 큰 계기는 아니다. 과거 나는 학업을 중단하며 청소년으로서 사회·신체·정서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가장 큰 울타리에서 벗어나게 되었는데, 이때 가장 큰 도움을 주신 어른이 '사회복지사'였기 때문이다. 나의 진로 흐름을 보면 '가장 힘든 시기 내게 가장 도움을 주며 영향을 끼친 인물'이라고 파악할 수 있다. 앞서 나도 도움을 받아 많은 변화를 맞이할 수 있었듯 타인에게 도움과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특히 대한민국은 모두가 힘을 모아 발전을 도모하였지만, 동시에 개인의 권리를 보호받게 되며 개인주의가 심해지게 되었다. '각자도생'이 심해지자 소외된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고, 과거의 나처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많은 희망이

되어 돕기 위해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으로 나의 장래희망이 변화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 권*영: 어렸을 적부터 나는 많은 가치 사이에서도 나의 행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앞서 말한 보편적인 성공에서 벗어나 내가 어떤 것에 흥미를 느끼고 있고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 어떤 일을 하면 즐겁게 돈을 벌 수 있는지 끝없이 사유했던 것 같다. 생활기록부를 참고하며 확인한 나의 과거 장래희망을 보니 과거 내가 그렸던 미래들이 생각났다. 고등학교 시절 나의 꿈은 크게 두 개가 있었는데 인지과학을 공부하는 것과 디자인업(예술계)에 종사하는 것이었다. 인지과학은 총 여섯 종류의 학문을 포함하는데, 각각 철학, 심리학, 언어학, 인공지능, 뇌과학, 인류학이 이에 해당한다. 결국 인지과학은 학제 간 연구학으로 이 모든 학문을 함께 아울러 인간의 마음 과정 등을 연구하는 학문이라는 것이다. 초등학교 때부터 심리학에 관심을 가져 이해도 하지 못하는 범죄심리학 전문 서적을 사곤 했고, 시간이 흐르고 경험이 쌓임에 따라 언어와 철학에 조금씩 관심이 생긴 나에게 이 모든 걸 함께 아우르는 인지과학은 매력적인 선택 중 하나였다. 그러나 이 꿈은 인지과학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며 곧 사그라졌는데, 인지과학의 정의에서 볼 수 있듯 이 학문은 많은 전문적인 학문이 포함되어 있기에 언뜻 모호한 구석이 있었고, 불확실함을 지양하는 나에게 인지과학은 곧 매력을 잃었다. 이후 디자인업을 하고 싶어 했는데 디자인 또한 어릴 때부터 관심이 많던 분야 중 하나였다. 패션, 인테리어, 제품, 그래픽 등등 다양한 분야의 디자인에 관심이 많았고 실제로 순수 미술을 전공하고자 포트폴리오 학원에 다니며 입시를 준비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너무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목표한 대학에 합격하기 힘들다는 점과 '예술로는 먹고살기 힘들 것'이라는 부모님의 반대로 결국 디자인으로 진학하는 것은 포기하게 되었다. 시간이 지나 모두가 수능을 보고 입시를 준비하듯 나 또한 자연스럽게 대학에 진학하고 취업과 가까워지면서 내가 추구하고 또 하고 싶어 하는 이상적인 직업보단 현실을 많이 생각하게 된다. 드라마나 영화에서의 등장인물들이 그렇듯 현실에서도 모든 사람이 자기가 행복할 수 있는 직업만으로도 여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앞서 언급했듯 높은 물가 등과 안정적 삶을 영위하기 위한 조건과 경제력을 만족시키는 것은 절대 쉽지 않고 결국 많은 이들이 현실에 타협하여 보편적인 성공기준에 들고 싶어 하게 되는 것이다. 나도 이와는 크게 다르지 않다. 하고 싶은 일들이 있었지만, 현실에 부딪혀 포기했고, 현재는 현실과 타협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찾는 여정에 있다.

> 김*우: '대한민국에서 성공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유년기를 거치고 청소년을 지나 청년에 이르면서 가장 많은 고민에 빠지게 해준 주제인 것 같다. 유년기와 청소년기에는 단순히 멋있는 직업을 갖고 싶었다. 드라마에 빠져 있었을 때는 배우가 되어 TV에서 내가 연기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고, 학교에 다니면서 담임선생님을 만났을 때는 선생님의 전문적인 모습이 존경스러워 '학생들을 존중하며 먼저 다가갈 수 있는 교사'가 되고 싶었다. 하지만 사회와 가까워지면서 '대한민국에서 성공이란 중간만 가면 성공한 거야.' 혹은 '어떤 걸 하더라도 미래 전망이 좋으면서 돈을 많이 버는 게 최고다'와 같은 현실적인 조언을 많이 들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에서 중간으로 살아간다면 적어도 성공한 삶을 살아

가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나의 성공기준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에 따라 나는 그저 이상적인 꿈들만으로는 내 미래를 책임질 수 없다고 판단했고, 내가 좋아하면서 잘하는 과목이 무엇이며, 내가 미래의 나의 삶을 책임질 수 있으면서 이상적인 꿈을 조금이라도 포함할 수 있는 직업은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집중적으로 찾아보게 되었다. 그 결론으로 나는 생명과학 분야에서 사람들을 돕는 연구원이 되기로 결심했다. 의·생명 분야는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내가 연구하고 싶은 바이러스나 암과 같은 주제를 통해 사람들의 생명 위협을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언급된 ‘의료와 자살하는 대한민국은 핵심적인 순환 고리들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내용과 ‘사회적 압박과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대한민국에서 의료 시스템의 중요성이 더 부각된다.’는 내용을 통해, 자살률이 높은 한국 사회에서는 정신건강 지원과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의료 서비스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연구원으로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는 사회적 공헌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따라서 내가 선택한 의·생명 연구 분야는 이 문제에 직접 기여할 기회를 제공하며, 이러한 선택은 나에게 사회적 성공과 개인적 만족을 동시에 추구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생각한다.

> 서*원: 매번 현실적인 이유로 꿈을 바꿨던 기억이 있다. 내 꿈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달랐다. 먼저 초등학생 때는 지휘자가 꿈이었다. 당시에 피아노 학원에서 콩쿨 대회를 나가고 대상을 타게 되었고, 학교에서 친구들과 앞에 나와 피아노를 치자 주목을 받게 되었고 이러한 관심 덕분에 피아노를 잘 치는 줄 알았다. 하지만 나의 피아노 실력은 정말 뛰어난 친구들과 비교하기에 애매한 재능이었다는 것을 중학생 때 깨닫게 되었다. 나보다 더 잘 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존재하는 것 이외에도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그때 천체물리학과 양자물리학에 빠지게 되어서 음악에 투자하는 시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 때부터 나의 장래희망은 자연스레 천체물리학자, 양자물리학자가 되었다.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할 때마다 스마트폰으로 물리학 공부를 할 정도로 빠져 있었지만, 또다시 벽을 마주하게 되었다. 과학고 입학에 앞서 기초물리학 공부를 시작하게 되며 초등학생 때부터 과학고를 위하여 미리 공부해 오던 주변 친구들과 함께 교육받게 되었고, 이때 나의 실력과 그 친구들과의 지식 차이가 비교됨을 느끼게 되었다. 무엇보다 양자물리학이 아닌 기초물리학은 흥미가 없었고, 수식 계산이 어려웠다. 지금 생각해보면 과학고 입학이 어렵다는 이유로 꿈을 빠르게 포기한 게 아쉽다. 핑계일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교육계의 현실에 마주한 내가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후 과학자의 길을 포기한 나는 갑작스럽게 심리학에 빠지게 되었다. 매번 여자 친구의 상담을 하게 되면서 나 이외의 사람 심리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사람을 바꿔보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면서 자연스레 사회과학 계열 직업군을 원하게 되었다. 중학교 3학년 때의 꿈은 대학생인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과거에는 낮은 노동생산성의 성격을 띄는 상담심리학자가 꿈이었는데, 지금은 빠르게 취업하고 싶어서 인사 및 산업심리 관련 직종을 목표로 삼고 있다. 책에 언급된 것처럼 우리나라의 서비스업종은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없는 구조이고, 나는 이 근본적인 구조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람을 갈아 넣어 유지되는’ 서비스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상담심리학자가 됐을 때 내가 받게 되는 대우도 생각한 게 반영되지 않았나 싶다. 결국 과거 내가 원하는 직종이 바뀌게 되도록 영향을 준 것은 한

국 사교육의 폐해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기초물리학 공부가 아무리 어려웠어도 시간을 갖고 공부하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난이도였다. 그러나 과학고 원서 접수 기간 전까지는 기존에 미리 공부하던 사람들을 따라잡을 수 없다고 판단했고 관련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가 결국에는 꿈을 포기해 버렸다. 굳이 과학고에 가지 않았더라도 과학자라는 꿈을 꿀 수 있었는데 아쉽게 생각한다. 대신에 과학적인 연구 방법을 기반으로 실험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심리학이라는 학문에 관심을 갖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 **유*민:** 과거 나의 꿈은 '상담사'였다. 나는 대화를 통해 상대방을 도와주기를 원하였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범위라면 대화뿐만이 아니라 해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 상대방이 행복해진다면 그것에서 보람을 느꼈기 때문이다. 특히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청소년 상담사를 꿈꾸며 크게는 집 안 사정이 어렵다거나, 어긋난 길을 가는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다. 작게는 진로에 대한 고민이나 그 시기에만 할 수 있는 정말 별것 아닌 사소한 일들도 편하게 상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했다. 그래서 나는 사회복지사에 가까운 상담사가 되고 싶었지만, 현재 나의 전공은 경영학과로 과거 나의 꿈과는 거리가 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의 반응이 비슷하다. '상담사는 돈이 안 돼서 그런 거지?', '너도 현실의 벽에 부딪혔구나.'라는 발언을 하며 상담사라는 직업이 돈도 안 되고, 현실적으로 유명해지기엔 어렵고, 부유한 직업도 아니다 보니 포기했다는 식으로 받아들인다. 사실 받은 맞고, 받은 틀렸다. 내가 원했던 직업이 돈을 많이 버는 직업도 아니거니와, 주변에서 알아주는 직업도 아닌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남을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을 포기했다는 것은 아니다. 나의 희망 직업이 바뀐 이유는 내가 상담사라는 직업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가 너무 한정적이기도 하며, 진정성 있는 도움을 주기는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안정적인 상황이라면 집이 없는 누군가를 위해 건축에 지식도 없는 내가 가서 나무로 집을 지어주는 것 보다는 건축에 대한 지식이 있는 전문가를 고용해 집을 지어주는 것이 복지를 받는 사람도 튼튼한 집에 살 수 있으며, 건축, 건설업에 종사 중인 사람은 돈을 벌 수 있고, 도움을 주는 나는 몸 편하게 보람을 느낄 수 있고, 경제도 살리는 모두가 좋은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에 선정한 '자살하는 대한민국' 도서에 보면 우리나라의 복지 관련 문제는 '돈을 더 써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사람 갈아서 굴러가는 나라'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표현만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복지에 대하여 돈을 쓴다기보다 사회복지사들을 이용해 지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도서에서 '중요한 것은 가뜩이나 많지 않은 규모의 정부 지출이 과연 어디에 쓰이고 있느냐', '복지 부분이 평균 대비 특히 작은 규모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 증거로 2022년 OECD 일반정부지출 부문별 국제 비교표를 보여주며 OECD 평균 복지에 17.26% 지출을 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9.29%로 7.97%라는 큰 격차가 있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상담사라는 직업으로 남을 도와주기 보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도와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하게 된 것 같다.

> **홍*우:** 학창 시절 나의 꿈은 '교사'이었다. 어릴 적부터 항상 남들을 도우며 살아가야 한다면 배웠으며, 타인을 위해 희생하고 돕는 과정에서 항상 뿌듯함을

느끼며 살아왔다. 학창시절에도 타인에게 지식 등을 전달하기 위해 스스로 공부하고,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 타인을 돕는 과정에서 성취감 및 보람을 느꼈다. 또한 고등학교 재학 중 선생님과 가까운 관계를 통해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대한 긍정적 시선을 가지게 되었다. 고등학교 2,3학년 중에 힘든 시기를 거치면서 본인처럼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거나, 진로에 대해 확실한 뜻이 없는 학생들에게 희망과 목표를 주는 교사가 되고자 다짐하였다. 그러나, 현재 본인의 전공은 '중국학과'이다. 이전의 목표와는 달리 입학 당시 무역업자였기에 해당 학과로 진학하게 되었다. 해당 진로로 바뀐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로, 높은 현실의 벽을 느꼈기 때문이다. 교사라는 직종이 가지기에는 나의 학업성적은 그에 비해 낮았고, 어쩔 수 없이 진로를 바꿀 수밖에 없었다. 두 번째는 금전적 이유이다. 교사의 봉급은 들이는 노력에 비해 매우 낮다고 생각하였으며, 첫 번째의 이유와 맞물려 진로를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교사라는 진로를 완전히 포기하진 않았다. 중국학과 입부 이후 교직 이수 과정을 이행하려는 목표를 세웠으며, 해당 과정 이후 교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지속적으로 탐구하였다. 이후 부모님과 진로에 대한 지속적 대화와 개인적인 고민을 통해 현재는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희망하고 있다. 본인이 타인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일은 무엇일지 고민해 보았을 때, 사람들이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집이라는 휴식 공간을 설계하고 시공하는 과정에서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사람들이 내가 직접 설계하고 작업한 공간에서 편히 휴식하고 생활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진정 성취감과 보람을 느낄 것이라 생각하였다. 단지 돈이라는 목적을 좇는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아닌 불우한 이웃들과 사람들을 위한 공공시설 등을 설계하고, 해당 직종에 종사하기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무료 재능기부를 하는 등 타인을 위해 희생하며 봉사하는 삶을 사는 인테리어 기술자가 되고 싶다.

▶ 책 내용 중 토론하고 싶은 질문

1) 서*원: 우리나라 내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성공할 기회를 얻기 위해, 즉 유토피아와 같은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진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수도권 과밀화 현상은 해소되어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 남*현: 우리나라 내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성공 기회가 주어진다는 상황 자체는 유토피아가 실현되는 확률과 맞먹으며 절대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 판단된다. 사실 성공에 의지가 없는 사람에게도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 자체가 기회의 낭비이며 이러한 기회를 성공에 절박한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면 효과적인 결과를 보이게 될 것이며 크게는 우리나라의 발전 가능성에 기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지역 특성을 살린 관광지도 좋지만, 단기적으로라도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계절의 특성을 살린 축제나 그 지역에만 존재하는 특수한 성질을 이용하여 문화를 만들어내면 충분히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 철 장사를 하기 위함'보다 많은 사람이 몰렸을 때 '성공하고 싶은 의지가 강한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체를 사람이 몰리는 상황을 통해 더욱 다양한 사람들을 마주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주는 것으로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기회를 비수도권에서 지속적으로 주도하게 된다면 장기적으

로는 수도권외의 과밀화 현상이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권*영: 지자체에서 지역 특색을 활용, 관광화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을 지원하거나 자체 캠페인을 운영하는 것이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 단기적 성공 예시로 최근 안동에서는 백종원이 운영하는 더본코리아와 협업하여 안동 탈춤 페스티벌에서 '더본 존'을 만들었는데, 간고등어 김밥 등 향토 음식을 활용한 축제 특화 메뉴를 개발, 높지 않은 가격에 판매하였고, 따로 초대 가수를 부르지 않았음에도 최다방문객 기록을 넘을 예정이라고 한다. 장기적 성공 예시로는 대전이 있다. 성심당을 기점으로 맛있는 빵집이 많다고 유명해진 대전은 곧 빵 축제를 열어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에 성공하였고 이후 대전은 빵 도시로 거듭나며 서울을 포함한 다른 지역에서 빵집을 하던 소상공인들이 대전으로 가게를 이전하며 지방 관광화 대안이 수도 과밀화 현상을 해결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그러나 이 방안이 대도시가 아닌 다른 도시에서도 장기적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대중교통과 복지와 같은 기본적 인프라가 균형 있게 발전해야 할 것이다.

> 김*우: 수도권 과밀화 현상에는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지만, 그 원인 중 하나는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 불균형이라고 생각한다. 지방보다 수도권에 주요 교육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고, 그 결과 당연하게도 학생 및 학부모들은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찾아 수도권으로 몰리게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교육 불균형 해소가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지방 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을 증가시키고, 지방에서도 수도권과 동등한 교육 환경을 조성해야 수도권 과밀화 현상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었다.

> 서*원: 관광업. 즉 낮은 노동생산성(숙박, 요식업)으로 이름값이 있는 지방 도시에 높은 생산성을 가진 수출 대기업이 자리 잡게 되어야 한다. 정부와 기업의 이런 노력이 있어야 세종특별자치시 같은 지역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싶다.

> 유*민: 수도권 과밀화 현상을 막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성공할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는 우선 교통 인프라를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 이미 진행 중인 방법이기도 하지만 아직도 교통 인프라는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 서울과 지방의 교통도 중요하지만, 지방과 지방의 교통 인프라가 더욱 발전해야 교류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보다 많은 사람에게 성공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 홍*우: 해당 지역의 인프라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이 지방으로의 이주를 꺼리는 주 요인은 인프라의 부재 및 부족이다. 교통과 의료시설, 교육 및 문화·여가생활 등의 인프라를 새롭게 확충하여 수도권과 동등한 수준의 생활권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 남*현: 경쟁이 사회 전반에 존재하는 현재 대한민국에서의 사회적 성공은 타인보다 더 뛰어난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굉장한 노력을 요구한다. 사회적 성공(부와 명예)을 위해 워라밸을 포기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 **남*현**: 실제 사회복지사라는 직종은 워라벨을 지키기 힘들다. 동일한 전공을 졸업하신 선배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장기적으로 오랜 시간 동일한 직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워라벨이 중요하다고 한다. 사회복지사는 이윤을 추구하는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워라벨을 지키지 않고 더욱 열심히 업무를 한다고 해서 부를 쌓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헌신하는 모습 자체가 명예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노력이 모여 승진과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은 경쟁이 사회 전반에 녹아있으며 이러한 사회 속 성공에 도달하기란 남보다 뛰어난 것을 증명해야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워라벨은 충분히 희생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권*영**: 이는 개개인이 사회적 성공에 얼마의 가치를 두고 있는지, 또 사회적 성공을 이루기 위해 어떤 것을 포기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다를 것이다. 만약 개인의 우선순위가 사회적 성공이라면 자연스럽게 더욱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 워라벨을 등한시하게 될 것이고, 그의 우선순위가 사회적 성공이 아닌 다른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면 그는 일과 일 이외의 영역에 각각 균형 있는 시간을 투자하고 싶어 할 것이다. 하지만 경쟁이나 사회적 성공이 무척이나 중시되는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성공보다 워라벨을 중시하는 사고는 이해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생긴다. 나 또한 워라벨에 가치를 두는 편인데 실제로 절박하지 않다거나 더 열심히 해야 한다며 비판하는 말을 듣기도 하였다. 그러나 삶의 방향은 개개인이 정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개인이 우선시하는 가치들이 조금 더 존중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 **김*우**: 나는 사회적인 성공을 위해서라면 워라벨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워라벨이 개인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지만, 사회적 성공과 경제적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노력과 헌신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워라벨을 유지하며 일하는 것이 성공에 도달하기 어렵다고 단정 짓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그저 워라벨을 더 높은 가치로 두고 중요시하다 보면 성공에 도달하는 속도를 늦추는 방해 요소 정도라고 생각한다.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없다는 옛말이 있듯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잃을 수 있고, 이 포기되는 가치 중 워라벨도 포함이 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 **서*원**: 부와 명예를 가진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은 그만큼의 책임감을 가진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노동 시간 대비 소득이 큰 직종은 더 큰 돈을 가져다주지만 그만큼 업무 난이도가 상당할 것이고 큰 책임감도 따를 것이다. 이런 분들은 자연스럽게 워라벨을 어느 정도 포기하고 책임감을 갖고 본인이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으로 예상된다.

> **유*민**: 개인이 생각하는 성공이 아닌, 사회적 성공을 위해서라면 워라벨을 포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개인 차원에서의 성공이라면 워라벨을 챙기면서 하고 싶은 것을 한다거나, 개인의 행복을 위해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회적 성공이라면 워라벨을 포기하고 현재 일에 좀 더 집중하여 남들보다 앞서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p>> 홍*우: 이는 개개인의 성공에 대한 기준과 삶의 가치관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한다. 본인의 경우,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워라밸은 그렇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성공에는 엄청난 노력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워라밸을 따져가면서 성공을 추구하기엔 성공까지 가는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본인의 업무를 체화시키고 그에 대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기에 성공을 위해서는 워라밸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등의 노력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p>
<p>활동사진</p>	

2024년 10월 07일

참가자대표: 남*현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무한도전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4년 10월 14일(월요일) / 장 소 : CLC 4층 동아리방																															
참석자 명단	학번	2020****	이름	남*현	학번	2020****	이름	유*민																								
	학번	2024****	이름	권*영	학번	2021****	이름	홍*우																								
	학번	2021****	이름	김*우	학번		이름																									
	학번	2021****	이름	서*원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1. 2주차 토의 주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10px;"> <thead> <tr> <th style="width: 10%;">주차</th> <th style="width: 30%;">육하원칙</th> <th style="width: 60%;">내용</th> </tr> </thead> <tbody> <tr> <td>1주차</td> <td>누가</td> <td>대학을 다니고 있는 우리가</td> </tr> <tr> <td>2주차</td> <td>언제</td> <td>현재부터 10년 후까지의</td> </tr> <tr> <td>3주차</td> <td>어디서</td> <td>각자의 전공 혹은 관심 분야 중</td> </tr> <tr> <td>4주차</td> <td>무엇을</td> <td>어떠한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td> </tr> <tr> <td>5주차</td> <td>어떻게</td> <td>성공 사례를 보며 도달하기 위한 목적은 무엇인가</td> </tr> <tr> <td>6주차</td> <td>왜</td> <td>우리가 성공을 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인가</td> </tr> <tr> <td>7주차</td> <td>결론</td> <td>성공을 위한 마음가짐에 대하여</td> </tr> </tbody> </table> <p>2. 2주차 도서명 - 자살하는 대한민국: 4장~9장</p> <p>3. 2주차 토의 세부 내용</p> <p>Q1. 자본주의의 나라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 성공하기란 결국 '돈을 어떻게 많이 벌 것인가'가 핵심이다. 그렇다면 지금으로부터 10년 후까지 대한민국의 주된 소비자는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을 것 같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사업들이 생겨날 것인가?</p> <p>> 남*현: 대한민국은 짧은 기간 내 엄청난 성장을 보여주며 산업, 교육, 정보통신, 문화 등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게 되었다. 다양한 분야들이 급속도로 성장하며 긍정적인 부분으로 한국인들은 더욱 간편하고 빠르게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빛이 있으면 어둠도 존재하듯 성장에 대한 '환경오염'이라는 그림자 또한 우리에게 급속도로 다가오게 되었다.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발생하는 쓰레기의 처리는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전이 진행되어 우리의 자연은 파괴되었고, 파괴된 자연은 인간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었다. 이렇게 인간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환경오염으로 인해 과거 1980년대부터 대기오염과 수질오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강 수질 개선 운동'을 필두로 다양한 환경보호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를 시작으로 사람들은 더욱 '친환경'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21세기를 맞으며 '미세먼지'와 같이 더욱 다양해진 환경문제를 해</p>								주차	육하원칙	내용	1주차	누가	대학을 다니고 있는 우리가	2주차	언제	현재부터 10년 후까지의	3주차	어디서	각자의 전공 혹은 관심 분야 중	4주차	무엇을	어떠한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5주차	어떻게	성공 사례를 보며 도달하기 위한 목적은 무엇인가	6주차	왜	우리가 성공을 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인가	7주차	결론	성공을 위한 마음가짐에 대하여
주차	육하원칙	내용																														
1주차	누가	대학을 다니고 있는 우리가																														
2주차	언제	현재부터 10년 후까지의																														
3주차	어디서	각자의 전공 혹은 관심 분야 중																														
4주차	무엇을	어떠한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5주차	어떻게	성공 사례를 보며 도달하기 위한 목적은 무엇인가																														
6주차	왜	우리가 성공을 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인가																														
7주차	결론	성공을 위한 마음가짐에 대하여																														

결 및 보호하기 위해 이제는 민간뿐만이 아닌 정부에서도 환경을 지속 및 보호하며 발전할 수 있는 '일회용품 규제'나 '친환경적인 사업 혹은 기업 세금 감면' 등 지원해주는 정책을 제시하였고, 이에 다양한 기업들이 친환경적인 사업을 많이 추진하는 추세를 보이게 되었다. 대표적으로 SK에너지에서는 재생 가능 에너지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 추진과 탄소 중립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마트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제품을 확대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기업뿐만이 아닌 개인이 환경을 보호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특히 책에서는 개인이 환경을 보호하는 방안 중 하나로 분리배출을 통한 재활용 가능 자원을 확보 및 거리 미관을 위해 2000년도부터 쓰레기통을 줄이고 종량제 쓰레기봉투 실시가 이에 해당한다고 한다. 이렇듯 정부와 기업 심지어 개개인도 환경에 신경을 쓰는 2024년, 나는 앞으로 펼쳐질 10년은 환경과 관련된 사업들이 더욱 많이 제시되며 현시점보다 더욱 구체적으로 체계를 잡게 될 것이라 예상한다. 주된 소비자층은 '환경보호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될 것이고, 보존되어야 하는 환경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정부에서 제시한다면 이 소비자층도 점차 확대될 것이라 예상된다. 그렇기에 내가 생각하는 앞으로 10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성공하는 사업의 길은 어떠한 분야의 사업이든 친환경적인 요소가 필수적일 것이라 예상한다.

> 권*영: 가장 먼저 생각난 것은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나 사업들이다. 요양 관리자, 실버타운 등 많아진 고령 인구를 겨냥한 서비스들과 노인층을 포함한 모든 세대에서 1인 가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를 겨냥한 서비스가 증가할 것이다. 보통 고령 인구를 생각하면 빈곤층으로 예상하지만, 예상외로 이는 틀렸다. 책 4장의 2017년 한국 보건 사회 연구의 빈곤 지표에 따르면 40% 노인가구의 평균 자산액은 평균 가구의 것보다 1억 이상 높다고 한다. 이를 바탕으로 생각해 보면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들은 충분히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들 또한 통상적으로 현물 자산보단 부동산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이유로 재산이 있는 노인도 예비 빈곤층으로 분류가 되기도 한다. 결국 대한민국에서의 노인 빈곤층 증가는 확실하므로 기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뿐만이 아닌 국가에서 운영하는 복지사업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맥락에서 사회 전체에서 늘어난 수명에 따라 건강히 오래 살기 위한 웰빙이 중요시되며 건강식품이나 스포츠 업계도 성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에는 골프가 유행했었으나 높은 비용으로 현재는 시장이 축소되어 골프 웨어 브랜드들은 한국에서 철수하는 등의 일이 발생하고 있고 이를 봤을 때 골프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건강과 재미를 얻을 수 있는 스포츠가 인기를 얻을 것 같다. 또한 급속한 발전과 함께 최근 트렌드들을 살펴보면 전통을 중요시하고 많이 찾게 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다. 전통찻집이나 한옥같이 전통 동양미를 살린 건물들과 사업체가 늘어나고 복춘 등 옛것이 남아있는 장소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봤을 때 과거의 전통적인 문화와 관련된 제품들도 지금보다 더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 김*우: 대한민국은 결혼과 출산이 점차 개인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인식되는 사회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자살하는 대한민국'에서 다룬 바와 같이, 결혼과 자녀 출산은 더 이상 필수적인 인생의 과정이 아닌, '비싼 선택'으로 여겨진다. 청년들은 경제적 성공을 이루는 데 있어 결혼과 출산이 장애물로 작용한다고 생

각하며, 이에 따라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의 저출산 문제를 악화시키며, 앞으로 사회 전체적인 인구 피라미드구조에도 큰 변화를 예고한다. 시간이 지나 현재의 청년층이 중장년층으로 진입할 시기가 오면 결혼과 출산하지 않은 이들이 주체가 되는 고령화 사회를 구성하게 될 것이다. 출산율이 감소하는 반면 고령화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며, 1인 가가로 살아가는 중장년층의 비율도 높아지고 중장년층이 나이가 들수록 건강 관리에 대한 수요는 필연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특히 1인 가구는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만큼 스스로 건강 관리를 해야 하고 이들은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헬스케어 앱이나 원격 진료 등의 디지털 건강 관리 서비스의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중장년층 1인 가구는 가정이 있는 중장년층보다 사회적 고립이나 정신 건강 문제에 빠지게 될 확률이 높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심리 상담 및 정신 건강 지원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의 대한민국에서는 원격으로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맞춤형 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 실시간으로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병원과 연동된 시스템을 통해 응급 상황에 즉각 대처하는 헬스케어 기기, 노인 친화적 주택과 스마트홈 기술을 통한 돌봄 시스템, 정신 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심리 상담, 비대면 지원 앱, AI 기반의 감정 모니터링 서비스 등이 월등하게 발전하게 될 것이라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10년간 대한민국의 주요 소비층이 될 1인 가구 중장년층을 위한 의료 관련 사업은 이들의 신체·정신적 건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며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기업들은 고령화된 소비자의 요구에 맞춘 다양한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다.

> 서*원: 4장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높은 생활 비용, 준조세화된 사교육비, 수도권 집중 현상, 낮은 노동생산성, 그리고 노인 문제가 얽힌 이 상황을 해결하지 않는 한 지방에 있던 청년은 떠나고 떠난 자리엔 산부인과부터 대학교까지 모든 공간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앞으로 10년간은 현재와 크게 달라질 게 없을 텐데, 여기서 국민연금, 퇴직연금을 통제할 수 없어 연금에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는 청년들은 개인연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비트코인과 주식 등 고위험 자산에 투자할 것이다. 이 상황에서 증권사나 비트코인 업체들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투자 상품에 집중해서 청년층을 공략할 것이다. 또한 1인 가구가 늘어가게 되고, 핵가족 분열 현상이 정점에 이르게 되면서 1인 가구를 위한 식품, 가구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적, 인구 구조적 측면에서 우리나라보다 10년 정도는 앞선 일본의 경우 편의점과 마트에는 이미 즉석식품은 물론 신선식품까지 1인분만 소분하여 구매할 수 있게 되어있다. 현재 우리나라 편의점도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일본처럼 범위를 넓혀 신선식품까지도 1인분만 구매할 수 있도록 변화할 것이라 예상된다. 이 상황에서 각 식품 회사는 서로 경쟁하며 1인분 상품을 주력으로 만들고, 많은 수요로 인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을 정도의 대량생산으로 기존 1인분 상품 가격을 합리적으로 만들 수 있게 될 것이다. 역으로 다인용 식품의 경쟁력은 낮아져서 가격이 오르게 될 것이다.

> 유*민: 현재 대한민국의 주된 소비층은 20대~50대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10년은 소비층이 변화하기엔 그리 긴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진 않아 10년 뒤라고 해서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10년 뒤의 20

대들은 그 시대에 맞는 유행에 따라 소비하게 될 것이고, 30~50대들은 자녀와 가족들과 함께하는 소비를 할 것이다. 하지만 점차 줄어드는 결혼율과 출산율로 아마 10년 뒤 30~50대는 자녀와 가족보다 개인을 위한 소비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 즉 10년 뒤 대한민국 시장의 주된 소비자들은 개인의 욕구만을 채우기 위해 지갑을 열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기술 발전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사업을 재외하고 생각하자면, 10년 뒤 20대의 소비를 저격하는 사업은 그 당시의 유행에 따라 너무 쉽게 바뀌기에 예상하기 어렵지만, 30~50대의 소비를 생각하면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이 많이 생기고 발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예를 들면 요리, 공예, 스포츠, 음악 등 다양한 분야의 취미를 간단하게 체험할 수 있는 사업이라던가, 개인 맞춤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주가 될 것 같다. 그렇다고 가족 단위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망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다. 정부에서 결혼에 대한 정책 하나. 딱 하나만 좋은 대책이 나온다면 유행같이 어느 순간 다시 결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게 된다면 개인을 위한 사업은 축소되면서 20대는 결혼을 위한 준비로 소비가 줄어들고, 30~50대는 다시 자녀와 가족을 위한 소비가 늘어나며 가족을 대상으로 한 사업 역시 늘어나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 **홍*우:** 향후 10년간 1인 가구 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등장 및 성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6장에서 1인 가구의 증가 원인을 '결혼에는 돈이 많이 드는데, 젊은 한국인들은 돈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1인 가구 비율은 20년 31.7%에서 22년 기준 34.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4년 3월부로 1인 가구의 세대 수는 1천만을 돌파하였다. 6장 내 한국의 임대차 계약 내 전세 비중은 48.1%라는 수치를 통해, 상대적으로 전세를 선호하는 한국인들을 표적화한 세어하우스 서비스 플랫폼이 시장에서 성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어하우스는 아파트 혹은 빌라 등에 여럿이 함께 지내는 형태로, 이는 이전의 주택 임차비용보다 저렴하며, 해당 주거 커뮤니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추가로, 일반적인 원룸보다 넓은 거주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이는 임대인에게도 효과적인데, 한 기사에 의하면 망원동 상가주택은 세어하우스 전환 전 월 155만 원이었던 임대 수익이 전환 후 월 310만 원으로 두 배가량 상승했다. 동작구의 한 빌라는 세어하우스 전환 전 월 100만 원이었던 임대 수익이 전환 후 월 190만 원으로 상승했다. 임대 수익이 약 90% 상승한 것이다. 한 기사에 따르면 1인 가구가 거주하는 소형 주택 월세가 약 68~70만 원 수준으로 기존보다 약 34%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상대적인 월세 비용이 저렴하며, 임대인에게 기존 전·월세 제도보다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세어하우스 사업은 시장 내 긍정적 성과를 보일 것이라 생각한다.

Q2. 저자는 우리나라의 역피라미드 인구구조를 보며 '자살하는 대한민국'이라 표현하였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2023년 기준 0.72명이라는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이러한 기록은 재생산성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표현한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 **남*현:** 저자는 한국의 혼인 건수와 출생아 수의 관계가 밀접하다고 한다. 실제 1994년 이후로 30년 치 통계를 조사하였을 때 혼인 건수와 출생아 수의 상관관계는 0.938에 이르러 선형의 관계를 이룬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도출해낼 수 있는 결론은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결국 혼인 감소의 문제와 동일 선상에 존재하는 사회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결혼을 하려 하지 않을까? 이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개인의 재산이 인정되는 사회로 변화하며 개인주의 성향이 심화 되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특히 결혼과 가장 관련된 한국의 청년층들은 책에서도 설명하듯 돈이 없고, 이러한 한정적인 돈으로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것보다 개인의 독립성과 자아실현에 더 중요하게 두기 때문이다. 나는 이러한 관점에서 해결방안을 제시 하려 한다. 사실 현재 한국에서는 이미 출산율을 증진 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태도로 다양한 제도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출산 장려금, 양육수당, 다자녀 가구 지원 등 자녀를 양육하는데 많은 비용이 든다는 것을 알기에 양육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제도들은 실제 양육비에 비해 금액이 적다는 문제를 안고 있지만 국가의 재정을 생각하면 더 이상 늘릴 수 없는 한계를 안고 있다. 결국 정부는 줄어드는 결혼과 출산을 늘리기 위해 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을 최대한 시도해 본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노력에도 늘어나지 않는 결혼과 출산은 무조건 '금적적 문제'라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앞서 말했던 결혼과 출산율은 동일선상의 문제에 있으며 결혼의 문제를 긍정적으로 잘 풀어나가면 출산율도 동일 비율까지는 아니겠지만 지금보다 충분히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현재 대한민국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일까? 나는 최근 미디어에 가장 많이 올라온 프로그램 '흑백요리사'를 바탕으로 설명하고 싶다. 사실 이전에도 요리사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 덕분에 '요리사'라는 말 대신 '셰프'라고 지칭하며 기존 요리사와 관련된 낮은 직업군이라는 인식이 개선된 적 있었다. 거기에 힘입어 이번에 나온 프로그램은 '셰프'의 위상뿐만이 아닌 '셰프'라는 직업 자체의 선호도를 올리며 수요도를 올리게 되었다. 이처럼 정부에서 이제는 캠페인 등의 활동보다 청년층들이 이용하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의 제작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권*영:** 사회에 개인주의가 만연해지고 집값이나 육아에 드는 비용 등 가정을 이루는데 재정적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또한 여성 차별과 더불어 남녀 사이의 갈등과 어려서부터 경쟁을 중요시하는 사회가 되며 단체의 이득보다 개인의 이득을 중요시하고 개인주의에서 심화된 이기주의로 넘어가게 된 것 같다. 재정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집값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책에서 말하는데 정부에서 청약이나 LH 주택 같은 정책을 늘리고 수도권 밀집화를 완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내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상적으로 말하자면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개인의 주관적 바람으로는 먼저 기본적인 법의 강화를 통해 범죄율과 재범률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낮은 처벌은 재범률과 모범범죄를 필연적으로 증가시키며 이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여성으로서 여성이 주로 피해자가 되는 범죄에 더욱 분개하게 되는데, 경찰청에 따르면 교제 폭력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2024년인 올해 교제 폭력 신고 건수는 일 평균 200건을 훌쩍 넘는다고 한다. 출산율을 논하기 전에 여성이 안전함을 느끼는 사회인지를 먼저 사유해 보는 게 중요하다고 느낀다. 또한 남성에게만 의존했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여성도 경제적 활동을 하며 1인 가구로 생활하는 경우가 많고, 결혼하더라도 물

가가 높아진 지금은 맞벌이가 필수가 되었다. 하지만 6장에서도 말하듯 임금 격차와 여성의 연령대가 높아짐에 따라 여성의 취업률은 점점 낮아지고 경력 단절을 염려하는 여성들은 자연스럽게 결혼을 미루거나 아예 하지 않고, 하더라도 출산은 하지 않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임금 격차를 완화하고 여성의 사회진출을 부정하는 시각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 **김*우:** 대한민국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에 대한 반감을 보이는 이유 중 하나는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데 있어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이들은 성공의 기준을 재정적 안정과 개인적 성장으로 삼는다. 이러한 기준에서 결혼과 출산은 경제적 안정을 취하기 불안한 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에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경제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해결방안으로 미디어 캠페인 같은 홍보 활동이 있지만, 이는 청년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나는 성공을 바라보는 대한민국 청년들, 그리고 경제적 부담을 원치 않는 1인 가구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경제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현재 2022년 기준으로 국가장학금 제도에서 다자녀가구의 대학생이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일 경우 셋째 이상부터 대학교 등록금을 전액 감면해주는 정책이 있다. 이러한 경제적 지원과 유사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다른 나라의 성공적인 사례도 존재하는데,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에 따르면 스웨덴에서는 정부가 부모에게 유급 육아휴직을 제공하고, 자녀 수에 따라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하여 출산율을 높이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이 청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국가의 재정적 한계나 사회적인 인식이 결혼이나 출산은 개인의 선택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여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따라서 나는 처음부터 큰 지원이 아닌 대상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이나 민관 협력을 통한 지원 프로그램, 저비용 공공 서비스 확대 등 작은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접근이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 더 효과적이며 결론적으로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 홍보나 캠페인보다 경제적 지원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된다. 현재 결혼과 출산을 단순한 개인의 선택으로 보는 인식이 만연한 상황에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할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처음부터 큰 지원이 아닌 점진적으로 강도를 올린다면, 사람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저출산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서*원:** 첫 번째 질문에서 언급했듯 높은 생활 비용, 준조세화된 사교육비, 수도권 집중 현상, 낮은 노동 생산, 노인 문제 그리고 우리나라의 역피라미드 인구 구조는 모두 얽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먼저 높은 생활 비용 해결에 대한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다. 1장에 서술되어 있다시피, 우리나라의 경우 GDP가 상위권인 국가인데 국민이 돈이 없다고 느끼는 이유는, 실제로 돈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서비스업 지출 비용은 정부가 덜 투자하기도 하고 비정상적으로 낮고, 국민은 자신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준 이상은 벌지만 남은 돈은 조세를 통해 공동체에 분배된다. 또한 우리나라 지형 특성상 농업 생산성은 낮을 수밖에 없고 특정 식품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게 되면서 식료품 가격은 비정상적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다. 여기서 우리나라 지형 자체는 바꿀 수 없으니 이미 영세적인 농가의 농업 생산성은 개선되지 않을 것이고, 나라가 조세를 지금보다 덜 걷는 등 노동자의 주머니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한 높은 생활 비용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준조세화된 사교육비도 마찬가지다. 이미 조세의 성격을 갖게 된 사교육비 개선도 마찬가지로 쉽게 이뤄질 것 같지는 않다. 수도권 집중 현상과 노동 생산, 노인 문제 또한 마찬가지다. 1~5장에서 줄곧 언급했듯 이 전체적으로 얽힌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나라의 역피라미드 인구구조는 개선되기 어려워 보인다.

> **유*민**: 우리나라는 결혼과 출산 장려를 위한 많은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생각은 한다. 결혼하면 나오는 지원금, 안정적인 거주지를 위한 주택 지원 정책, 낮은 출산율을 위해 나오는 지원금, 심지어 출산 이후의 육아를 위해 보육시설도 늘리는 등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렇듯 정부는 다방면적으로 결혼과 출산을 장려와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방안의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은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 결혼하고 출산 이후 발생하는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내놓는 정책들은 실제로 필요한 만큼의 경제적 지원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 보통 지원금은 일회성으로 제공되는데, 이 지원금이 딱히 크지도 않을뿐더러 장기적으로 나오는 지원금으로는 안정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연하지만 결혼, 출산에 대한 지원금을 늘려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사람들이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경제적인 이유도 근본적 이유지만, 나는 그것보다는 교육의 문제라고 본다. 현재 결혼과 출산을 고민하는 세대는 우리나라의 치열한 교육 경쟁을 지나온 세대일 텐데, 이 과정을 지나쳐온 세대가 과연 자식들한테까지 이런 경쟁을 시키고 싶을까? 교육의 상향평준화로 인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지식은 더욱 많아져 가고 이러한 교육의 양만 보더라도 미래의 자녀는 자신보다 더한 경쟁을 하며 자랄 것이라 확신이 있는 상황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경쟁 자체가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자본주의가 깊게 배어있는 대한민국에서는 자녀가 하고픈 것을 시켜주기에 경제적인 문제가 막아서니 출산을 고민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즉 우리나라 특유의 경쟁시키는 교육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출산율이 계속 떨어질 것 같다. 마지막은 세대 변화에 따른 일종의 유행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위 두 가지 이유보다는 덜하지만, 혼인율, 출산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결혼하면 힘들기만 하다.'라는 말이 퍼지면서 결혼에 대한 별생각이 없던 사람들은 결혼은 하지 않겠다는 사람들마저 결혼에 대한 비관적인 이미지가 생기고, 이것이 어찌 보면 유행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사실 위 두 문제가 해결된다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한다.

> **홍*우**: 이민 정책은 위와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농업, 건설업과 제조업 등 고강도 노동 분야에서 국내 인력 부족 문제를 우선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또한 제조 및 서비스업 등의 해외 숙련 인력을 수용하여 노동 시장을 재 활성화한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재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민 정책을 들이며 가장 신경써야 할 부분은 이들을 위한 사회 정책 제도이다. 이민자가 증가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등의 사회 부적응 문제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이민자 자국의 문화

와 한국 문화가 공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등을 지자체에서 지속 시행 및 관찰하는 등 이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 및 기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는 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추가로 언어 교육, 주거 지원 및 다양한 복지 혜택 등의 지원 강화를 통해 이민자들의 사회 정착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러한 이민 정책 및 복지 혜택은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노동력 부족 문제 및 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 침체 등의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민자들과의 사회적 통합 문제와 이들의 권리 및 복지 보호 등의 문제가 제시되며 또 다른 숙제로 자리 잡을 수 있다.

▶ 책 내용 중 토론하고 싶은 질문

1) 유*민: 책에서 보면 출산이 여성 고용에 페널티로 작용하지만, 그 정도가 한국과 일본이 특히 심하다고 나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펼치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하는가?

> 남*현: 본 질문의 내용이 저출산을 극심하게 치달게 만든 이유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즉,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사회적 문제와 사회흐름, 현재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경향성까지 포함된 복합적인 문제로 접근하며 정책을 제안해야 한다. 현대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청년층들은 '공동체'라는 인식보다 '개인주의'가 강하다. 이렇게 개인주의적 성격을 가진 청년들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기도, 받기도 싫어하는 경향성을 갖고 있다. 그렇다 보니 타인에게 의존적으로 생활하는 것 보다 개인의 자립성을 중심으로 안정적 미래를 도모하며 자유롭게 본인의 인생을 살 수 있는 삶을 중요한 가치로 두었다고 생각한다. 젊은 청년들에게 이러한 가치가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는데, '결혼'과 '출산'은 청년층 여성에게 경력 단절 등으로 인하여 안정적이며 자립적인 삶을 도모하지 못하게끔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출산은 임신기간으로 인해 비워지게 되는 인력으로 기업에 대한 손해로 작용하며, 대부분 사람이 결혼은 당연하게도 출산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고용의 불가피한 페널티로 작용하는 것 같다. 물론 기업에서 여성을 많이 고용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많은 정책을 제안하였다. 필수 여성 인력의 비율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였지만, 변화하지 않는 결혼과 출산율은 다른 방법으로도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현세대를 의미하는 MZ세대의 경우 과거의 '회사에 정년까지 최선을 다해 일을 해야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입사를 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일하다 이직해야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입사하게 된다. 사실 이렇게 청년층들의 마음가짐이 변화된 상태에서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을 할 사람'을 뽑는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며 기업에서 인력 고용을 위한 면접 혹은 조건에 변화를 줄 시기를 맞은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두 번째로 무조건적 기업의 변화만 강조할 순 없다는 것이다. 기업은 이윤 추구를 핵심적 가치로 두고 운영되는 것이지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해 운영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제시하는 방안으로 임신기간 동안 단절되는 기간을 이용하여 임신부가 개인의 능력을 쌓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업무의 능력뿐만이 아닌 자격증이 있어야 승진을 할 수 있는 회사가 존재하기도 하고, 개인이 자격증으로 인한 전문성이 강화된다면 기존 회사가 아니더라도 경력과 전문 자격증으로 인해 취업의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에서 임신부에게 자격증 취득과 같이 자기 능력을 개발 혹은 강화할 수 있

는 다양한 범위 내에서의 지원이 본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작용할 것 같다.

> 권*영: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 고용 전체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바꾸는 것이다. 이미 페널티를 완화하기 위해 육아휴직 등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 중이지만 주변의 부정적 시각과 회사에서는 육아휴직을 염려해 고용 전 결혼 여부를 물어보는 등 여러 이유로 잘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다른 새로운 정책을 찾기 전에 인식 개선을 위한 근본적 해결책을 먼저 찾는 게 중요하다. 정부는 회사에 육아휴직 관련 지원금이나 복지를 지원하고 차별적 대우가 없도록 규제하고 개인의 인식 또한 교육이나 캠페인을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한다. 여성 고용 차별 문제 전체에 대응하기 위해 성별과 이름 등을 가린 블라인드 채용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특히 출산율이 낮은 한국에서 출산으로 인한 페널티를 가볍게 보는 것은 사회적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기에 여성 고용의 실태를 바르게 알고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 김*우: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가 많은 기업에서 이미 도입된 만큼, 이를 육아와 가정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근무 시간을 조정하거나 재택근무가 가능해지면, 출산 후에도 여성들이 경력을 이어 나가기 훨씬 쉬워지므로, 기업에서도 불필요한 페널티를 부여할 이유가 없어진다. 이는 고용 과정에서 여성들이 부당함을 덜 느끼게 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정책뿐만 아니라 법적 보호를 강화해 출산과 육아로 인해 경력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임신, 출산으로 인한 해고, 승진 배제, 차별을 철저히 금지하고, 이를 어기는 기업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법적 보호를 통해 여성들이 출산 후에도 평등한 고용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기업에서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다. 법적 규제와 함께 육아에 대한 긍정적인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나 지원책을 마련해, 기업이 출산과 육아 문제를 경력 단절의 원인으로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서*원: 넓게 봤을 때 관련된 정책들은 어떤 정권이 들어섰는지를 불문하고 오래전부터 나오고 있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성의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는 것이 우선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부장적 사회가 현재는 미약하게나마 존재하지만 이런 과거 사회의 잔재를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야만 하는 것이다. 관련된 정책을 굳이 하나 꼽자면, 만약 경력 단절 여성의 빈자리로 인해 회사가 안정성 측면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면 그 자리를 메꿀 수 있는 정책이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필요한 만큼의 직원을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예비로 추가 인력을 미리 더 선발할 수 있게 해주는 정책이 나오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봤다.

> 유*민: 출산이 여성 고용에 페널티로 작용하는 이유는 임신기간과 출산 후 육아. 이렇게 두 가지 때문에 페널티로 작용한다고 생각한다. 이 두 가지의 문제를 전부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에서 임신부 한하여 재택근무와 유연근무제를 필수로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 가지 예시로 임신 중에는 일부 재택근무를 하

다 출산 전 4~5개월 정도는 유급휴가 후 출산 후에는 한동안 유연근무제를 진행하는 식으로 말이다. 물론 이것은 내가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임의로 말한 기간이며, 의도는 이런 식으로 재택근무와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면 어느 정도 본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것이다. 이런 식의 방안은 정부의 권장도 필요하지만, 기업의 협조가 가장 필요할 것 같다. 어차피 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기업이며, 기업은 오직 돈과 효율만을 보고 움직이기에 임신이나 출산 걱정이 없는 남성 직원을 뽑는 것이 유리하기는 할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위 방안은 기업의 이해와 협조가 필수이며 그만큼 여성 직원이 재택근무와 유연근무제에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기업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 **홍*우:** 탄력근무제 혹은 재택근무제 등을 도입하여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 등을 통해 출산 이후에도 경력 단절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는 등 육아휴직 제도의 지원을 강화하는 것도 그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제도가 아무리 자리 잡고 있다고 한들, 직장 내 여성의 출산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지 출산했다고 해서 직장에서 자신의 자리를 잃는다는 것은 매우 부당한 처우이기에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직장 내 육아휴직 등에 대한 인식 및 처우 개선 활동을 위한 교육 등이 지속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2) **김*우:** 책에서 우리나라는 성공하기 위해 죽을 때까지 경쟁하는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이러한 경쟁 사회 속 대한민국에서 시험이라는 것은 가장 공평하게 구분 짓는 준거라고 한다. 과연 시험이 무조건적 공정한 기준이라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그렇지 않다면 대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

> **남*현:** 시험의 사전적 의미는 '재능이나 실력 따위를 일정 절차에 따라 검사하고 평가하는 일'이다. 나는 시험이라는 제도 자체는 공평하지만, 넓어진 전공으로 인해 체계화 되어야 하는 준거들이 자리를 잡지 못해 공평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생겼다고 본다. 대한민국에서는 초등학교 아니 심지어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주입한 교육이 제대로 습득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 시험을 이용하였다. 우리나라에서 학생들이 시험에 집중하는 주된 이유는 대학입시를 위한 '수능' 때문이며 합격 여부가 대부분 '성적'이라는 요소가 중요하게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다. '수능'은 그 학생의 학습 수준을 판단하는데 적절한 준거가 될 수 있으나, 그에 대한 단점으로는 단 하나의 시험으로 그 학생의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리스크도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학생의 관심사 중심의 공부보다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영역 중심으로 학습하기에 입시와 관련된 평가 기준을 성적 위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이 시험이 체계화된 것도 중간·기말고사 정도 기간별로 나누어진 정도일 뿐 분야별 영역이 나누어지며 세분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학습 수준이 대학교 내에서 그 학문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평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본인이 전공한 학문을 살려 취업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학문을 발전시키기 위해 인재들을 교육하는 대학에서는 성적 외의 끈기, 관심도 등 입시의 판단 기준들이 변화해야 한

다고 생각한다. 이는 오랜 시간 시행해 왔던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교육방식의 변화로 시작되어야 하여 변화를 맞이하는 기간이 길겠지만, 이렇게 변화되어 새롭게 적용된 교육방식은 이전보다 공정하다 느낄 수 있는 준거를 세울 수 있는 배경이 될 것이라 예상한다.

> 권*영: 먼저 나는 개인적으로 한국의 교육시스템과 시험을 선호하는 편은 아니다. 이번 심비우스의 주제인 '성공'을 생각했을 때도 과도한 사교육, 공부와 경쟁을 중요시하는 우리나라의 교육시스템, 시험은 근시안적이고 크게 공정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이것이 공정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의 학교에서 고등급,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사교육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최종적으로 사회의 계급화를 촉진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와 같은 중요 시험의 비중을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시험의 중요성을 떨어뜨리는 대신에 다른 부분의 중요성을 끌어올려 시험의 단점을 보완하고 학생을 더욱 공정히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학생을 더욱 공정히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란 단지 점수만으로 학생을 평가하는 것이 아닌 학생의 평소 성실성, 창의성 등 다양한 가치를 함께 평가하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비중이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중요성이 떨어지는 과목이나 평소에 이뤄지는 과제, 수행평가는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천천히 조금씩 이를 반전시키며 학생을 적응시켜 과도한 성적 경쟁에 힘들어하는 학생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학생들이 더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한국 인재 양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 김*우: 대한민국에서 시험이 상대적으로 공평하다고 여겨지는 이유는 표준화된 평가 기준 덕분이다. 이는 수치화된 성적을 통해 개인의 성과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나는 시험의 공정성에는 여전히 여러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학생 개개인의 준비 환경이 다르다는 점이 시험의 공정성을 해친다.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 인프라 차이, 가정의 경제적 여건, 사교육 의존도가 높을수록 준비 과정에서 겪는 불평등이 심화된다. 이는 시험이 본질적으로 공평한 평가 도구가 될 수 없다는 비판을 낳는다. 또한, 시험은 주로 암기와 문제 해결 능력에만 중점을 둔다. 창의력, 협업 능력, 문제 해결력 등 소프트 스킬은 시험을 통해 충분히 평가되지 않는다. 따라서 다른 재능이나 역량을 가진 학생들은 불리할 수 있다. 시험을 대체할 방법으로는 자유학기제, 포트폴리오 기반 평가, 역량 중심 평가 제도 등이 제안된다.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는 분야를 스스로 탐색할 수 있도록 하고, 포트폴리오 기반 평가는 학생이 실제로 무엇을 해냈는지를 평가한다. 역량 중심 평가 제도는 실질적인 능력과 잠재력을 다각도로 평가하는 시스템이다. 그런데도 시험이 여전히 주요한 평가 방식으로 남아있는 이유는 이 방식이 그나마 표준화되어 있어 전국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비교적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험 외의 평가 제도가 더 체계적으로 자리 잡는다면, 교육의 다양성과 공정성이 함께 향상되며, 대한민국 사회의 경쟁 방식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을 것이다.

> 서*원: 현재 대학입시제도는 수능과 내신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수능과 내신

	<p>은 모두가 같은 공부를 하고 더 높은 성적이 나온 사람이 상위권 대학에 갈 수 있는 교육제도이다. 모두가 같은 공부를 할 수 있기에 공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 처음부터 교육격차가 발생한 계층이 있을뿐더러 각 개인의 성향에 맞는 교과목들이 따로 존재하기에 이것들을 완전히 공정한 대학입시를 위한 평가 제도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에 대항하여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 같은 제도가 거론되고 있고, 실제로 2025년의 고등학교 1학년 학생부터 수능, 내신과 비교적 거리가 먼 고교학점제를 통해 수업을 듣게 된다. 고교학점제를 통해 학생 개개인은 본인이 하고 싶은 교과목을 선택해서 공부할 수 있게 되고, 본인의 역량을 더욱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개개인의 취향에 맞는 공부를 하게 되면 그만큼 공부에 흥미도 생길 것이고, 나중에 더 전문적으로 되어 결국엔 전체적인 국가 생산성에 좋은 영향도 끼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p> <p>> 유*민: 현재 우리나라의 시험은 다소 모순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특정 분야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하여 보는 것이 시험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의 시험은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12년 동안 원하던 원치 않든 구분하지 않고 모두를 대상으로 시험을 치러야 한다. 그렇기에 우리나라의 대부분 사람은 이러한 경쟁에 많은 불만을 내재하고 있다. 그렇다고 시험이 부정적이기만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 많은 학생을 대상으로 공부 하나로 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하면 현재의 시험만큼 공평한 것이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물론 시험을 대체할 방법으로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자유학기제 같은 방법도 좋지만, 우리나라 특유의 순위를 정하고자 하는 경쟁 사회에서는 정착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기에 나는 시험이 무조건적 공정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험이라는 큰 시스템을 대체 할 수 있는 방법은 마땅히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p> <p>> 홍*우: 시험이라는 것의 본질은 자신이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들을 얼마나 체화하였으며, 이를 시험이라는 제도 안에서 그 능력을 얼마나 잘 선보일 수 있는지 성적이라는 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렇기에 본인은 시험만큼 개인의 노력과 학업성취도 및 적용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제도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학업 과정에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그 과정을 이행하지 못하여 같은 출발점에서 시작할 수 없는 상황 또한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시험 대신 실습 혹은 포트폴리오 작성 등을 통해 개개인의 장점을 살려 해당 분야의 역량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외에 시험으로 개인을 점수 및 등급으로 나누는 것이 아닌 각자에게 맞는 피드백 과정을 통해 학습자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 또한 좋은 대체 방안이라고 생각한다.</p>
<p>활동사진</p>	

--	--

2024년 10월 14일
참가자대표: 남*현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무한도전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4년 10월 28일(월요일) / 장 소 : CLC 4층 동아리방																															
참석자 명단	학번	2020****	이름	남*현	학번	2020****	이름	유*민																								
	학번	2024****	이름	권*영	학번	2021****	이름	홍*우																								
	학번	2021****	이름	김*우	학번		이름																									
	학번	2021****	이름	서*원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1. 3주차 토의 주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10px;"> <thead> <tr> <th style="width: 10%;">주차</th> <th style="width: 20%;">육하원칙</th> <th style="width: 70%;">내용</th> </tr> </thead> <tbody> <tr> <td>1주차</td> <td>누가</td> <td>대학을 다니고 있는 우리가</td> </tr> <tr> <td>2주차</td> <td>언제</td> <td>현재부터 10년 후까지의</td> </tr> <tr style="background-color: #e6f2ff;"> <td>3주차</td> <td>어디서</td> <td>각자의 전공 혹은 관심 분야 중</td> </tr> <tr> <td>4주차</td> <td>무엇을</td> <td>어떠한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td> </tr> <tr> <td>5주차</td> <td>어떻게</td> <td>성공 사례를 보며 도달하기 위한 목적은 무엇인가</td> </tr> <tr> <td>6주차</td> <td>왜</td> <td>우리가 성공을 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인가</td> </tr> <tr> <td>7주차</td> <td>결론</td> <td>성공을 위한 마음가짐에 대하여</td> </tr> </tbody> </table> <p>2. 3주차 도서명 - 20대가 준비해야 할 것들</p> <p>3. 3주차 토의 세부 내용</p> <p>Q. '20대가 준비해야 할 것들'에서는 20대들이 후회와 낭비 없는 청춘을 보낼 수 있도록 앞으로 나아가는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책에 존재하는 다양한 방안들을 무작정 실행하는 것 보다 본인의 목표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p> <p>그렇다면 각자 미래에 생각하고 있는 목표, 즉 진로는 무엇이며 본인이 직접 판단하였을 때 그 진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가?</p> <p>> 남*현: 지난번 설정한 나의 목표는 청소년기 가질 수 있는 정서적 문제, 사회적 고립, 건강, 경제적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들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학업 중단 청소년 전담 사회복지사가 되는 것이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나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핵심적 가치는 Rapport building이었다. Rapport building은 친밀감을 형성하는 과정으로 주로 대화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 사회복지사가 학업 중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욕구나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질문을 시도해도 대부분이 사춘기 시기에 있는 학생들이기에 반항적 행동이나 적극적이지 않은 응답 등으로 일관할 수 있다. CT인 그들이 원하는 목적을 표현하는 것을 성인과 비교하였을 때 어려워하거나 경계로 인하여 무응답으</p>								주차	육하원칙	내용	1주차	누가	대학을 다니고 있는 우리가	2주차	언제	현재부터 10년 후까지의	3주차	어디서	각자의 전공 혹은 관심 분야 중	4주차	무엇을	어떠한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5주차	어떻게	성공 사례를 보며 도달하기 위한 목적은 무엇인가	6주차	왜	우리가 성공을 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인가	7주차	결론	성공을 위한 마음가짐에 대하여
주차	육하원칙	내용																														
1주차	누가	대학을 다니고 있는 우리가																														
2주차	언제	현재부터 10년 후까지의																														
3주차	어디서	각자의 전공 혹은 관심 분야 중																														
4주차	무엇을	어떠한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5주차	어떻게	성공 사례를 보며 도달하기 위한 목적은 무엇인가																														
6주차	왜	우리가 성공을 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인가																														
7주차	결론	성공을 위한 마음가짐에 대하여																														

로 이어질 확률이 높으며 이러한 확률을 최소화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학업 중단 청소년과의 친밀감 형성, 즉 'Rapport building'인 것이다. 그렇다면 Rapport building을 잘 형성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을까? 도서 '20대가 준비해야 할 것들' 내용 중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손을 내밀어라'파트는 이러한 나의 질문에 대답하는 듯한 내용을 담아두었다. 해당 파트는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활동으로 자원활동을 추천하였다. 저자 또한 자원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만날 수 있었고, 그들과 커뮤니티를 쌓을 수 있었다고 한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는 자원활동을 통해 Rapport building의 연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연습을 통해 형성된 나의 능력은 추후 내가 학업 중단 청소년 전담 사회복지사가 되었을 때 청소년과의 상담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용될 것이라 예상된다. 두 번째로 자원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람과 커뮤니티를 쌓을 수 있다는 것 외에도 본인의 성장을 이루어낸다고 말하였다. 현재 내 또래 대학생 친구들은 본인 스펙을 위해 '자원봉사'를 지원한다. 그러나 목적을 두는 활동보다 나 자신의 성장을 위한 목적을 두고 활동하라는 의미를 강조하며 저자는 '자원봉사'가 아닌 '자원활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는 타인을 도우며 본인의 성장까지 이루어내는 직업 중 하나이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사회복지사라는 목표의 작은 실천 현장을 통해 사회복지 실천 현장을 간접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간접적 경험은 나의 직업적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여 미래의 내가 비슷한 활동을 프로그램화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료가 될 것이다. 결국 책에서 권유하는 다양한 방식의 활동 중 나에게 가장 맞는 활동은 '자원활동'이며 이를 통해 기를 수 있는 가치는 'Rapport building'이라 생각하고, 책의 가르침대로 다양한 분야의 활동을 신청하며 내가 원하는 성공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권*영: 나는 어렸을 적부터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남들과 공유하며 살고 싶었다. 예술가, 과학자 등 되고자 하는 직업은 늘 바뀌었지만, 언젠가 나만의 가게, 사업을 열어 내가 좋아하는 것들, 옷, 차, 가구 등을 팔고자 하는 꿈은 바뀐 적이 없었다. 아마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남들도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행복해지기 때문일까? 내 지금 전공인 경영을 공부하며 일반적인 직장장보다 나만의 것을 하고 싶은 마음은 계속해서 커지는 것 같다. 내가 좋아하는 많은 것들을 가게에 진열해두고 손님들이 그것들을 보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상상하면 끝없이 들뜨게 되는 것이다. 나는 나만의 방식대로 행복을 나누는 그런 사업가가 되고 싶은 것 같다. 간단히 말해 내 최종 목표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가득 채워진 가게를 운영해 남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여러 가치 중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일까? 내가 생각했을 때는 '현실을 직시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20대가 준비해야 할 것들'의 저자는 정확히 현실을 직시하는 능력은 현재 본인의 능력치를 알 수 있게 도와줄 뿐 아니라 미래를 예상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말을 전한다. 통상적으로 자영업을 하는 것은 자본뿐 아니라 타이밍도 중요할 것이고, 내가 지금 당장 자영업할 능력치가 충분한지를 계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깨우치기 위해서는 결국 자기 객관화가 필수이고 현실을 직시하며 내 목표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현재 나는 어디까지 와있는지, 자본은 충분한지, 경험은 쌓였는지 등을 가늠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낀다. 반대로 자기 객관화가 부족하면 현

실적이지 않은 목표를 세우거나 본인을 과대평가 또한 과소평가할 수 있다. 한국은 보통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많고, 외국은 과대평가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어느 쪽이든 자신을 알지 못하면 어떤 목표도 이루기 어려울 것 같다. 개인사로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었는데 어릴 적부터 사업에 관심이 많았던지라 아버지에게 사업과 관련하여 이것저것 많이 묻기도 하였다. 그중 사업을 하는 것에 있어 무엇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냐고 질문도 했었는데, 당시 아버지는 결단력과 경험을 꼽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처럼 현실을 직시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자기 객관화가 잘 된다면 자연스럽게 자신감과 결단력이 올라가고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뛰어난 역량이 되어줄 것이라 생각한다.

> 서*원: 심리학과에 재학 중인 나는 과거에 상담심리학과 뇌과학 관련 심리학 분야에 흥미가 있었다. 그러나 상담심리학자와 뇌과학 두 분야 모두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목표였다. 전자는 일반 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업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우리나라가 서비스업 직종을 대하는 태도를 생각해 봤을 때 쉽지 않은 선택이었다. 그러다 보니 여유로운 삶을 빠르게 누리기 위해서는 대학원에 진학하는 것보다 빠르게 취업하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더욱 현명한 선택이라고 판단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뇌과학 분야도 내가 원하는 곳까지 도달하기 위해선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여 공부해야 하며 머지않아 부모님의 지원이 끊기게 되면 그때까지 연구원으로써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불안정한 수입과 불확실한 미래에 모든 수를 두는 것보다 취업의 세계에 발을 두어 삶의 안정을 도모한 다음 내가 정말 원하는 분야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다. 이러한 판단을 바탕으로 나의 현재 목표는 현재 재학 중인 심리학도를 졸업 후 어느 정도 전공을 살려 일반회사의 인사계열 방향 직종에 취직하고 싶다. 내가 생각했을 때 해당 계열에서 중요한 것은 회사 직원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능력이다. 직원의 업무 능력을 판단하여 측정하고, 회사는 이렇게 측정된 점수에 따라 포상을 지급하기도 하며 직원의 업무 능력을 더욱 활성화되도록 만들며 이는 회사의 실적과도 이어진다. 결국 해당 직종은 대부분 회사의 목적인 이윤 추구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에 해당 직종이 업무를 수행할 때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느끼는 가치는 '통찰력'이다. 직원의 업무 태도 및 능력을 객관적으로 해석하고 비교하여 문서의 형식으로 기록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해당 인사계열 직종의 형식적이며 딱딱한 면모만을 가지기보다 유연한 감정표현으로 직원들의 어려움 또한 알 수 있는 면모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해당 직종은 직원의 심리 특성을 알아내고 실무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상담하는 능력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업무 등이 보고된 문서로만 해당 직원을 객관적으로 보고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 직원과의 상담을 통해 심리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직원의 업무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인사계열의 가치라 판단하며 이러한 가치를 갖춘 인사계열 담당자가 되는 것이 나의 목표이다.

> 유*민: 지난 주차에 언급했던 것처럼 나의 목표는 부담 없이 어려운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돈을 벌 수 있는 사업가이다. 사업가가 어떤 일을 한다고 정확하게 특정할 수는 없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수준의 사업가라면 보통 사업의 최고 책임자로서 직원 관리와 함께 사업의 전반적인 관리를 함

으로써 영업을 중심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일을 한다. 도서에서는 존재하는 다양한 방안들을 무작정 실행하는 것 보다 본인의 목표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하며 자신의 진로를 구체적으로 설정해 보자고 하지만 사실 나는 이 말이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다. 왜냐하면 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단 돈이 중심이고, 사업가가 가장 중요시해야 하는 가치 역시 수익이기 때문에 결국 돈이 가장 우선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구체적인 목표가 애당초 '돈을 많이 벌고 싶다.'의 이상이 될 수 없으며, 도서에서 말하는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 크게 의미가 없기는 했다. 그래서 돈 말고 다른 중요 가치는 없는가에 대하여 고민을 해본 결과 '돈'보다 우선 윤리적인 가치가 있다. 내가 남을 돕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만큼 윤리적 가치는 더 중요할 것 같다. 그저 돈을 벌기 위해 투명하지 못한,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벌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문제가 될 것이다. 돈만을 바라본다면 많은 유혹이 있겠지만 이 유혹을 잘 참아 넘겨야 할 것이며 이것 또한 윤리적 가치로 작용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유혹을 넘긴 후 사업가로서 성공하여 원하는 만큼의 부를 얻었다면 다음으로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가치가 있다. 물론 작은 사업이라면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일정 규모를 넘어간다면 작게는 지역 사회에, 크게는 국가에 많은 영향을 준다. 사회에 미치는 기여도가 중요한 만큼 사회적 책임이라는 가치는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다. 이 두 가지 가치는 선한 영향을 위해 생각해야 하는 가치라면 지금부터 말하는 가치는 '사업가'로서 '돈'을 벌기 위해 생각해야 하는 가치이다. '돈'을 벌기 위한 가치라면 우선 혁신에 가치를 두어야 한다. 계속해서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시시각각 적응하고 응용할 수 있는 능력과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혁신에 가치를 두어야만 한다. 언제나 새로움을 찾아야 하고, 있는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생각해야만 할 것이다. 그렇기에 이 혁신은 사업가에게 중요한 가치이다. 다음은 고객에게 가치를 두어야 한다. 고객에게 가치를 둔다는 것은 고객을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고객의 욕구를 이해하고 이를 충족시켜야만 사업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객은 사업가에게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중요 가치이다. 솔직한 말로 사업가로서 가치를 생각한다면 혁신이나, 고객 같은 돈을 중심으로 한 가치를 중요시해야 하지만 나의 목표는 어려운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인 만큼 윤리적, 사회적 가치에 더욱 중심을 두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다.

> **홍*우:** 나의 현재 목표는 오랫동안 공간의 가치가 변하지 않고 오직 고객을 위한, 고객에 알맞은 쉼터를 제공하는 공간 디자이너가 되는 것이며, 고객에게 제작된 공간이 유행을 타지 않고 오랫동안 가치와 본연의 멋이 유지되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이다. 공간 디자이너는 주택, 사무실 혹은 상업 공간의 내부 환경을 기능과 용도에 맞게 설계하고 장식하는 직업이다. 공간이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 해당 용도에 맞게 어떠한 모습으로 설계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통해 실내 환경이 조성된다. 그렇기에 내가 생각하는 직업적 중요한 가치 중 하나는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공간 디자이너는 대부분의 작업 시간을 고객 및 업체의 요청 사항과 예산 등을 조정하고 협의하는 데 사용하며, 나의 목표를 중심으로 두었을 때 이 과정의 중요도는 8할 이상이라고 생각한다. 고객이 원하는 공간의 용도는 기본으로 고려하며 상담을 통해 고객이 원한다면 생활패턴 등과 같이 사소한 부분까지 적용한 공간을 설계하는 것이 목표이기에 의사소통 능력은 해당 직업의 핵심 가치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고객 및 업체와

의 협의 과정에서 많은 프로젝트가 중도 취소 등의 난항을 겪기도 하고, 의사소통의 부재로 인해 고객이 원하는 공간이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렇기에 공간 디자이너는 고객의 요청에 항상 귀 기울이며, 고객의 요청 사항을 수용적인 태도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서는 뛰어난 의사소통 능력은 필수 가치 중 하나다. 위와 같은 능력을 갖추었다면 다음으로 중요한 가치는 '완벽함을 추구하는 자세'라고 생각한다.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고객을 위한, 그에 알맞은 쉼터 및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도면 설계 및 시공으로는 부족하다. 고객의 요청을 바탕으로 공간을 설계 및 작업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실수도 허락하지 않는 완벽함을 추구하는 모습을 가져야 비로소 공간 디자이너로서 내가 원하는 성공을 이루어냈다고 생각한다. 이외에도 해당 직업이 가지는 다양한 전문적이며 실무적인 능력을 소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많은 이들이 공간 디자인은 단순히 도면만 그리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기본적인 부분 중 하나이며 기본을 넘어 공간의 각 공법을 이해하며, 현장을 관리하는 역할과 시공 실무와 관련된 능력 또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창의성 및 독창성이다. 국내 유명 공간 디자이너인 임성빈 디자이너는 눈에만 예뻐 보이는 디자인은 좋은 디자인이라 말할 수 없으며 공간을 직접 이용하는 대상자를 중심에 두어 '공간 안에서 머무는 사람들에게 어떤 시간을 줘야 할까?'라는 질문을 통해 설계를 시작한다고 한다. 공간의 비주얼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사용자가 그 공간 안에서 어떤 시간을 보내는지가 공간 디자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단순한 도면 설계 및 시공은 어지간한 공간 디자이너들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다. 해당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작업자들과 차별화된 모습이 필요하다. 결국 나는 내가 설계한 공간을 이용할 사용자가 그 공간의 용도가 무엇이든 심신의 안정을 안고 이용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공간 안에서 내가 제공하고자 하는 미적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나의 목표이다. 결국 보편적인 디자이너의 모습이 아니라, 사용자의 취향과 선호가 중심으로 하여 오랫동안 질리지 않는 공간을 만들면서 그 안에 나만의 창의성과 독창성을 녹여낼 수 있는 공간 디자이너가 되길 희망한다.

> **김*우:** '20대가 준비해야 할 것들'이라는 책에서 목표를 설정할 때 롤모델을 설정하는 것이 나의 꿈에 다가가기 위한 나침반 역할을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었고, 해당 내용이 가장 인상 깊었다. 그래서 저자가 제시해준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내 목표와 핵심 가치를 설정해 보려고 한다. 중세 유럽 큰 파장을 일으킨 바이러스 '천연두'가 유행했던 당시, 영국의 에드워드 제너는 마을 의사로 일하면서 천연두 치료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해당 연구에 몰두하였다. 그의 뛰어난 관찰력으로 인해 우두에 감염된 적이 있는 사람은 천연두에 감염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으며, 결국 종두법을 발견해 최초의 백신을 개발한 면역학의 아버지라는 수식어를 가지게 되었다. 결국 그는 역병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을 때 '백신'이라는 혁신적인 발명으로 여러 사람을 살렸으며, 이는 이후에 발생한 다양한 바이러스 또한 어느 정도 극복해낼 힘을 인간에게 가져다 주었다. 에드워드 제너처럼 새롭게 커다란 발명을 이루어내기는 어렵지만, 그의 뜻을 이어 신종 바이러스에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백신을 개발하는 연구원이 되고 싶다는 것이 나의 목표이다. 이러한 내 목표는 달성되기 위해 인체와 관련된 학문의 지속적인 학습도 당연히 필요할 것이며 이외에도 연구원으로서 다양한 가치들을 요구할 것이다. 그중 내가 생각하는 연구원이라는 직업의 핵심

가치는 가장 기본기가 되는 '실험'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실험은 진행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닌, 가장 첫 시작인 실험 진행의 주제부터 시작하여 시행하는 목적과 이용되는 원리 또는 이론을 파악하는 것, 실험 기구 이용법과 해당 실험을 준비하는 과정, 실험을 진행하며 작성될 일지와 결과 레포트 작성까지 이 모든 단계에 해당하는 '실험 진행 방법'에 대한 학문적 지식과 역량이 가장 중요한 직업적 가치라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나는 이 역량을 발전시켜야 내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으며, 이 역량의 발전은 '경험'에도 비례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내가 수강하고 있는 교과목들은 대부분 실험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렇게 수강하게 된 교과목들은 나에게 학습적인 측면뿐만이 아닌 경험으로도 다가온다고 생각한다. 연구원으로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현재 수강 중인 과목, 앞으로 수강할 실험 과목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기록해 놓을 것이며, 이를 통해 제너와 같은 연구자로 더 가까이 다가설 것이다.

Add. 각자 미래에 생각하고 있는 직업을 중심에 두고 이 직업에 필요한 현실적인 가치를 마인드맵의 형식으로 표현하시오.

> 남*현: 학업 중단 청소년 전담 사회복지사



> 권*영: 경영자

> 서*원: 산업 카운슬러

> 유*민: 사업가



> 홍*우: 공간 디자이너

> 김*우: 면역 관련 연구원



▶ 책 내용 중 토론하고 싶은 질문

1) **홍*우**: 꿈을 가지는 것만큼 중요한 건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분명한 목표를 정하는 것이며, 목표를 정하지 않으면 그 꿈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우선 이상적인 꿈을 가지는 것과 현실을 직시 후 구체적 목표를 세우는 것 중 어느 것이 더욱 중요한가?

> **남*현**: 저자가 강조한 것처럼 나 또한 꿈을 이루기 위해선 분명하게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성공의 가능성을 높인다고 생각한다. 확실한 목표 설정은 해당 목표로 다가가는 방향성을 제시하며, 이는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잃게 될 확률을 낮춰준다. 그렇기에 현재의 위치에서 내가 원하는 높은 위치의 목표를 향해 한 발자국씩 다가갈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라는 계단을 만들어 나가지 않는다면 원하는 위치로 올라가기엔 어려움이 존재할 것 같다고 생각한다.

> **권*영**: 개인적으로는 현실적 목표가 더 중요하다고 느낀다. 실질적으로 목표를 이루는 것에 있어서는 이상적 목표보다 현실적 목표를 가졌을 때 목적을 이루는 것이 더 쉽다. 단적으로 단지 이상적 목표를 가질 때는 목표를 이루려고 하더라도 막연하게 느껴지기 쉽고 현실적으로 이루기 힘든 목표일 때가 많기 때문에 목표를 정하였더라도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현실적 목표는

공간 디자이너의 가치



면역 관련 연구원



개인의 상황에 따라 바뀌고 실현 가능성이 있다는 가정하에 세워지는 것이므로 막연하지 않고 해야 하는 것들이 명확해진다. 큰 꿈과 이상적인 목표를 가지는 것은 더 큰 것을 이를 가능성이 생긴다는 것에서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이상적인 목표 이전에 현실을 직시, 구체적 목표를 세워 이룬다면 후에 이상적인 꿈을 이룸에 있어서도 큰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서*원: 이상적인 목표는 멀리 보았을 때 본인 진로의 방향성을 제공하는 것에 도움이 되고, 현실적인 목표는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먼 미래의 이상을 위해 한 걸음 다가가기 위한 도구가 되어 준다고 생각한다. 자세한 목표(현실적인 꿈)나 꿈을 크게 가지느냐(이상적인 꿈)는 중요하지 않다. 어린아이처럼 이상적인 꿈을 꾸었을 때 창의적 아이디어가 샘솟고 더 자세한 목표를 세울 수 있게 될 것이다. 피카소가 성공한 원인은 그가 어린아이의 사고방식을 간직했고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했기 때문이다. 남녀노소 누구나 이상적인 꿈은 간직하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게 현실에 매번 가로막혀도 말이다.

> 유*민: 이상적인 목표와 현실적인 목표. 둘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 물으면 나에게서는 현실적인 목표가 중요하다고 말할 것이다. 굳이 앞에 '나에게는'이라는 말을 붙이는 이유는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이상적 목표를 크게 잡은 뒤 그 목표를 위해 노력하여 나아가는 사람도 있다. 이런 경우는 이상적인 목표만 있다면 그것을 달성하기 전까지는 오직 목표 하나만을 보며 달려가며, 그것만을 위해 노력하며 살아간다. 이런 성격의 사람들에게는 현실적인 목표는 오히려 스스로 한계를 정하는 꼴이 된다고 생각한다. 반면 나 같은 경우는 이상적 목표를 잡아두면 '나는 어차피 이런 목표가 있어'라는 생각에 나태해지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에 이상적 목표를 잡기보다는 당장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 목표를 정한 뒤 하나하나 달성해 가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그렇다고 이상적 목표를 전혀 잡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상적 목표는 잡되 현실적 목표를 더 중요시하며 달성하는 데 오래 걸리지 않는 목표를 우선 해결해 가는 것이다. 따라서 나에게서는 현실적인 목표가 우선이고, 더 중요한 것이다.

> 홍*우: 먼 미래를 보기 위해서는 이상적인 꿈을 우선적으로 가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에게 흥미 있는 분야에 열심히 하는 경향이 있다. 본인의 진로 및 꿈에 대한 큰 틀이 잡혀 있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면 이후에 진로에 대한 구체적 목표는 저절로 세워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여기서 '본인의 진로 및 꿈에 대한 큰 틀'이 이상적인 꿈이라고 생각하며, 여기에는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고 장래를 생각하는 초등학생의 '대통령'과 같은 답변이 될 수도 있다. 처음 세우는 목표가 크지 않으면 그 안의 선택지 또한 적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만약 현실을 직시 후 구체적 목표를 세운다면 현실의 벽에 가로막혀 본인의 진로에 대한 흥미를 쉽게 잃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 김*우: 나는 저자와 조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 나는 목표보다도 먼저 꿈을 가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꿈은 단순한 목표를 넘어, 삶에 깊은 의미를 부여하고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동력은 비록 목표 달성에 실패하더라도, 우리가 진정 원하는 꿈이 있다면 좌

절에서 쉽게 극복할 힘이 되고, 실패를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기회로 여길 수 있다. 반대로 실패했을 때 단지 목표 달성의 실패로 끝나버린다면 우리는 쉽게 무력감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꿈을 계속 마음속에 품고 있다면, 실패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할 수 있다. 꿈은 단순히 결과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준다. 그렇기에 이상적인 꿈이 먼저라고 생각하며, 꿈을 통해 꾸준히 열정을 가지고 도전한다면, 목표가 잠시 무너질지라도 꿈의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가지게 한다고 생각한다.

2) 서*원: 저자는 팔팔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20대에게 꼭 해외여행을 다녀와 보라고 권고한다. 견문이 넓어질 수 있고, 여행을 떠나서 직접 몸으로 부딪히며 배우고 깨닫는 것들이 더 소중하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책을 통해 세상을 간접 경험하고, 평소에 다양한 사람을 만나며 견문을 넓히는 젊은이들도 많은데, 여기서 꼭 해외여행을 가보라고 하는 저자의 말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 남*현: 질문을 듣고 이외에 저자의 의도에 대하여 생각해 보게 되었다. 저자는 '20대가 준비해야 할 것들'이라는 책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답은 목차를 보면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다. 한 분야에 치중되어 있지 않은 다양한 분야의 활동들을 추천하는 것을 보아 이 책의 저자는 20대가 한정되지 않은, 조금 더 다양한 분야를 시도하고, 배우고, 경험하는 것이 성공에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이라고 전달하고자 하는 것 같다. 이러한 저자의 의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질문을 생각해 본다면 20대에 가장 크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해외여행'임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20대임을 강조한 이유를 생각해 보았을 때 가장 자유롭고, 너무 제한받지도 않으며, 신체적 조건이 최상임을 나타내서이지 않을까 싶다. 우리는 머지않아 대학 졸업을 맞이하며 직장을 다니게 될 것이다. 굳이 회사에 취직하는 것이 아니어도 본인이 직접 사업장을 차리게 될 수도 있다. 어쨌든 우리 앞으로 은퇴까지 살아가며 쉬는 날 보다 생산적인 일을 하는 날이 더 많을 것이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은퇴 후에 여행도 충분하지 않을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현재 50대 후반을 바라보고 있는 부모님을 보더라도 은퇴 후 여행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점점 쇠약해진 몸으로 변화하며 심지어 한국 내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뿐인데도 불구하고 장거리 여행을 힘들다고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렇기에 저자는 배움이 빠르며, 시간적 여유가 너무 제한적이지 않고, 자유로우며 가장 건강하고 예뻐 나이 20대에 해외여행을 추천한 것 같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저자의 말에 동감한다.

> 권*영: 본인은 어렸을 때부터 해외여행을 종종 갔고 고등학교 시절에는 해외에서 학교에 다니기도 하였는데 경험에 의한 주관적 의견으로는 저자에 동의한다. 해외에 체류하는 것은 그것이 단기이든 장기이든 한 사람의 세계를 넓혀주는 것 같다.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그들의 의견, 시야를 공유받음으로써 시각이

넓어지고 사고는 유연해지며 한국에 돌아가서도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조금 더 단단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는 단지 책을 통해 배우는 것보다 훨씬 입체적이고 다채로운 일이다. 실제로 본인이 해외에서 학교에 다니면서 그 나라의 사람들과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나누곤 했는데 대화를 나누며 의견이 너무나 다양하다는 사실에 놀랐고 시각이 넓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다. 이때 했던 대화와 경험들은 후에 대학교 면접이나 다른 면접들에서 큰 도움이 됐다. 우물안 개구리란 말도 있듯 특히 한국은 지형적이거나 문화적으로 단일 민족의식이 있고 폐쇄적인 사고를 하기 쉬운데 해외여행을 통해 시야를 넓히고 사고의 유연성이 늘어나는 것은 한창 취업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고난을 겪고 있을 20대에게 큰 힘이 되어 줄 것이다.

> 서*원: 이 책의 저자 말고도 남녀노소 상관없이 많은 사람이 젊은이들에게 여행을 떠나라고 조언한다. 왜 그럴까? 제각기 다른 이유로 여행을 떠나라고 권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우리가 여행을 떠나면 견문이 넓어지기 때문이다. 이 좁은 공간에 있으면 시야가 좁아지고, 다양함을 추구하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여기서 의문이 있다. 이런 경험들은 책이나 영상 등을 접하며 간접적인 경험을 하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가? 물론 여행을 떠나서 직접 몸으로 부딪히며 알고 깨달은 것들이 더 기억에 남게 된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그렇다고 본인이 정말로 떠나고 싶지는 않는데 주위에서 추천한다고 해서 가는 것은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저 즐기기 위해 떠나는 것이라면 상관없지만, 만약에 무언가를 얻고 싶어 떠나고 싶으면 본인만의 소신을 가지고, 목표를 세우고 떠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 유*민: 해외여행을 가보는 것에 대하여는 찬성이다. 해외여행을 다녀온다면 보고 배우는 것도 많으며, 다양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짧게 다녀오게 되더라도 느끼는 것이 있고 그 경험은 어디서도 얻지 못하는 지식이다. 이러한 경험들은 자신을 발전시키고 삶의 질을 올리는 것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하지만 모두에게 무조건 해외여행을 가보라고는 하지 못할 것 같다. 현실적으로 금전적 여유가 없어 다녀오지 못하는 경우는 논외로 치고, 정말 모두가 해외여행을 가보아야 할까? 이것은 사람마다 목표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한다. 만약 본인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관리하는 회계사나 우리나라의 법을 가지고 잘잘못을 따지는 검사, 변호사 같은 해외여행의 경험이 딱히 필요치 않은 경우라면 해외여행을 반드시 다녀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시간, 돈 모든 것이 된다면 상관없지만 내가 우선 목표 직업을 먼저 달성해야겠다고 한다면 굳이 무리해서라도 해외여행을 다녀와야 한다고는 말하지 못할 것 같다. 그래도 해외여행이 자신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고, 소중한 경험으로 남을 것이니 기회가 된다면 한 번쯤이라도 해외여행을 다녀와 보라고 말하고 싶다.

> 홍*우: 나는 저자의 말에 매우 동감한다. 실제로 고등학교 재학 중 해외여행 경험을 통해 다양한 국가의 문화와 다양성에 대하여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체류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고, 많은 것들을 보면서 인격적으로 성장한 시기였다. 물론 20대가 아니라 30~40대 혹은 50대에도 해외여행을 통해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지만, 많은 것들을 시도하고 도전할 수

	<p>있는 20대에 가는 해외여행은 다른 연령대의 해외여행보다 높은 이해도와 깊이 감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으며, 여행 경험으로 인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p> <p>> 김*우: 저자가 성공하기 위해 20대 때 해외여행을 꼭 가보라고 하는 말에 공감이었다. 나에게 있어서 경험은 목표를 달성하고 성공하기 위한 지름길이라고 생각할 만큼 중요한 가치다. 해외여행은 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중요하고 소중한 경험이 된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여행은 단순한 관광을 넘어서서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을 직접 마주하며 스스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한다. 저자가 20대를 특히 강조한 이유도 이해된다. 30대 이후, 특히 취업 이후에는 삶의 여러 책임으로 인해 20대처럼 다양한 경험을 할 시간적 여유가 줄어들기 마련이다. 따라서 아직 많은 가능성과 도전의 문이 열려 있는 20대에 여러 경험을 쌓아두는 것이 성공에 대한 중요한 준비 과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p>
<p>활동사진</p>	

2024년 10월 28일

참가자대표: 남*현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무한도전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4년 11월 04일(월요일) / 장 소 : CLC 4층 동아리방																															
참석자 명단	학번	2020****	이름	남*현	학번	2020****	이름	유*민																								
	학번	2024****	이름	권*영	학번	2021****	이름	홍*우																								
	학번	2021****	이름	김*우	학번		이름																									
	학번	2021****	이름	서*원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1. 4주차 토의 주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10px;"> <thead> <tr> <th style="width: 10%;">주차</th> <th style="width: 20%;">육하원칙</th> <th style="width: 70%;">내용</th> </tr> </thead> <tbody> <tr> <td>1주차</td> <td>누가</td> <td>대학을 다니고 있는 우리가</td> </tr> <tr> <td>2주차</td> <td>언제</td> <td>현재부터 10년 후까지의</td> </tr> <tr> <td>3주차</td> <td>어디서</td> <td>각자의 전공 혹은 관심 분야 중</td> </tr> <tr style="background-color: #e1eef6;"> <td>4주차</td> <td>무엇을</td> <td>어떠한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td> </tr> <tr> <td>5주차</td> <td>어떻게</td> <td>성공 사례를 보며 도달하기 위한 목적은 무엇인가</td> </tr> <tr> <td>6주차</td> <td>왜</td> <td>우리가 성공을 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인가</td> </tr> <tr> <td>7주차</td> <td>결론</td> <td>성공을 위한 마음가짐에 대하여</td> </tr> </tbody> </table> <p>2. 4주차 도서명 - 20대가 준비해야 할 것들</p> <p>3. 4주차 토의 세부 내용</p> <p>Q. '20대가 준비해야 할 것들'에서 저자는 목표를 정확히 설정하였다면 이후 본인의 목표로 가까이 향하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3주차에 설정한 본인의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 책의 내용을 통해 정리해보시오.</p> <p>> 남*현: 지난번 설정한 나의 목표는 청소년기 가질 수 있는 정서적 문제, 사회적 고립, 건강, 경제적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들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학업 중단 청소년 전담 사회복지사가 되는 것이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나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핵심적 가치는 Rapport building이었다. Rapport building은 친밀감을 형성하는 과정으로 주로 대화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 사회복지사가 학업 중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욕구나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질문을 시도해도 대부분이 사춘기 시기에 있는 학생들이기에 반항적 행동이나 적극적이지 않은 응답 등으로 일관할 수 있다. CT인 그들이 원하는 목적을 표현하는 것을 성인과 비교하였을 때 어려워하거나 경계로 인하여 무응답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으며 이러한 확률을 최소화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학업 중단 청소년과의 친밀감 형성, 즉 'Rapport building'인 것이다. 그렇다면 Rapport building을 잘 형성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을까? 도서 '20대가 준</p>								주차	육하원칙	내용	1주차	누가	대학을 다니고 있는 우리가	2주차	언제	현재부터 10년 후까지의	3주차	어디서	각자의 전공 혹은 관심 분야 중	4주차	무엇을	어떠한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5주차	어떻게	성공 사례를 보며 도달하기 위한 목적은 무엇인가	6주차	왜	우리가 성공을 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인가	7주차	결론	성공을 위한 마음가짐에 대하여
주차	육하원칙	내용																														
1주차	누가	대학을 다니고 있는 우리가																														
2주차	언제	현재부터 10년 후까지의																														
3주차	어디서	각자의 전공 혹은 관심 분야 중																														
4주차	무엇을	어떠한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5주차	어떻게	성공 사례를 보며 도달하기 위한 목적은 무엇인가																														
6주차	왜	우리가 성공을 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인가																														
7주차	결론	성공을 위한 마음가짐에 대하여																														

비해야 할 것들' 내용 중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손을 내밀어라'파트는 이러한 나의 질문에 대답하는 듯한 내용을 담아두었다. 해당 파트는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활동으로 자원활동을 추천하였다. 저자 또한 자원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만날 수 있었고, 그들과 커뮤니티를 쌓을 수 있었다고 한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는 자원활동을 통해 Rapport building의 연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연습을 통해 형성된 나의 능력은 추후 내가 학업 중단 청소년 전담 사회복지사가 되었을 때 청소년과의 상담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용될 것이라 예상된다. 두 번째로 자원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람과 커뮤니티를 쌓을 수 있다는 것 외에도 본인의 성장을 이루어낸다고 말하였다. 현재 내 또래 대학생 친구들은 본인 스펙을 위해 '자원봉사'를 지원한다. 그러나 목적을 두는 활동보다 나 자신의 성장을 위한 목적을 두고 활동하라는 의미를 강조하며 저자는 '자원봉사'가 아닌 '자원활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는 타인을 도우며 본인의 성장까지 이루어내는 직업 중 하나이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사회복지사라는 목표의 작은 실천 현장을 통해 사회복지 실천 현장을 간접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간접적 경험은 나의 직업적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여 미래의 내가 비슷한 활동을 프로그램화를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료가 되어 도움이 될 것이고, 이를 위해 봉사활동과 함께 다양한 자원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 **권*영:** 목표 도달을 위해 나에게 선택할 수 있는 노력의 길은 여러 갈래이다. 그렇다면 나는 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어떠한 능력을 향상하고 어떻게 노력해야 할까? 전 주차에서도 말했듯 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실을 직시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다소 낙천적인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은 편이다. 책 '20대가 준비해야 할 것들'에서는 무조건적 긍정과 대안 있는 긍정의 차이점과 중요성에 관해 얘기하며 긍정의 힘만 무조건 강조하다 보면 유리한 점에만 집중하게 되고 결국 현실 직시에 방해가 된다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직시하는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무조건적 긍정은 지양하고 대안 있는 긍정, 즉,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되 현실을 계속 직시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대안 있는 긍정은 현실의 취약점과 부정적인 측면을 직시하고 또 그것을 이겨내는 좋은 방법이 되기 때문에 책에서도 대안 있는 긍정으로 성공한 사례를 여럿 알려주고 있다. 이 사례들을 통해 대안 있는 긍정의 힘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현실을 직시하는 것은 내 강점과 약점을 정확히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에 있어 때때로 어려울 수 있는데 실제로 본인도 가끔 누군가가 '넌 장점과 약점이 뭐야?'하고 질문하면 답하기 어려워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력서를 쓰듯 내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하지 못하는지를 적어보거나 명상처럼 자기성찰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해결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현실을 직시하는 능력은 내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있어,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앞서 언급한 요소를 이용해 말해보겠다. 대안 있는 긍정은 창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 생기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예시로 창업하려면 자본이 필요한데 만약 내가 무조건적 긍정의 사고를 한다면 '대충 할 때 되면 어떻게든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당연히 이런 사고방식은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않는다. 하지만 대안 있는 긍정의 사고를 이용하게 된다면 현재 가진 자본으로는 창업을 할 수 없으니(현실을 직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방안을 세우는 것이다. 현재 운용이 가능한 자본

으로 재테크와 투자를 해 조금씩 자금을 모으고 내가 목표한 금액에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거나 청년 창업 지원과 관련된 정책을 조사하여 정부에서 지원받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책에서도 재테크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통장 쪼개기, 저축, 체크카드 사용, 가계부 작성 등이 있다. 이를 활용해 소비 형태 파악과 동시에 재테크를 활용한다면 자본을 모으는 것에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종합적으로 이러한 사고방식은 목표 달성에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실제 행동함으로써 그에 대한 성취감과 자신감, 확신을 느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서*원: 3주차에 설명하였듯 일반 회사의 인사계열 직종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회사 직원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필요하고, 분석한 내용을 문서 형식으로 기록한 것을 객관적으로 해석하고 비교하는 통찰력 또한 필요하다. 여기서 이런 차가운 측면보다는 '회사'라는 단체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위해 직원과 소통하고 협력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인사팀에서 일하고 싶기에 직원과도 적절히 어울릴 줄 알아야 한다. 이런 능력을 함양한 인사계열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 첫 번째로 자극제가 필요하다. 작가는 책에서 타인을 모방하면 더 많은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결과물도 만들어낼 수 있기에 롤모델을 선정하라고 조언한다. 나는 중학교 때는 양자물리학자인 닐스 보어, 고등학교 때는 헤민스님을 롤모델로 두고 살고 있었는데, 중학교 때는 롤모델의 존재가 공부의 자극제가 되었고, 고등학교 때는 롤모델과 함께 명상하고, 삶을 되돌아보는 등의 활동을 통해 스스로에게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듯 롤모델은 삶의 방향성을 설정했을 때 앞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을 제공할 수 있고, 스스로 집중하게 만드는 수단과 목적이 되기도 한다. 두 번째로 일의 실질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엑셀 등 다양한 파일을 다룰 수 있어야 한다. 직장생활 시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실무에 이용하는 컴퓨터 활용 능력이다. 해당 계열에서 자주 사용하는 플랫폼이나 문서의 형태를 파악하고, 해당 단축키를 외우고, 서식 및 조건부 서식 및 그래프도 수월하게 다룰 줄 알아야 한다. 세 번째로 문서 작성 능력이다. 글쓰기 능력은 한 사람이 쌓아 올린 성과를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중요한 내용을 빠뜨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기록해야 하는 인사계열 담당자도 필수로 가지고 있어야 할 자질이다. 예를 들어 회사 내 인사1팀의 분기별 성과를 분석 및 각 직무를 평가해야 한다는 가정을 둔다면, 인사계열 담당자는 본인이 작성하게 되는 문서가 직원들의 한 분기 동안 고되게 일한 모든 성과를 통해 업무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가 된다는 것을 고려해 빠트림 없이 기록해야 한다. 이러한 업무 상황에서 만약 문서 작성 능력이 좋지 못해 객관적인 평가가 아닌 주관적인 내용이 조금이라도 들어가거나, 작성되어야 할 내용이 빠져있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평가가 공정하지 않게 될 수 있다. 회사에서 인사계열 담당자를 대상으로 문서 작성 능력의 향상을 위해 학습이나 평가 등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현존하는 대부분 회사에는 이미 많은 양의 업무 등 다양한 이유로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나는 평소에 뉴스나 에세이, 소설, 비문학 등의 다양한 장르의 문서를 접함으로써 해당 능력과 더불어 객관적인 시각에 대한 감 또한 기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유*민: '부담 없이 어려운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돈을 벌 수

있는 사업가'가 목표인 나는 저번에도 이야기했듯 목표를 위해서라면 결국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야 한다. 그럼 간단하게 사업가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이윤을 목적으로 자신의 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람이다. 여기서 소비자는 개인이 될 수도 있고 기업이나 국가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다양한 소비자들에게 나의 상품을 홍보하고 알리기 위해서는 언어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중에서도 글쓰기 능력은 다양한 방면으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도서에서도 글쓰기의 중요함을 알려주고 있다. 도서에서는 글쓰기가 중요한 이유로 '글쓰기 능력은 리더가 되기 위한 필수요소이다.', '말보다 글은 훨씬 힘이 세다.', '글쓰기는 의사소통의 핵심 수단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 이것은 마케팅에 있어 자극적이고 강력한 말 한마디로 소비자들에게 나의 상품을 인식시키는 것은 필수이며, 내 상품의 가치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 글쓰기 능력. 언어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한다. 이 능력들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직접 글을 작성해보기, 문학작품 접하기 등 다방면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수많은 노력 중 나의 글쓰기 능력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노력은 세상을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 시각을 바탕으로 두어 생각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나에게 한쪽으로 치우쳐있는 생각과 시각으로는 결국 같은 말만 반복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한다. 내 말만 옳다는 생각은 스스로 다양성을 포기하는 꼴이 되기에 편견 없이 넓은 시각으로 소통하며, 다른 생각도 받아들이기 위한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능력을 통해 다양한 구성원으로 존재하는 소비자에게 사업가인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가치의 높이기 위해 다양한 시각에서 설명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는 나의 목표 도달을 가까이에 하게끔 만들어준다 생각한다. 다음으로는 높은 어휘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사업가에게 마케팅이란 상품을 소비자의 머릿속에 각인하며 상품을 어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마케팅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휘력이 중요하다. 이외에도 상품의 용도와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할 때 상품에 대한 인식을 더욱 강력하게 남기거나, 소비자의 이목을 끌기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휘력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한 책을 읽는 것이다. 책에는 많은 사람의 생각이 담겨 있으며, 표현 방식 또한 작성자에 따라 다르기에 독서야말로 높고 다양한 어휘력을 갖추는데 탁월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앞서 말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결국 목표를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 여기서 내가 말하는 경험은 '실패'라는 경험이다. 실패라는 경험이야말로 현재 자신의 능력치를 확인할 수 있게끔 나타내며, 이러한 경험만이 성공을 위한 발판이라 생각한다. 본인의 능력치를 눈으로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성장시켜 나가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나는 실패를 너무 두려워하기보다 경험이라 받아들이고 겪는 것이 나에게 힘이 된다고 생각한다. 도서에서도 '청년 창업, 잃는 것보다 얻는 게 더 많다.'라는 말만 보더라도 실패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에 비하면 훨씬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험이라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정말 작은 공모전 하나, 작은 대외활동 하나, 하다못해 과제 하나 역시도 경험이라 생각하며 과감하게 도전하고 시도하는 노력은 언젠가 소중한 경험과 지식으로 사용될 것이라 본다. 즉 실패를 각오하고 도전하는 노력은 성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 **홍*우:** 나의 목표는 공간의 가치가 변하지 않고 오직 고객을 위한, 고객에 알

맞은 컴퓨터를 제공하는 공간 디자이너가 되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객과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공간 디자이너는 해당 직업의 특성이 갖는 고유 능력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전체적인 작업물을 바라보았을 때 해당 능력은 작고 사소해 보일 수 있어도, 그 사소함에서 파생된 디테일은 작지만 큰 영향을 주며 작업물의 완성도 또한 높일 수 있으며, 이것이 성공과 가까워지는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나의 의견과 일치하는 저자의 의견이 도서에도 작성되어 있었다. 저자는 상대방을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상대방을 이해시키려면 논리적인 사고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또한 공간 제작을 위해 공간의 쓰임과 같은 부분과 함께 사용자의 행동 패턴 등을 소통으로 공간에 적용하고, 고객에게 적용된 부분을 이해시키며 제작하는 것이 고객 맞춤형 공간 제작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사소통 능력은 공간 디자이너로서 고객과의 소통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다. 고객과 접하는 것 외에 본인이 제작한 프로젝트의 프레젠테이션과 해당 공간 제작을 위한 재료 수급 업체와의 업무 협력 등에도 또한 의사소통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요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특히 나에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은 나의 작업물을 소개하는 전문적인 영역과 외부 업체와의 컨택 등 어떻게 보면 비전문적인 영역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 나는 공간 디자인 아이디어와 작업 진행 방향, 요즘 공간 디자인의 동향 등을 조사하여 제작하고자 하는 작업물을 정리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공간 디자인 분야에 종사하시는 아버지께 해당 내용을 발표하는 시간을 주기적으로 가질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은 발표 전 과정을 녹음 및 녹화 후 모니터링을 통해 발표의 흐름이 매끄러운 정도를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연습하며 완성도를 높일 예정이다. 녹화를 통해 시선 처리, 제스처, 표정 등이 포함되어 비언어적 표현도 함께 개선될 것이다. 이는 후에 고객 앞에서 자연스럽게 정확한 설명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줄 것이며, 내가 제작하고자 하는 작업물 발표를 통해 전달한다는 것으로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되고, 아버지께서 주실 피드백 과정을 통해 대한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는 등 긍정적 효과를 불러오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 김*우: 나의 목표는 신종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백신을 개발해 인류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연구원이 되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연구원이 갖춰야 할 역량을 쌓고, 연구실에 입사하는 것이 1차 적인 목표이다. '20대가 준비해야 할 것들'에서 저자는 남들과 차별화된 나만의 스토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단순한 스펙보다는 "왜 이 일을 하려 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경험을 쌓아야 한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저자는 단순히 어학연수를 다녀오는 것보다 히말라야 에베레스트산을 등반하거나 본인의 관심이 담긴 분야의 동아리를 만드는 등 남다른 경험을 통해 고유의 스토리 형성을 권장하고 있다. 나에게 저자가 권유한 방안을 적용해 보자면, 내가 신종 바이러스 연구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와 그 과정에서 배우고 느낀 점들을 바탕으로 나만의 이야기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순히 바이러스와 면역학 관련 지식과 실험 역량에 그치지 않고, 현재 학업 중 대외활동이나 프로젝트에 참여해 바이오메디컬 지식과 데이터 분석을 접목하여 실제 사례를 연구하고 적용해 보는 경험을 쌓고자 한다. 예를 들어, 대학 연구실 인턴뿐만 아니라 기업 인턴 활동, 2024 세계바이오서밋, 2024 보건산업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등에 참여하여 다양한 경험을 쌓는 기회를 마련하고, 이렇게 경

험한 활동들은 나의 인생을 풍부하게 만들어 낼 것이다. 이러한 스토리는 연구원으로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대한 진정성을 담아낼 수 있는 바탕이 되어 연결될 것이다. 또한, 자신이 가진 강점을 연구원으로서 필요한 역량과 연결하는 것도 중요하다. 내가 빅데이터를 복수 전공하고 코딩을 공부한 점은 향후 신종 바이러스의 발병 패턴 분석이나 백신 개발을 위한 데이터 처리에 큰 강점이 될 수 있다. 세상에는 많은 질병이 존재하고, 많은 질병을 분석하기에는 기술적인 측면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술을 통해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고, 연구 결과를 시각화하여 팀원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 연구실에서 내가 더할 수 있는 가치를 체계적으로 구성한다면, 단순히 남들과 차별화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구실에 꼭 필요한 인재임을 어필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나만의 스토리와 관련 경험을 바탕으로 내가 관심 있는 연구실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량과 경험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에 맞는 학업과 실험 경험을 쌓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남들과 차별화된 활동을 통해 고유의 경험을 축적하고 백신 개발에 대한 명확한 동기를 설정하여 진정성 있는 스토리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20대에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나만의 스토리를 구축해간다면, 스스로를 되돌아보면서 열정을 가지고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그에 맞는 스펙을 쌓아가며 연구원으로서의 꿈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Add. '20대가 준비해야 할 것들'의 저자가 제시한 다양한 그래프와 계획표를 참고하여 앞으로 본인의 10년 계획을 세워보시오.

> 남*현:

<p>1년 목표 (2025.11.06.까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졸업 전 대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경험 최대한 즐기기 2. 2025년 1월에 있는 사회복지사 국가자격증 취득하기 3.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취득하기 4. 아르바이트나 일을 통해 1천만 원 이상 모으기
<p>5년 목표 (2029.11.06.까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종합사회복지기관에 취업하여 2년 이상 경력 쌓기 2.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 취득하기 3. 다양한 자원활동을 통해 여러 분야의 전문성 기르기 4. 재산 5천만 원 이상 모으기 5. 결혼하여 가정 꾸리기
<p>10년 목표 (2034.11.6.까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소년 사회복지기관에 취업하기 2. 정책 제시 공모전 등을 통하여 '학업 중단 청소년'만을 위한 복지 및 제도 필요성 알리기 3. 학업 중단 청소년을 위한 교육 및 여가 프로그램 5개 이상 추진하기 4. 자가 구매하기

> 권*영:

<p>2년 (2026.11.0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6년 1학기 교환학생을 위해 25년 2학기 내 교환학생 신청 - 이케바나 정규과정 본과까지 수강 - 최소 3회 주한미국 대사관이 주최하는 일일 프로그램 참여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 3회 각종 박람회 방문(가구,리빙디자인,식음료등) - 자산 2500만원 달성 - 전산세무, 회계, 재경관리 셋 중 최소 하나의 자격증 취득
4년 (2028.11.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케바나 정규과정 준교수까지 수강 - 최소 5회 주한미국대사관 주최 일일 프로그램 참여, 최소 1회 장기 프로그램 참여 - 개인 포트폴리오, 브랜드 스토리 작업 착수 - 최소 6회 각종 박람회 방문 - 자산 4000만원 달성 - 전산세무, 회계, 재경관리 셋 중 최소 둘의 자격증 취득
6년 (2030.11.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8년 12월 대학 졸업 - 29년 취업 - 부업으로 이케바나 활동 / 최소 월 150만원 - 개인 포트폴리오, 브랜드 스토리 작업 ⅔ 이상 완료 - 최소 10회 각종 박람회 방문 - 자산 5500만원 달성
8년 (2032.11.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1년 경험/커리어 위한 이직 - 자산 7000만원 달성 - 가게 위치 알아보고 전세 계약 - 32년 6월 리모델링 시작 - 32년 11월 리모델링 70% 완료
10년 (2034.11.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3년 4월 가게 가오픈 - 33년 6월 정식 오픈 - 자산 8000만원 달성

> 서*원:

10년 목표 (2034.11.6.까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실무 경력 2년 이상 쌓은 후 PHR 취득. 2. 일반 회사 내 직무분석가로 활동하면서 직접 좋게 평가한 임원들이 회사의 실적 올림.
5년 목표 (2029.11.06.까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브런치 내 인지도 상위권 등록 2. 책 한권 쓰기 3. 출판한 책과 대학생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 강연다니고 수익 창출하기(부업) 4. 공인노무사 자격증 취득 준비 5. EPR정보관리사 자격증 취득 준비
1년 목표 (2025.11.06.까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브런치 작가 등록하기 2. 25년 1~2월 20권 독서 3. 스피치 대외활동 '유니브피티' 지원 후 활동하기 4. 심리학회 학술대회 참석 5. 인사 및 산업 심리학 관련 공부에 집중하기 6. 설득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기 위해 어느 조직의 수장이 되어 보기

> 유*민:

10년 목표 (2034.11.04.까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정 분야에서 완벽히 자리 잡은 사업가 2. 주식, 부동산, 현금에 이르는 총자산 10억 원 이상 달성 3. 대기업과의 협업 4. 서울권의 자가, 법인차량 보유 5. 총자산 외 자선기금 2억 원 이상 축적
---------------------------	---

	6. 회사 제휴 유치원 보유
5년 목표 (2029.11.04.까지)	1. 특정 분야에 주목받는 신인 사업가 2. 1개 이상의 창업 경험 보유 3. 주식, 부동산, 현금에 이르는 총자산 2억 원 이상 달성 4. 2곳 이상의 기업에서 실무 경력 보유(인턴포함) 5. 자가, 자차 보유
1년 목표 (2025.11.04.까지)	1. 25년 10월- 현대백화점, LG생활건강 코카콜라음료 2025년 하반기 마케팅부문 신입사원 모집 지원 1. 25년 9월-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취득 2. 25년 7월- 사회조사분석사1급 자격증 취득 3. 1년 누적 독서량 50권 이상 4. 투자수익률 200% ROI 달성 5. 해외여행 3회 이상(각 다른 나라) 6. 25년 6월- 심비우스23기 활동 수상 7. 25년 4월- 취.창업비교과 '합격하는 입사지원서의 조건' 수강 8. 25년 3월- '취업진로/현장실습지원센터.창업지원본부 100%활용하기' 설명회 수강

> 홍*우:

10년 계획 (~2039/11/4)	1, 실내 가구 회사 설립하기 2, 정부 및 지자체 협력 업체 선정되기 3, 직원 15명 이상 고용할 수 있는 규모의 회사로 자리잡기 4, 부동산 등을 포함한 보유자산 15억 달성
5년 계획 (~2029/11/4)	1, 2026~2027- 인테리어 디자인 현장 실무 경험 2, 공간 디자인 및 브랜드 로고 제작 등의 공모전 참여 및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인테리어 디자인 포트폴리오 만들기 3, 27년 11월 - 실내건축기능사 자격증 취득 4, 부동산 등을 포함한 보유자산 10억 달성 5, 인테리어 디자인 분야에서 촉망 받는 '젊은 인테리어 디자이너' 되기 6, 서울 내 자가 및 자차 보유하기
1년 계획 (~2025/11/4)	1, 25년 8월 - CAD 실무능력평가 및 ACU 3d Max 자격증 취득 2, HSK 중국어 자격증 4급 취득 3, '경향하우징페어' 건축 박람회 참석(2024.11.08 / 2025. 4, 7, 11월 중 참석) 4, 고양 가구박람회 참석(2024.11.16.) 5, 창업 초기 자금 4,000만원 마련하기 6, 스페인 여행 다녀오기(바르셀로나 라 사그라다 파밀리아 및 가우디 건축물 관람)

> 김*우

10년 목표 (2034.11.04까지)	1. 2033년까지 연구소 실무 경험 쌓기 2. 2033년까지 개인 연구소 창립 3억 자금 마련 3. 2034년에는 면역학을 주제로 한 연구소 창립
5년 목표 (2029.11.04까지)	1. 2026년 12월까지 TOEIC 900 달성 2. 2027년 3월 서울권 대학원 입학 3. 27년부터 29년 안에 해외 파견 연구장학생 선발 4. 2029년까지 석사 논문 작성 5. 2029년 2월 졸업 후 4월 전에 면역 관련 기업 취업
1년 목표 (2025.11.04까지)	1. 2024년 12월~2025년 1월 사이에 바이오 서밋 같은 바이오 박람회 참여 2. 지식을 쌓기 위해 면역학뿐만 아니라 의생명 관련 논문 한 달에 한 개 정독 3. 2025년 1월 전까지 대학교 연구실 지원 4. 2025년 3월 전에 해외여행 한 번 이상

5. 2025년 2학기 동안 대학 실험 수업 2개 이상

6. 25년 6월까지 TOEIC 700 이상

▶ 책 내용 중 토론하고 싶은 질문

1) 권*영: 사랑하는 사람, 본인이 처한 위기, 주변의 환경 등 다양한 요소들은 인간에게 희망으로 작용하며 이러한 희망은 성공으로 이끌고 실패의 경우 극복 방안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우리가 앞으로의 15년간 앞서 계획한 것을 모두 이루고 성공을 맞이하였을 때를 상상해보자. 이 상상은 우리의 희망으로 작용할 것이다.

> 남*현: 현재 나의 나이는 23세이며 15년이 지난 후라면 내 나이는 아마 38세 일 것이다. 목표로 설정한 시간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 후 바로 취직하였다는 가정 아래 사회복지사로 14년 정도 되어 사회복지사로서 전문성을 갖추었을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라는 분야 안에 조금 더 자세하게 학업 중단 청소년이 사춘기를 적절하게 경험함으로써 올바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사실 업무와 관련한 내용 외에는 나의 15년 뒤가 잘 상상되지 않는다. 현재 내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현상이 미래에도 전제한다는 가정으로 상상했기 때문이다. 15년 후로 상상하여도 결혼과 임신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 등 취업이나 업무적인 관점에서 조금이라도 패널티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사라질 것이라 생각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도 보이듯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커리어이기 때문에 아마 15년 뒤의 38살의 나는 나의 목적지와도 같은 사회복지사로서의 전문적인 업무를 지속해서 담당하고 있을 것 같다.

> 권*영: 15년 뒤의 나는 어떤 모습일까. 가끔 미래를 생각하며 나 자신을 상상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나는 늘 설레곤 한다. 미래의 불확실성을 좋아하지 않는 나이지만 나 자신을 상상할 때면 항상 긍정적으로 상상해서일까? 미래의 내가 그리는 나는 현재의 내가 갈망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또 하고 있다. 작은 정원이 딸린 멋진 구옥 주택에서 반려동물들과 세상에서 가장 편한 소파에서 누어져 노래를 듣거나 책을 읽는 모습이 떠오른다. 15년 뒤의 나는 37살인데 내가 하고 싶었던 나만의 가게를 열어 나름대로 매출을 꽤 올리고 시간이 빌 때면 악기, 창작, 운동 등 내가 배우고 싶은 걸 배우고 있지 않을까? 집에는 귀여운 물건들과 좋아하는 가수들의 LP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모두 할 수 있는 재력을 가지게 된 나는 많은 시간 행복할 것이다. 매년 여행을 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하는 상상들... 이런 상상속 내 모습이야말로 내 미래를 기대하게 하고 현재 살아갈 힘, 원동력을 주는 것 같다.

> 서*원: 나는 아버지와 비슷하게 회사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일을 할 것 같다. 15년 후에는 커리어의 정점은 아니고, 정점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 상태일 것이다. 그렇기에 15년 후 나의 미래는 나에게 희망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15년 뒤의 삶에 대하여 상상하자면 한 회사에 정착하여

10년 정도 근무하였기 때문에 내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의 운영과 개인의 업무의 숙련도는 차고 넘칠 정도로 숙지가 되었을 것이다. 그렇기에 업무적으로 받는 스트레스 또한 적을 것이라 예상된다. 그리고 회사의 가세의 기울음이 보이지 않는 이상 나의 재정적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덕분에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이러한 안정감은 나에게 가정을 꾸릴 여유를 주고,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나는 성공이라는 행복을 맛보고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 **유*민:** 지금으로부터 15년 뒤의 나. 즉 2039년의 나는 어떤 모습일까? 이번 토론에서 추가 활동으로 10년 후 나의 목표를 적었는데 이것보다 5년이 지난 나는 아마 많은 것이 바뀌어 있을 것 같다. 15년 뒤라면 사업은 정말 완벽하게 자리를 잡았을 것이고, 재산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을 것이다. 이것을 바탕으로 15년 뒤의 나를 생각해 보면 아마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져 있을 것 같다. 사업에 고용한 직원도 많아 굳이 내가 없더라도 유지가 가능할 것이고 나는 일선에서 한발 물러나 전체적인 관리만 하고 그 이상의 부를 축적하려 하지는 않을 것 같다. 애당초 나는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도 부담 없을 정도의 재력만을 원하며, 어느 정도의 돈이 모인다면 나의 인생을 즐기면서 살고 싶다는 마음이 크기 때문이다. 목표가 아닌 꿈을 이야기하자면 15년 뒤 내가 살고 있을 집에는 지하에 이것저것 혼자 만들 수 있는 작은 공방이 있고 마당에는 강아지 두 마리, 집 안에는 고양이 세 마리를 키우며 가족과 함께 이곳저곳 여행을 다니면서 지내고 싶다. 예술적인 것을 좋아하기에 전시회나 갤러리 같은 곳도 자주 관람하러 다닐 것 같고, 집에도 내가 직접 디자인한 가구, 그림 같은 인테리어 소품을 주로 두어 나만의 개성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을까 싶다. 악기도 배우러 다니는 등 정말 다양한 취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꿈이다. 이런 15년 뒤 나의 모습을 위해서라도 현재에 충실하게 노력하면서 나만의 색을 잃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 **홍*우:** 15년 뒤 나는 40대를 바라보는 나이이다. 내가 생각하는 인생의 계획에 따르면 15년 후인 2039년에는 공간 디자인과 가구 업체의 대표가 되어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30대 초반에 창업하여 10명 이상의 직원을 거느리는,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7~8년 차 대표가 되어 있을 것이다. 공간 디자인 및 가구 시장에서는 자리를 잡아 재정적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고, 안정적인 삶을 누리고 있을 것이다. 빠질 수 없는 재산적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상상이다 보니 조금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서울에 자가 하나를 소유하고, 자가 포함 15억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개인 사업으로 인해 평일에는 매우 바쁘게 시간을 보내지만, 적어도 주말에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나의 목표에는 다양한 가치들이 존재하지만, 가정적 안정 또한 나의 목표에 속하기 때문이다.

> **김*우:** 15년 후의 나는 단순히 부자가 되는 것보다도 '나만 잘먹고 잘살 수 있으면 충분하다.'는 마음가짐이 지금보다 더 클 것 같다. 나 스스로 먹고 살 만큼 벌고, 하고 싶은 연구를 하면서 취미 생활까지 즐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 같다.

연구와 관련된 미래의 모습을 상상하자면 궁금한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지금의 성격과 비슷할 것 같다. 15년 후에도 covid-19와 같이 신종 바이러스가 새로운 과제로 등장하게 된다면, 바이러스 연구에 몰두해 연구실에서 나오는 일 없이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는 연구원이 되어 있지 않을까 싶다. 그 정도의 시간이 지났다면 연구실 취업에 성공한 지 약 8~9년 정도 되었을 것이고, 생활에 필요한 만큼은 저축을 해둔 상태일 것이다. 나의 마음가짐과 비슷하게 나의 생활에 여유가 생겼으니 아마 연구원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여하고 싶은 마음도 커져 있을 것 같다. 연구를 통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품을 개발하려는 목표가 생기고, 이를 위해 독립적인 프로젝트나 사업을 준비할 계획도 세워나가고 있을 것이다. 내 연구원으로서의 목표와 별개로 '진짜 나의 15년 후'를 상상해보면, 결혼에도 성공해 배우자와 함께 넓은 아파트도 둘이 지낼 수 있는 아늑한 공간에서 취미 생활을 즐기며 소소한 행복을 누리고 있을 것 같다. 또, 15년 뒤엔 빠름을 추구하는 이 사회에 지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조금이나마 여유를 즐기며 보다 느긋한 삶을 지향하고 있을 것이다.

2) 남*현: 책의 저자는 해당 도서를 읽을 청년들에게 이중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한 가지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 이 질문은 나를 깊은 생각에 빠지도록 만들었기에 이번 심비우스를 활용해 팀원들의 의견도 묻고 싶다.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사랑하는가?

> 남*현: 본인의 삶에 100% 만족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것은 당연하다. 인간은 태어나며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환경적 요인을 직접 선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세상에는 '나'라는 인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인간이 존재하며 각각의 인간마다 다양한 요인들의 특징이 다르기에 서로 비교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다. 심지어 인터넷 등 정보화의 발달과 세계화로 인해 과거에는 내가 살아가는 지리적 위치나 활동반경 안의 사람들만 만날 수 있었다면, 현재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닌 외국의 다양한 사람들의 삶마저 알 수 있게 되며 비교의 대상이 더욱 넓어지게 되었다. 특히 SNS는 본인의 부와 여유 등 대부분 장점만을 드러내기 때문에 '나도 저런 인생을 살아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며 작고 네모난 스마트폰 속 타인을 부러워하게 된다. 이것을 통해 누군가는 물질적 요소를 부러워할 수 있고, 누군가는 화목한 가정을, 누군가는 배우자를 부러워할 수 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러한 부러운 것들을 개인의 노력으로 가질 수 있다면 갖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나는 이 과정의 전체적인 모습이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가지기 위해 노력하는 행동은 본인의 삶을 더욱 사랑하게 만들기 위함이라 생각한다. 나 또한 이 과정에 놓여져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현재의 나는 나를 사랑한다 단정을 지어 이야기할 수 없지만, 사랑하기 위한 과정에 위치한다고 생각한다.

> 권*영: 이 질문은 개인이 인생이라는 단어에 어떤 의미를 두는가에 따라 답변이 다양하게 나타날 것 같다. 나에게 인생이란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 그리고 미래의 나와 모든 겪었던, 겪고 있는, 또 겪을 모든 경험과 감정들을 의미한다. 내게 이 모든 것을 사랑하냐고 묻는다면 그건 아닐 것이다. 행복한 순간들도 많았으나 그만큼 슬프고 힘들었던 경험도 많았고 그것들을 모두 사랑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은 되지 못하는 것 같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인생을 싫

어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내가 과거, 현재, 미래에 각각 느끼는 감정이란 차례대로 애증, 즐거움과 기대라고 생각한다. 나는 미래의 내가 무척이나 기대되고 과거와 같이 미래에 불행한 순간들도 있겠지만 행복한 일들도 많이 있을 것임을 이미 알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인생에 가지는 감정이란 애증과 기대감 그리고 사랑인 것 같다. 그러니 나는 내 인생을 일정 부분 사랑한다고 답변하고 싶다.

> 서*원: 나는 본인을 사랑하는 '나르시시스트'적인 사랑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닌 것 같다. 이성을 좋아할 때의 사랑을 내 인생을 사랑하는 것에 적용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그래서 나는 '나'라는 자체의 정의를 어떻게 내릴지 고민하던 중 나는 '나의 과거'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생각해 보기로 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군대에 있었던 수많은 '나'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를 말이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갈 때 큰 변곡점이 있었다. 첫 여자친구와 헤어진 때였는데, 그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크게 방황했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애를 써봐도 좀처럼 잊히지 않았고, 그래서 잊기 위해 잠도 하루에 4시간씩 자면서 계속 일만 하다가 번아웃이 온 적이 있다. 나의 정서가 극한의 지점에 존재했던 번아웃이 지나가고 나서는 반발 심리로 굉장히 마음이 평온하고 명상적인 분위기인 내가 있었다. 나 자신에게 집중하기 위해 밤도 새지 않고 명상하며 고요하게 살았다. 번아웃이 왔었던 시기보다 정서적으로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너무나도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 같아 학생의 시기 중 가장 중요한 고등학교 3학년 때에는 명상을 그만두고 학기에 집중하게 되었다. 나에게는 이렇게 수많은 내가 존재하였고, 이들은 이전의 내가 저질렀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그다음의 '나'들을 만들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때 당시에는 이전의 나를 사랑하지 않고 되레 혐오했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였다. 하지만 현재의 나는 과거의 내가 나를 혐오한 상황을 더 이상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그 수많은 내가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결국 과거와는 다르게 현재는 '과거의 나'도, '현재의 나'도 사랑하고 '미래의 나'도 사랑할 것이기에 나는 나의 인생을 사랑한다고 생각한다.

> 유*민: 나에게 나의 인생을 사랑하냐고 물어보면 바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싫어한다는 것은 아니다.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나의 인생은 기쁘고, 좋은 일도 많았지만 실수하고, 후회하는 일도 정말 많았기에 이 모든 것을 사랑하지는 않는다. 생각해 보면 굉장히 애매한 것 같다. 사랑하지는 않지만, 사랑해야만 하는 느낌과 밉지만, 마냥 미워할 수 없는 느낌이다. 애증 관계라는 말이 딱 어울린다고 생각한다. 마냥 사랑하지는 않는다고 하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자기애와 동일선상이라 하기에는 다른 느낌이다. 솔직한 말로 나는 자기애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나 자신은 좋아하고 사랑하지만, 살아온 이 인생을 좋아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과거 인생은 애증이지만 앞으로 내가 살아갈 인생은 사랑하고 싶다는 마음이다. 이때까지의 실수와 후회는 그냥 아쉽다는 마음으로 묻어두고 전보다는 나은 인생으로 좀 더 나의 인생을 사랑하고 싶다. 앞으로의 인생에서 전과 같은 실수와 후회가 없을 것이라 확신을 둘 수 없지만, 적어도 지금보다는 더 발전되고 성공한 삶을 살고 있으리라 믿으며 남아있는 인생을 사랑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p>> 홍*우: 결론부터 말하자면 나는 나의 인생을 사랑한다. 비록 삶의 지나온 과정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아쉬움이 남았지만 그래도 후회는 하지 않는다. 아무래도 현재까지의 시점에서 되돌아볼 때 인생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학창 시절에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다. 그때 당시에는 학생이기에 많은 실수가 있었고, 이러한 실수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였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 것 같다. 이 과정을 거쳐 왔기에 변화를 맞이할 수 있었고, 경험한 모든 것들이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자양분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과거의 내가 변화되었던 것처럼 현재의 나도 동일한 과정을 반복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과거보다 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사람들과 어울리다 작은 실수를 하게 되면 다음부터 반복적인 실수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과정이 모여 '나의 인생'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렇기에 나는 노력하는 내 인생을 사랑한다.</p> <p>> 김*우: 나의 인생을 사랑하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나의 존재와 삶의 의미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한다. 인생은 때때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들로 가득 차 있지만, 그 속에서도 아름다움과 기쁨을 발견할 기회를 제공한다. 사실 시련과 고통이 존재하기 때문에 행복이라는 개념은 그 크기가 작을 때에도 더욱 빛을 발하게 만드는 것 같다. 이처럼 나는 인생의 작은 순간들, 예를 들어 친구와의 소중한 대화, 사랑하는 사람과의 따뜻한 시간을 통해 인생의 가치를 느낀다. 이러한 순간들은 나에게 큰 행복을 주며, 인생을 사랑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 물론, 앞서 말했듯 인생이 행복하지만은 않으며, 때로는 어려운 시기도 있다. 예상치 못한 고난이나 슬픔이 찾아올 때, 나는 그 순간들이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고, 성장하게 한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믿음을 매사 기억하려고 노력한다. 힘든 경험은 나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며, 그로 인해 나는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인생의 복잡함과 다양성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 속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는 기회를 얻었다. 또한, 인생을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만이 아니다. 그것은 나의 선택과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기도 하다. 나는 나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고, 나의 꿈과 목표를 향해 나아가려 한다. 실패와 좌절이 있더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자세를 유지하려고 한다. 이러한 태도는 나에게 인생을 더욱 사랑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결론적으로 나는 인생을 사랑한다고 느꼈고, 앞으로도 사랑하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나는 매일의 작은 행복을 소중히 여기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려 한다. 앞으로의 인생도 모든 순간이 나에게 의미가 있음을 깨닫고, 그 속에서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찾아가고 싶다. 인생은 한 번뿐인 소중한 여정이기에, 그 여정을 최대한 즐기고, 나와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고자 한다.</p>
<p>활동사진</p>	

--	--

2024년

11월

4일

참가자대표: 남*현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무한도전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4년 11월 11일(월요일) / 장 소 : CLC 4층 동아리방																															
참석자 명단	학번	2020****	이름	남*현	학번	2020****	이름	유*민																								
	학번	2024****	이름	권*영	학번	2021****	이름	홍*우																								
	학번	2021****	이름	김*우	학번		이름																									
	학번	2021****	이름	서*원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1. 5주차 토의 주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10px;"> <thead> <tr> <th style="width: 10%;">주차</th> <th style="width: 20%;">육하원칙</th> <th style="width: 70%;">내용</th> </tr> </thead> <tbody> <tr> <td>1주차</td> <td>누가</td> <td>대학을 다니고 있는 우리가</td> </tr> <tr> <td>2주차</td> <td>언제</td> <td>현재부터 10년 후까지의</td> </tr> <tr> <td>3주차</td> <td>어디서</td> <td>각자의 전공 혹은 관심 분야 중</td> </tr> <tr> <td>4주차</td> <td>무엇을</td> <td>어떠한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td> </tr> <tr style="background-color: #e6f2ff;"> <td>5주차</td> <td>어떻게</td> <td>성공 사례를 보며 도달하기 위한 목적은 무엇인가</td> </tr> <tr> <td>6주차</td> <td>왜</td> <td>우리가 성공을 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인가</td> </tr> <tr> <td>7주차</td> <td>결론</td> <td>성공을 위한 마음가짐에 대하여</td> </tr> </tbody> </table> <p>2. 5주차 도서명 - 명언으로 읽는 100명의 인생 철학</p> <p>3. 5주차 토의 세부 내용</p> <p>Q. '명언으로 읽는 100명의 인생 철학'은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을 거둔 100인의 삶과 가치관을 다루었다. 도서에서 다룬 100명의 인물은 시대와 인종, 분야를 불문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 이렇게 모아둔 100명의 삶과 가치관을 보았을 때 많은 이들이 공통되는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p> <p>> 남*현: '성공'이라는 것 자체가 어느 부분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전체적인 흐름과 내용이 크게 바뀐다. 그렇기에 공통되는 요소 단 한 가지만을 선택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기준에서 공통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책에 제시한 100명이 살아온 삶과 가치관을 보았을 때 내가 생각한 성공의 공통 요소는 '준비된 자세'라고 생각한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찾아온다고 한다. 사실 나는 이 문장의 해석을 조금 다르게 해석한다. 기회가 찾아오는 것이 아닌, 성공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정해져 있는데 이것을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은 준비된 사람들이고, 준비된 사람들만이 잡을 수 있는 이유로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 타이밍 구분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성공의 타이밍은 모두에게 주어지지만, 준비된 사람은 이 타이밍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p>								주차	육하원칙	내용	1주차	누가	대학을 다니고 있는 우리가	2주차	언제	현재부터 10년 후까지의	3주차	어디서	각자의 전공 혹은 관심 분야 중	4주차	무엇을	어떠한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5주차	어떻게	성공 사례를 보며 도달하기 위한 목적은 무엇인가	6주차	왜	우리가 성공을 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인가	7주차	결론	성공을 위한 마음가짐에 대하여
주차	육하원칙	내용																														
1주차	누가	대학을 다니고 있는 우리가																														
2주차	언제	현재부터 10년 후까지의																														
3주차	어디서	각자의 전공 혹은 관심 분야 중																														
4주차	무엇을	어떠한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5주차	어떻게	성공 사례를 보며 도달하기 위한 목적은 무엇인가																														
6주차	왜	우리가 성공을 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인가																														
7주차	결론	성공을 위한 마음가짐에 대하여																														

있으며, 이 타이밍에 맞추어 제시하고 성공을 맞은 과정을 기회라 표현하였다고 생각한다. 책에 작성된 여러 인물 중 '벤저민 디즈레일리'라는 정치인은 독서와 다양한 경험을 통해 본인을 훈련했고, 이를 통하여 자신감이 생기게 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축적된 역량으로 복잡한 공중보건법이나 주거개선법 등 다양한 정책들을 타이밍 맞추어 제시하게 되었고,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찬사를 받은 성공적인 정치인으로 남을 수 있었다. 또 다른 인물로는 '마틴 루터 킹'을 소개하고 싶은데, 어렸을 적부터 흑인의 인권과 억압된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두었다. 그러기 위해선 배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신학과 철학 분야의 학위를 받아 목사가 되었다. 이후 더욱 다양한 사상을 학습하며 흑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준비하다 '몽고메리 시에서 운영하는 버스에 흑인은 탈 수 없다'는 규칙이 생기며 적극적으로 흑인 인권을 위해 운동을 시작하였다. 이 운동을 통해 그는 감옥에 가는 등 삶에 많은 고비가 있었지만, 굴하지 않고 견디며 운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였다. 이 운동은 결국 케네디 대통령의 민권 법안을 통과해주는 계기가 되었으며 흑인 인권을 보장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줄 인물로 '안나 매리 로버트슨 모제스'는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해 학교도 다니지 못하였으며, 일을 하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그러던 중 그녀는 남편과 사별하게 되고, 한 번도 배운 적 없는 미술의 세계에 빠져들게 된다. 농사라는 바쁜 일상을 보내면서 배우지도 않은 그림을 틈틈이 그렸고, 이러한 노력은 그녀를 화가로서 유명한 인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도왔다. 이외에 책에 나온 다양한 인물들은 성공의 타이밍을 잡기 위해 준비하였다고 생각하며, 그렇기에 나는 공통되는 요소로 '준비된 자세'를 생각하게 되었다.

> **권*영:** 이 질문에 답하기 전, 나는 제일 먼저 명언의 뜻을 찾아보고 목차에서 내 마음을 울리는 명언을 모두 골랐다. 명언이란 사리에 맞는 훌륭한 말, 또는 세상에 일깨움을 줘 널리 알려진 말을 뜻한다고 한다. 명언의 의미와 걸맞게 신기하게도 목차를 읽다 보니 내가 한 번쯤 들어봤던 명언들도 볼 수 있었다. 책에 제시된 명언 중 내가 알고 있는 명언을 모두 고르고 나니 노자, 묵자, 레프 톨스토이, 동우, 요한 괴테, 벤저민 디즈레일리,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앤드류 카네기, 루이사 엘콧, 워렌 버핏, 페기 구겐하임, 슈거레이 로빈슨, 한스 안데르센, 사라 문, 스티브 잡스, 리처드 브랜슨, 잭 웰치, 오히라 미쓰요 이렇게 총 18명의 위인이 나왔다. 이렇게 찾아낸 위인들의 명언에는 인물이 살던 시대적 배경과 개인의 가치관 등을 비추고 있었으며, 이 위인들의 삶을 깊이 있게 살펴보는 것이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되어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았다. 책 '명언으로 읽는 100명의 인생 철학'의 프롤로그에서 에스파냐의 작가 그라시아의 명언을 인용하는데, 그는 말이 한 사람의 마음과 인격을 알리는 것이라 말하였다. 내 마음을 울리는 명언들을 골랐지만 그럼에도 종종 모호하다고 느끼는 명언들이 있었는데, 이 책에서 위인들의 삶의 비화를 알고 나니 명언들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었다. 내가 이 모든 위인의 이야기를 읽었을 때 가장 먼저 느꼈던 것은 바로 신념의 존재였다. 모든 위인은 자신만의 신념이 확고했고 이를 통해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다. 한 예로 노자는 무위를 중요시했으며, 무위란 '자연을 그대로 두고 인위를 가하지 않음'을 뜻하고 마치 물 흐르듯 흘러가는 느낌을 준다. 자신의 사상을 물에 빗대어 표현한 그의 삶은 언뜻 우유부단해 보이고 이도 저도 아닌 느낌을 줄 수 있으나 물은 깨지는 법이 없고 이 또한 노자의 확고한 신념이었던 것이다. 또 다른 예시로는 레프 톨스토이가 있다. 톨

스토이는 부유한 귀족으로 태어났으나 어릴 적 부모님을 여의고 사람의 소중함과 이타심을 배웠다. 그의 신념이란 인간에 대한 이해와 깊은 애정이었다. 신념은 그에게 창조의 원동력이 되었고 책에서도 톨스토이의 신념이 묻어나는 예화들이 나오는데 결국 그의 깊은 애정과 함께 신념이 묻어있는 그의 작품들은 찬사를 받으며 그를 세계문학의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작가로 자리매김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앞서 말한 18명의 위인뿐만 아니라 책에 나온 대부분의 위인이 자신의 신념을 발판 삼아 새로운 사상과 뜻을 펼쳐 나갔다. 그들에게 신념은 삶의 방향을 제시했고, 삶의 고난을 극복하는 힘이 되었으며 창조와 혁신의 원동력이 되었다. 정리하자면, 내가 이처럼 위인들의 공통적 요소로 신념을 꼽은 이유는 그들의 신념이 개인의 믿음과 삶에 그치지 않고 결과적으로 사회와 역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 **서*원**: 책에 있는 100인에는 정치, 경제, 문화, 문학, 철학과 사상, 언론, 예술, 과학, 스포츠,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 있었다. 아무래도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성공'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의 일화를 소개하는 것이다 보니 이들의 공통점을 찾기 어려운데다가 그들의 성공에 얽힌 일화를 또 한 장 반 정도로 짧게 추려 작성되어 있기에 더욱 까다롭게 느껴진다. 우선 100인 모두에게 공통되는 사항은 없다고 봤다. 노자, 묵자, 도연명, 공자 등은 동양의 유교와 불교 사상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가 '현재'를 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무릉도원에서 예와 덕을 갖추며 유유자적하게 사는 것, 이런 무릉도원이 그들의 이상향이다. 이것저것 여러 일을 하면서 자신을 잃는 것이 아니라 예와 덕을 갖추며 말을 줄이고 사는 것도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이다. 반면 서양권은 다른 느낌이다. 동양권 대륙의 역사보다는 상대적으로 다투거나 전쟁이 많았던 유럽권, 그리고 신대륙을 발견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던 서양권 국가의 인물들이어서 그런지 동양권 인물의 글보다 굉장히 진취적이고 과감한 어투의 글이 많이 보였다. 예를 들어 나폴레옹 힐은 성공을 위해서는 신속한 결단력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미켈란젤로는 10일만에 흉상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30년 동안 조각에 바쳐 온 노력 덕분이라며 개인의 꾸준한 노력을 성공의 요소라고 보았다. 이외에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라는 조언을 한 인물도 많았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과감하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앞만 보고 달리는' 사람을 성공적인 길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으로 정의했다. 당장 문화권을 따져도 성공기준들이 나뉘는데 이들이 일하는 분야에 따라서도 가치관이 다를 것이며 따라서 성공의 기준도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생각했다.

> **유*민**: 도서에서 소개하는 100명의 인물은 정치인부터 철학자, 작가, 대통령, 운동선수, 사업가 등 정말 다양한 직업에서 성공한 인물들이다. 더군다나 이들은 모두 살아온 시대도 다르며 방식도 다들 다르다. 이 도서를 읽으며 유독 마음에 와닿는 가치관들이 몇 있었다. 우선 로마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생각에 의해 만들어진다.'라는 말이다. 아우렐리우스는 로마의 격변기, 위태로운 시기에 황제에 올랐지만 그럼에도 국민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지도자로 기억되고 있다. 아우렐리우스의 인생을 담은 가치관은 그가 겪었던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한 마디라고 생각한다. 마치 생각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느낌이 들어 유독 마음에 드는 가치관이었다. 다음은

광고 전문가인 '알버트 라스커'의 가치관인 '최상의 상품이 최선의 결과를 낳는다.'이다. 이 가치관은 사업가를 목표로 하는 나에게 더욱 공감되는 말이었다. 말 그대로 좋은 상품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당연하지만 라스커는 당시 시대의 상식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광고로 광고계의 혁신을 일으키며 이름을 알렸다. 단순히 좋은 상품은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 아닌 어째서 그 상품이 좋은지, 어째서 값이 싸며, 어째서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소비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고 분명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상품에 대하여 말하였다. 이 과정에서 라스커는 자신만의 광고를 고집하며 결과로 모든 것을 증명하였다는 점이 유독 눈에 띄었다. 이 외에도 미국 제 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 권투 레전드 '슈거 레이 로빈슨', 스타벅스 CEO '하워드 쉘츠,' 작가 '미겔 데 세르반테스', 목사이자 저술가인 '노만 빈센트 필', 민족운동의 지도자 '마하트마 간디', 신학자 '성 아우구스티누스', 작가 '루이사 엘콧'등 내가 인상 깊게 본 위인들의 가치관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가 있다. 바로 자신의 길을 자신이 정하여 신념을 가지고 그 신념을 끝까지 의심하지 않는 것. 이것이 이 위인들의 공통점이라 생각한다. 예를 들면 권투선수 '슈거 레이 로빈슨'은 '아무도 자신을 믿지 않을 때도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라는 말을 하였고, 민족운동의 지도자 '마하트마 간디'는 '믿음이 능력을 만든다.'라는 말을 하였다. 신학자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신념에 대한 보상은 믿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다.'라는 말을 하는 등 여러 위인은 자신의 신념을 믿고 나아가라는 말을 하고 있다. 이 인물들이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를 보면 다들 주변 환경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표 하나를 이루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런 인물들의 가치관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나에게는 더욱 크게 공감되었고, 내가 사업을 하는 동안 잊지 말아야 할 가치관이라 생각하게 되었다. 만약 그저 그런 사업을 하기를 원한다면 요즘 트렌드, 요즘 분위기에 맞는 상품만을 판매하면 그만이지만 좀 더 야망이 있는 사업을 원하는 나에게는 더욱 특별한 아이디어, 더 새로운 상품, 차별화된 아이템이 필요하기에 내가 판단하는 것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야 하는 만큼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자신을 믿는 마음가짐. 즉 가치관은 나에게 있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 **흥*우:** 해당 주제를 작성하기 이전에 책을 들여다보았을 때 익히 알고 있었던, 이름만 대도 알 수 있는 유명 인사들이 대거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100인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이전에 정확히 알지 못하였던 인물과 그 외에 흔히 알고 있는 인물이었지만 그들의 삶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던 것들도 새롭게 알게 되었다. 나는 질문에서 요구하는 책의 인물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공통된 요소를 찾아보는 것이 아닌 반대로 내가 생각하는 성공의 중요 요소를 중심으로 책의 인물을 살펴보려고 한다. 내가 생각하는 중요 요소는 성공을 향한 집념이기에, '집념'이라는 가치관을 중점으로 이들의 내용을 천천히 살펴나갔다. 책을 읽어가면서 이들이 살아가면서 어떠한 목표와 신념,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갔는지 알 수 있었다. 베토벤은 청각을 잃은 그 순간 가운데에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사랑하는 음악 생활을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집념을 바탕으로 많은 곡들을 작곡하였다. 청력을 잃는다는 상실감에 빠져 유서를 작성하기도 했지만, 음악을 계속하는 것이 결국 본인을 위한 것이라 생각을 고치며 포기하지 않았다. 또 다른 인물로 오프라 윈프리는 성장기 가운데 많은 시련이 함께했지만, 그녀는 절망하지 않고 눈앞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자신을 훈련하는 시간으로 삼았다. 그리고 월터 크라이슬러라는 인물은 은행에서 대출까지 하여 차를 구매하였는데, 이는 모두 본인이 원하는 자동차의 원리를 배우기 위한 투자였다. 그는 자는 시간까지 아껴가며 차량을 분해하고 조립하는 연구에 몰두하였고, 이 과정에서 차량이 발에 굴러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차량이 망가지는 절망의 순간도 맞이하였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들은 모두 고난과 역경이 몰아쳐도 본인의 집념을 통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은 그들에게 성공이라는 칭호를 가질 수 있게 만들었다. 자신의 목표를 위해 끝까지 나아가는 집념을 보인 결과 베토벤의 경우 고전주의의 완성자로 세계 음악사에서 가장 뛰어난 천재 음악가로 현재까지 칭송받고 있으며, 오프라 윈프리의 경우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중 한 명으로 불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토크쇼인 '오프라 윈프리 쇼'의 진행자로 25년간 유명세를 갖게 되었으며, 크라이슬러는 끊임없이 연구하고 도전한 결과 세계적인 자동차 '크라이슬러'를 창립하였다. 만약 이들이 성공을 향한 집념과 좌절을 성장의 기회로 삼으려는 긍정적 태도가 없었다면 이들은 한낱 평범한 사람들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 생각한다. 비록 지금 본인이 처한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 있지만, 그들은 그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돌파구를 찾아가며 포기하지 않겠다는 신념에 기반을 둔 결단력을 바탕으로 행동해 나갔다. 그렇기에 이들은 훗날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었고, 성공의 표본으로 자리 잡았다. 이들뿐만 아니라 많은 성공한 이들은 자신의 집념을 토대로 삶을 살아나갔으며, 이들의 가치관은 오늘날 우리에게 삶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해주는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김*우:** 우선 이 책을 읽기 전 목차를 살펴보았다. 목차에는 100명의 인물과 그 인물들이 말한 명언들이 나타나 있다. 그래서 나는 먼저 내가 알고 있는 유명인이나 들어본 적 있는 명언들을 위주로 읽어보고, 이후에는 내가 들어보지 못했지만, 목차를 보았을 때 내 마음을 자극한 명언들을 순서대로 살펴보았다. 100명의 인물의 명언을 살펴보니, 각기 다른 가치관이 드러났다. 예를 들어, 베토벤, 오바마, 나이팅게일, 김대건과 같은 인물들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입장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루이사 엘콧, 헨리 포드, 데일 카네기, 슈거레이 로빈슨, 사라 문과 같은 인물들은 자신을 알고,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자신을 더 어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신념, 경험, 사랑 등 다양한 가치관이 담긴 명언들이 존재했다. 그렇지만, 이 책에서 100명의 인물이 공통으로 강조하는 요소가 있다고 느꼈다. 바로 '포기하지 않는 끈기'였다. 각자의 가치관을 바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는 끈기가 그들의 명언 속에 나타나 있었다. 예를 들어, 미국 역사상 최초로 4선 대통령이 된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많은 실패를 겪고, 39세에 소아마비를 앓았다. 그러나 그의 굳은 의지와 신념으로 아픔을 극복하고 끊임없이 노력하여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또, 세르반테스는 어린 시절 경제적 궁핍 속에서 성장했고, 전쟁에서 왼손을 잃는 등 많은 고난을 겪었다. 그런데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유명 작가로 거듭났다. 이 외에도 무하마드 알리는 종교와 인종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복싱 세계 챔피언이 되었고, 하워드 슐츠는 이탈리아 커피숍의 분위기를 미국에 적용하려다 실패했지만, 좌절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여 스타벅스 CEO가 되었다. 이처럼 실패에 무너지지 않고,

남들의 시선에 굴하지 않으며 끝까지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이 책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말해주는 성공의 방향성이라고 생각했다. 결국, 이 책은 단순한 명언 모음집이 아니라, 각 인물의 삶을 통해 끈기와 인내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교훈을 담고 있었다. 이러한 메시지는 독자에게도 큰 영감을 주었고, 앞으로의 삶에서 도전과 역경을 마주할 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느꼈다.

Add. 책의 인물 중 한 명인 '헨리 포드'는 본인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로 상대방의 장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렇게 찾아낸 장점을 칭찬해 주는 것으로 일의 효능과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고 한다. 무한도전 팀원 모두가 원하는 성공을 위해 본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북클럽을 통해 알게 되었던 장점 혹은 이외의 능력을 찾아보시오.

> 남*현

> 권*영

> 서*원

> 유*민

> 홍*우

> 김*우

▶ 책 내용 중 토론하고 싶은 질문

1) 김*우: 책에서 우리나라는 성공하기 위해 죽을 때까지 경쟁하는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이러한 경쟁 사회 속 대한민국에서 시험이라는 것은 가장 공평하게 구분 짓는 준거라고 한다. 과연 시험이 무조건적 공정한 기준이라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그렇지 않다면 대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

> 남*현: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객관적이고, 효율적이며 많은 시간과 자원을 들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로는 시험이 유일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나는 시험만큼 공평한 도구는 없다고 생각한다. 물건을 값싸고 많이 판매하기 위해 산업화가 발전하였고, 기업은 이시기에 대량생산으로 이윤을 남기게 되었다. 그러나 모든 기업이 대량생산을 시도하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며 현재의 서비스업으로 발달한 것처럼 현재의 시험의 기준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의 비중이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많아진다면 이것은 평가 도구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계기가 될 것이다. 개인적으로 이를 불공평하게 생각한다면 평가 도구 또한 서비스업과 마찬가지로 개인

에게 맞출 수 있도록 복합적인 요소들을 담아냈으며, 변형시킬 수 있는 모델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권*영: 사전적 의미에서 명언이란 '사리에 맞는 훌륭한 말. 또는, 사리에 맞거나 일깨움을 주어 세상에 널리 알려진 말.'이다. 이러한 사전적 의미의 명언 기준과 내가 생각하는 명언 기준은 동일하지만, 세세하다는 점에서 조금의 차이점이 있는 것 같다. 단순하게 유명하고 성공한 사람이 한 말이 아니라, 그 말이 듣는 사람에게 공감을 부르고, 깨우침을 줄 수 있으며, 그로 인해 한 사람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내가 생각하는 명언의 기준을 고려한다면 명언은 단순히 특정 상황이나 특정 집단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대부분의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보편적인 공감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시로 에스파냐의 작가 그라시아의 '말이란 한 사람의 마음과 인격을 알리는 것.'이라는 명언은 성공이나 유명도의 여부와 관계없이 대부분의 사람에게 공감을 얻어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명언은 너무 길어서는 안 되고 간결해야 하지만 또 간결한 문구 안에는 다양한 해석을 만들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며, 감정과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어야 한다. 아무리 한 사람의 말이 인상 깊고 영감을 줄지라도 그 말이 너무 길다면 기억하기도 힘들 것이고 명언으로 남을 수 없다. 반대로 문구가 간결하더라도 울림이 없다면 당연히 사람들의 기억에 남지 못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명언은 꼭 성공한 사람이 언급한 것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의 공감을 사고 삶의 깨우침을 주며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면 명언이라고 생각한다.

> 서*원: 사회적으로 한 번 정도 크게 공론화되어 권위 혹은 위치등에 존재하는 사람의 발언은 명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 자기계발서한 권으로 유명세를 갖게 된 인물이 존재한다면, 그 인물이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말이 명언이 될 수 있고, 누군가 한 국가의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포부와 같은 말을 전한다면 이 당선 포부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것이며 이러한 말 또한 명언이 될 것이다. 그러나 뛰어난 인물이 언급한 말이더라도 한정된 사람들에게 전해져 구전되지 않는 말이라면 그것은 명언이라고 볼 수 없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전해지는가가 명언의 기준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해당 인물의 '공론화'는 명언에 끼치는 요소라고 생각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명언의 기준이라고 생각한다.

> 유*민: 명언의 기준은 굉장히 모호하다고 생각한다. 그 시대에 맞는, 혹은 그 시대를 관통하는 내용을 담거나, 한 사람의 인생을 단 한 줄로 대변할 수 있는 말. 이것이 명언의 기준이라고 생각한다. 첫 문장에서 사용한 말처럼 모호하다는 말을 붙이게 된 이유는 사람마다 각자 생각하는 명언의 기준이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누군가에게 많은 변화를 갖고 온 명언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말로 다가올 수 있다. 유명하고 성공한 사람들의 말이 모두 명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도 비슷한 맥락일 것이다. 단지 사람들이 많이 알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이기에 말 한마디가 조금 더 특별하게 다가오도록 만들어 주고,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공감해 주고 더욱 귀 기울여 주도

록 영향을 끼칠 뿐, 유명하고 성공했다고 하여도 그 사람의 말이 전부 명언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나는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욱 많은 명언이 나온다고 생각한다. 실패를 경험하여 좌절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존재하는 현실을 직시할 것이며 이러한 배경에서 나오는 진심 어린 명언들이 시대를 관통하게 만드는 명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결국 명언은 개인의 경험과 인생을 표현하여 누군가는 이 명언으로 인해 인생을 관통할 수 있어야 하고, 더욱 뜻 깊고 진심 어린 명언은 실패로부터 온다고 생각한다.

> **홍*우:**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명언'이란 무엇일까? 아마 대부분이 유명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고 가볍게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나의 생각은 다르다. 명언의 기준은 반드시 유명하고 성공한 사람들의 말에만 한정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진정한 명언이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이나 통찰력을 제공하며, 이를 바탕으로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말이라면 인물을 타지 않고, 명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도 누군가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울림을 줄 수 있는 말을 하게 된다면 그 또한 명언에 해당할 것이라는 뜻이다. 명언에서 진정 중요한 부분은 명언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생각을 불러일으키고 삶의 방향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김*우:** 나의 입장에서 명언의 핵심이란 사람의 위치나 지위가 아니라,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의 가치와 영향력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누구의 말이든 나에게 현실을 직시하게 해주거나 위로와 격려를 해주는 간결한 한마디에서 명언이 시작된다고 본다. 물론 책에서 소개한 100개의 명언들을 만든 것은 영향력있는 유명인사들이 남겼고, 그러다 보니 더욱 신뢰감이 느껴져 쉽게 다가오기도 한다. 그렇지만 나는 오히려 유명 인사들의 명언보다 가까이에서 있는 어른들의 말 한마디가 더 명언답게 느껴질 때가 많은 것 같다. 예를 들어 20살 아르바이트를 처음 접했을 때 이전까지 해보지 않았던 일이기에 여러모로 힘들다고 느껴졌는데, 이때 어머니께서 '남의 돈을 버는것이 가장 힘든 법이다.'라고 조언해 주셨다. 이 한마디는 성인이 된 나에게 큰 인상을 주었고 현재도 아르바이트를 할 때면 어머니의 말씀을 떠올리며 일에 대한 자세를 되새기곤 한다. 이처럼 현대 사회에 내가 처한 환경과 비슷하며 나보다 먼저 사회를 통해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신 분들의 조언은 한 문장 안에 깊은 통찰을 담고 있어 쉽게 잊히지 않으며, 큰 가르침을 주기에 주변 인물이 하는 말들이야말로 진정한 명언이라고 생각한다.

2) **유*민:** 슈거 레이 로빈슨은 '아무도 자신을 믿지 않을 때에도 자신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즉, 끈기 있게 본인의 의견을 밀고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이 옳지 않다고 말하더라도 자기 자신이 생각하였을 때 옳다고 생각한다면 지속적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 과연 옳다고 생각하는가?

> **남*현:** 나는 자기주장이 매우 강한 편이다. 그렇기에 팀을 이루어 진행하는 모든 일에는 주도권을 잡은 상황에서 진행한다. 예를 들어 팀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면 대부분 아무도 자처하지 않는 팀장의 역할을 하겠다고 먼저 제안한다. 이후 팀 프로젝트의 원활한 방향성이나 목적 설정을 위해 회의를 진행하고, 결

과가 나오게 되었을 때 적절하지 않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내용으로 결정되었다면, 나의 개인적인 수면시간이나 쉬는 시간을 활용하여 처음부터 끝까지의 내용 일부를 수정하거나 새로 구성해 온다. 그 이후 팀원들에게 제시하며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각자의 장단점을 말하며 설득하려 노력한다. 만약 설득되어 내가 새롭게 제시한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프로젝트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책임을 지고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게끔 노력할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설득되지 않는다면 기존의 것을 보완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제시하며 모두의 의견을 적용하여 고쳐나갈 것 같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의견을 밀고 나갈 때는 책임감을 질 수 있다면 끈기를 갖고 밀고 나가도 된다고 생각한다. 만약 이 모든 것이 본인 외의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경우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반대한다면, 그들의 의견을 수용하거나 기존 방식을 수정하여 본인의 생각에 변화를 주는 방법도 좋다고 생각한다.

> **권*영:** 나는 이전 질문에서도 답했듯 신념의 확고함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신념을 믿는 것은 자신감과 목표를 이루기 위한 원동력이 되고 이를 바탕으로 끝까지 믿고 나아가는 용기는 성공을 이루는데 아주 중요하다. 실제로 월트 E. 디즈니를 포함해 이름을 남긴 많은 위인이 초기에는 많은 반대와 의심에 괴로워했지만, 끝까지 자기 자신을 믿고 결과를 만들어 냈다. 하지만 언제나 자신의 신념이 옳다고 단정할 수 없으니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자기성찰과 더불어 주변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연함도 중요할 것이다. 또한 옳은 신념을 가지기 위해 내가 가진 신념이 도덕적인지 또 윤리적인 가치에 부합하는지 꼼꼼히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는 잘못된 신념을 믿고 나아갔을 때 다른 개인이나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라도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결국 주변에서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더라도 자신의 신념을 믿고 나아가는 것은 성취를 이루는 데 꼭 필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 **서*원:** 본인을 기준으로 주변에 있는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일이라면 한 번쯤은 내가 원하고자 하는 방향이 옳은지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변의 같은 과 동기들과 같은 학교 사람들은 본인이 속해 있는 집단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고방식이 비슷할 것이고 따라서 그들의 의견은 대체로 동일할 것이다. 그런데 본인이 소속한 집단 외의 인물, 즉 관련성이 전혀 없으며 나의 의견과 관련한 전문지식도 갖추지 않는 인물이 내가 소속된 집단의 인물들과 동일한 의견을 제시한다면 이 또한 다시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본인이 하고 싶은 일 혹은 의견이 흔들림 없이 확고하고,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도 뚜렷하다면 나 자신을 믿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 **유*민:** 개인적으로 다른 직업도 아닌 사업가를 꿈꾸는 내 입장에서 본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에 옳은 행동이라 판단하였지만, 주변에서 옳지 않다고 말한다면 본인의 고집을 세워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물론 안정성을 중심으로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주변 사람들이 옳지 않은 것이라고 했을 때 다시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이익의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오히려 이런 과감함이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주변에서 반대하는 것이라면 이 시장에 존재하지 않고 도박성이 있다는 말이 될 수 있기에 자신이 진심으로 판매하려는 상품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면 이러한 의견은 충분히 시도할 가치가 있다는 뜻이다. 물론 그

	<p>렇다고 해서 주변의 의견을 절대적으로 무시한다는 것은 아니다. 주변이 반대할 때마다 어떠한 위험성이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 자체가 사업가로서 상품을 보완 및 평가에 대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라 판단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나는 원하는 직업이나 목표에 따라 자신의 신념을 굽히느냐 굽히지 않느냐로 나뉘었다고 생각하며 자기 자신에게 확신이 있다면 끝까지 믿고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p> <p>> 홍*우: 주변에서 옳지 않다고 말하더라도 나만큼은 옳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믿고 나아가는 자세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나 자신도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 또한 옳지 않다고 말하는 상황과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끊임없이 질문하며 고민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주변 의견을 전혀 듣지 않고, 자신의 선택을 한 치의 의심도 없이 접근하고 밀어나가는 행동은 실패와 가까워지는 지름길이라 판단하기 때문이다. 나 자신을 믿는 과정에서 자신의 신념이 정말 타당한 것인지, 정말 개인의 고집으로 인한 결정은 아닌지에 대한 성찰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것은 타인의 반대나 조언에 숨어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 여론을 수용적인 태도로 듣고, 내 생각과 비교하며 점검하는 과정을 거침으로 본인의 신념이 더욱 확고해지고 목표가 명확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p> <p>> 김*우: 슈거 레이 로빈슨의 말처럼 '아무도 자신을 믿지 않을 때도 자신을 믿는 것'은 매우 중요한 덕목이다. 자기 신뢰는 개인의 성장과 발전에 필수적이며, 성공한 많은 인물들이 초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비전을 믿고 나아가 성공을 거두었다는 사실은 이를 뒷받침해준다. 이처럼 주변의 의견이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다. 때로는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혁신적인 접근이 기존의 틀을 깨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과정에서 비판이나 반대에 직면할 수 있지만,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성공한 인물에 대한 자서전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초기에 주변의 반대에 부딪힌 내용들이 존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비전을 믿고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는 내용이 실려있다. 이러한 자기 신뢰는 타인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가치관을 확립하는데 도움을 준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가는 것은 개인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더 나아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결론은 주변에서 옳지 않다고 해도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면 자신의 의견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자신을 믿는 것이 진정한 용기이자 성공의 열쇠'라는 슈거 레이 로빈슨의 말처럼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는 결국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p>
<p>활동사진</p>	

--	--

2024년 11월 11일
참가자대표: 남*현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무한도전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4년 11월 18일(월요일) / 장 소 : CLC 4층 동아리방																															
참석자 명단	학번	2020****	이름	남*현	학번	2020****	이름	유*민																								
	학번	2024****	이름	권*영	학번	2021****	이름	홍*우																								
	학번	2021****	이름	김*우	학번		이름																									
	학번	2021****	이름	서*원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1. 6주차 토의 주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10px;"> <thead> <tr> <th style="width: 10%;">주차</th> <th style="width: 20%;">육하원칙</th> <th style="width: 70%;">내용</th> </tr> </thead> <tbody> <tr> <td>1주차</td> <td>누가</td> <td>대학을 다니고 있는 우리가</td> </tr> <tr> <td>2주차</td> <td>언제</td> <td>현재부터 10년 후까지의</td> </tr> <tr> <td>3주차</td> <td>어디서</td> <td>각자의 전공 혹은 관심 분야 중</td> </tr> <tr> <td>4주차</td> <td>무엇을</td> <td>어떠한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td> </tr> <tr> <td>5주차</td> <td>어떻게</td> <td>성공 사례를 보며 도달하기 위한 목적은 무엇인가</td> </tr> <tr> <td>6주차</td> <td>왜</td> <td>우리가 성공을 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인가</td> </tr> <tr> <td>7주차</td> <td>결론</td> <td>성공을 위한 마음가짐에 대하여</td> </tr> </tbody> </table> <p>2. 6주차 도서명 - 명언으로 읽는 100명의 인생철학</p> <p>3. 6주차 토의 세부 내용 Q. ‘명언으로 읽는 100명의 인생철학’에서 나온 인물 중 본인이 가장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인물은 누구이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p> <p>> 남*현: 사람들은 각자 다른 환경에서 태어난다. 비슷한 부분이 존재하더라도 경제적 여유, 부모님의 성격, 거주지의 위치, 가족 구성원 등이 모두 일치하기엔 불가능에 가까우며 그렇기에 인간은 각자 다른 환경에서 태어나 살아간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각각이 바라보는 세상의 풍경이 개인이 처한 환경에 따라 아름답게 보이거나 혹은 비참하게 보이는 등 다르게 보일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명언으로 읽는 100명의 인생철학’에서 나오는 인물 중 단 한 명의 인물을 짚으며 ‘이 인물이 가장 성공한 것 같다’고 선정하기 힘들었다. 이 도서의 제목에도 알 수 있듯이 소개하는 인물 모두가 대중적이며 성공으로 유명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성공한 인물 단 한 명만을 선택하자면 그 선택의 기준을 나의 희망 직업인 ‘사회복지사’라는 측면에 두고 ‘타인을 위한 삶’을 성공기준으로 선택해 보려고 한다. ‘명언으로 읽는 100명의 인생철학’을 읽으며 손으로 책장을 넘기다 잠시 멈춰있는 페이지가 있었다. 내가 멈춘 부분</p>								주차	육하원칙	내용	1주차	누가	대학을 다니고 있는 우리가	2주차	언제	현재부터 10년 후까지의	3주차	어디서	각자의 전공 혹은 관심 분야 중	4주차	무엇을	어떠한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5주차	어떻게	성공 사례를 보며 도달하기 위한 목적은 무엇인가	6주차	왜	우리가 성공을 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인가	7주차	결론	성공을 위한 마음가짐에 대하여
주차	육하원칙	내용																														
1주차	누가	대학을 다니고 있는 우리가																														
2주차	언제	현재부터 10년 후까지의																														
3주차	어디서	각자의 전공 혹은 관심 분야 중																														
4주차	무엇을	어떠한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5주차	어떻게	성공 사례를 보며 도달하기 위한 목적은 무엇인가																														
6주차	왜	우리가 성공을 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인가																														
7주차	결론	성공을 위한 마음가짐에 대하여																														

에서 소개하는 인물은 미국 사회에 참된 교육의 의미를 보여준 ‘마르바 콜린스’라는 미국의 교육자와 관련된 내용이 담긴 부분이었다. 마르바 콜린스는 미국 시카고에 위치하는 학교의 교사였으며, 그녀가 근무하던 학교의 주변은 범죄가 들끓었다고 한다. 이러한 환경으로 인해 아이들은 쉽게 학교를 그만두고, 학교를 그만둔 아이들은 폭력과 범죄에 휘말리는 소위 비행 청소년이 되었다고 한다. 지금도 비행 청소년을 바라보는 어른들의 시선처럼 그 당시 비행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선은 차가웠다.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어른은 없었고, 그렇기에 청소년들은 나갈 수 있는 길을 찾지 못했으며, 이러한 환경은 청소년에게 일상으로 돌아갈 기회조차 마련되지 않았다. 마르바 콜린스는 이러한 아이들을 위해 본인의 인생을 바치기로 결심하였고, 본인의 신념을 실천으로 옮기기 위해 학교를 설립하였다. 학교가 설립되고 난 초반에는 많은 사람이 쓸데없는 일을 한다며 조롱하였고, 아이들의 행동은 변함이 보이지 않았으며, 학교는 재정난에 빠지는 등 많은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그렇지만 그녀는 본인의 신념을 굽히지 않으며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에 열중하였다. 그 결과로 비행을 일삼던 아이들은 몰라보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었고, 미국에서의 혁신적인 교육자로 불리게 되었다. 이러한 교육 철학은 정부에서도 놀라움을 자아내며 교육부 장관직을 제의하였으나 마르바 콜린스는 거절하였다. 그리고 “언젠가 세상에 빛이 될 아이들을 보면 손익 균형을 맞추기 위해 고민하면서 지새운 며칠 밤이 조금도 아깝지 않다”고 답하며 관직보다 본인의 신념에 해당하는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는 일이 더욱 행복하며 의미가 있다고 답하였다. 내가 마르바 콜린스를 가장 성공한 인물로 선택한 이유로는 본인의 신념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며 나온 행동 때문이다. 그녀는 모든 아이들이 세상의 빛이 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교육자로서 최선을 다하였고, 어떻게 보면 더 큰 뜻을 펼칠 수 있는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지만, 신념을 굳히고 직접 가르치며 아이들을 위한, 즉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았다. 마르바 콜린스와 같은 굳은 신념을 갖고 살아간다면 나의 희망 직업인 ‘사회복지’를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이라 생각하여 직업적 측면에서의 가장 성공한 인물로 선정하게 되었다.

> 권*영: ‘명언으로 읽는 100명의 인생철학’에 나온 100명의 인물 중 단 한 사람만 선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개인적으로 호감이었던 인물들도 있었고, 책을 통해 대단하다고 느껴진 인물도 여럿 있었기 때문에 나는 ‘성공’이라는 키워드에 집중하여 생각해봤다. 여기서 나는 성공을 그저 개인의 업적뿐만이 아닌, 많은 사람에게 삶의 이정표 역할이 되었는지, 얼마나 오래 기억되고 주목받는지를 기준으로 두고 생각해 보았다. 반복적으로 책을 읽으며 판단한 결과 내가 생각하는 100인의 인물 중 가장 성공한 인물은 바로 노자이다. 그 이유는 단순히 그가 많은 명언을 만들고, 유명했기 때문이 아니라 ‘도가’라는 큰 사상의 창시자이며 아직도 그의 가르침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나 또한 그의 철학을 더 깊숙이 살펴봄으로써 인하여 그의 가르침에 긍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었고, 노자라는 인물의 철학에 대해 더욱 사유하게 되었다. 노자의 철학은 무위에 중점을 두었으며 자연의 이치에 거스르지 않는 삶, 즉, 강물이 바람과 같은 자연적인 요소의 조화로 인해 흘러가며 생기는 물결처럼 조화로운 삶을 중요시 하였다. 경쟁이 심화하고 매체를 통해 여러 사회 문제를 마주하며 피로감을 느끼기 쉬운 현시대에 노자의 철학은 ‘자연스러움’과 ‘단순함’ 그 자체의 소중함을 다시 일깨워준다. 노자의 철학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큰 영향을 미쳤

고, 심리학과 예술 등 다른 다양한 분야에서도 많이 언급되고는 한다. 물론 노자는 철학자로서 물질적 성공이나 권력과 같은 기준에서는 성공했다고 평가받기에는 힘들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의 이론은 많은 사상가에게 영감을 준 것에 그치지 않고, 현대에 이르러서까지 명언과 지혜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인류의 삶에 더 평화롭고 풍요롭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그의 사상은 도가라는 사상적 흐름과 형태로 과거를 넘어 현재까지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나는 노자가 책 '명언으로 읽는 100명의 인생철학'에 나온 인물 중 가장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 서*원: 책의 인물 중 한 명을 꼽자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가장 성공한 인물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한 나라의 왕이라는 어려운 직무를 수행하면서도 공부와 사색을 멈추지 않았다. 한 집단의 리더를 자처하는 것에도 엄청난 책임감이 따르는데, 한 나라의 왕이라는 어마어마한 책임감을 등에 지고 삶을 살아왔다. 책임감이라는 무게는 삶을 짓누르는 힘으로 작용하며 그를 힘들게 만들었지만, 이러한 난관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고, 얻게 된 깨달음을 문장으로 옮겨놓았다. 본인의 깨달음을 문장으로 옮기는 '글쓰기'라는 작업은 고도의 인지적 노력이 필요한 작업이다 보니 일반인도 쉽게 행하지 못하는데, 왕으로서 의무와 함께 글쓰기를 실행한 것은 대단한 일이다. 그렇기에 그는 황제이기 전에 철학자였다고 할 수 있다. 다른 99명의 인물도 물론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한 나라의 왕임과 동시에 문장으로 삶의 울림을 전하는 역할 또한 수행하였다고 생각하기에 가장 성공한 인물이라고 생각한다.

> 유*민: 100명의 인물 중 가장 성공한 사람을 한 명만 고르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모두가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성공의 정도를 측정하여 선택하기에는 어렵다. 그럼에도 한 명만 굳이 고르자면 미국의 위대한 인권 운동가 '마틴 루터 킹'을 뽑을 것 같다. 100명의 인물 중 마틴 루터 킹을 뽑은 이유로는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부터 가장 많은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도서에 나오는 인물들 모두 성공했다고 평가되지만, 나의 기준에서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회정의 실현'을 하기 위해 자신만의 방식을 이용하여 신념을 지키고 성공시켰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더욱 성공적으로 보이는 것 같다. 흑인에 대한 차별이 심하던 시절 목사로서 비폭력을 바탕으로 흑인에 대한 차별을 줄이려 노력하였고, 개선되었다. 비록 그가 원한 완벽한 목표의 달성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의 가치관과 사상이 차별을 줄이고 많은 사람의 생각에 영향을 주었다. 이 부분에서 나는 그가 죽어서까지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 시작했지만, 본인이 원하는 성공에 가장 가까이 다가간 사람, 죽어서도 자신의 신념을 남겨 현재까지 그의 뜻이 이어지고 있는 사람. 마틴 루터 킹은 성공한 인물들도 인정하는 진정한 위인이자 성공한 사람이 아닐까 싶다. 앞서 설명한 관점 외에 개인적으로 멋있다고 생각한 인물도 있다. 화가이자 조각가인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이다. 그 이유로는 '세기의 조각가'라는 본인의 가치에 대한 자부심 때문이다. 그가 이렇게 불릴 수 있었던 계기로는 30년간의 피나는 노력이 바탕이 되었고, 이러한 노력은 실력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미켈란젤로에게 조각을 부탁한 한 명의 손님은 조각에 대한 값어치로 금화 50개는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이라고

비판하자 당당하게 30년간의 노력이 있었기에 현재의 내가 10일 만에 만들어 낼 수 있었다고 말하며 값을 모두 받아내었다. 이러한 자부심은 그의 예술성을 더욱 돋보이도록 만들었고, 미켈란젤로를 닮고 싶어 성공한 인물로 뽑게 된 것 같다.

> **홍*우:** 가장 성공했다 생각하는 인물은 '윌터 크라이슬러'다. 그는 맨손으로 지금의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인 크라이슬러를 일구어냈다. 그는 비록 기계 공학 분야를 전공하지 않았지만, 흥미로 인해 회사를 다니며 일하고 있지만, 시간 내어 틈틈이 기계 분해와 조립을 반복하는 등 자신의 목표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이 내게 굉장한 관심을 끌었다. 그의 월급으로 자동차를 사기엔 부족했기에 친구의 도움을 받아 구매하였고, 이후엔 차를 분해하며 연구에 몰두하였다. 물론 이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분해 후 다시 조립한 차량을 운전하는 과정에서 차가 이상을 보이며 고장이 나는 등 많은 실패의 순간이 존재하였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고 처음부터 다시 시도하는 열정을 보였고 이러한 행동은 그의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의 끈질긴 집념과 꾸준한 연구, 성공을 위해 잠까지 줄이고 노력하는 모습과 결단력이 결국 미국 자동차의 '빅 쓰리'기업을 일구어냈기에 크라이슬러가 가장 성공한 인물이라 생각한다.

> **김*우:** 100명의 인물 중에서 누가 가장 성공했다고 단정 짓기에는 조심스럽다. 여기서 소개된 모든 인물은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본인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뤄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가장 성공한 인물이 아니라 가장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인물을 선택하고자 한다. 북클럽을 진행하는 동안, 성공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역량이 중요하고, 이 역량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경험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 경험을 쌓기 위해서는 의지와 노력뿐만 아니라 결단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결단력이 있어야 나에게 유리한 경험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고민하는 동안 하나라도 다른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대외활동, 봉사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등에서 고민하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중요한 선택뿐만 아니라 사소한 선택에서도 고민하다가 놓치거나 빼앗긴 경우가 너무 많았다. 나의 이러한 성격이 내가 성공하려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싶다. 이 책에서 나의 이러한 성격을 고쳐야 함을 나타내주는 명언이 있다. 바로 나폴레옹 힐의 '성공하는 사람들은 신속한 결단력의 소유자다.'라는 말이다. 나폴레옹 힐은 세계적으로 성공한 작가이자 강연자로 성공학의 대가라고 불리는 인물이다. 과거에는 글쓰기를 좋아하는 평범한 청년이었으나, 앤드류 카네기를 취재하면서 그의 제안을 받아들여 성공한 사람들의 비결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카네기는 힐에게 경제적인 지원은 할 수 없지만, 성공한 사람들 507인의 소개장을 써주겠다고 제안했다. 힐은 즉시 수락했지만, 카네기는 그 대답이 1분을 넘겼다면 제안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힐은 20년 동안 507명의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 인터뷰하고 분석하여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라는 책을 집필하게 된다. 이 책은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고, 이후 그는 실천 프로그램인 'PMA'를 작성하여 널리 보급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그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여 그를 홍보 비서관으로 임명하기도 했다. 힐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성공한 이들의 비결에 대해 '우유부단이야말로 성공을 가로막는 최대의 적이며, 성공하는 사람들은 신속한 결단력의 소유자이다.'라고 말했다. 이 글을 읽고, 나를 돌아보았을 때 만약 내가 힐이었다면 제안받고 답변을 드릴

때 분명 1분을 넘겼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금전적 지원도 없고, 성공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불안정한 상황에서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폴레옹 힘의 사례를 읽으며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가 우유부단하여 현재 경험의 기회를 많이 놓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떤 경험이든지 일단 부딪히고 다쳐봐야 다음에는 적게 다치고, 점차 안 다치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는 것인데, 다치는 것이 두려워 고민하는 내가 모순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실패가 두려워 결정을 꺼리게 되고, 비난 받는 것이 두려워서 선택하지 못하는 나에서, 실패가 두려워도 결단하고 비난을 감수하며 나아가는 내가 되어야겠다는 자아 성찰의 계기가 되었다.

Add. 본인의 인생철학(또는 명언)을 만들어 보시오.

> 남*현: “시도하지 않으면 가까워지지도 않는다”

사람들은 만약 새로운 무언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것을 시도함으로써 받게 될 리스크가 존재한다면 시도에 대하여 고민하게 된다. 그러나 나는 시도하지 않음으로 얻게되는 아쉬움을 가볍게 받아들이는 편이 아니다. 그렇기에 그 리스크가 생명의 문제와 이어지지 않는다면 먼저 시도하는 편이다. 물론 실행으로 인한 리스크로 후회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더라도 실행하지 않았을 경우의 아쉬움보다 작게 느껴질 것이기에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현재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실생활 예시로 들어보자면 ‘복권’과 같은 것이다. 구매하지도 않은 복권의 당첨은 존재하지 않는다. 성공 또한 시도해야 성공과 가까워질 수 있기에 나는 시도하지 않으면 가까워지지 않는다는 문장을 인생철학으로 만들게 되었다.

> 권*영: “흘러가는 대로 살자”

나는 매사 생각을 깊이 하고 그 생각에 매몰돼 우울해하거나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일 때가 많아 이번 기회로 내 인생철학을 ‘흘러가는 대로 살자’로 정했다. 평소에 자아 성찰이나 사색하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지만 가끔 지나친 고민이 나를 잡아먹기도 한다. 그렇기에 앞으로는 삶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려고 한다. 이러한 나의 철학은 노자에게서 영향을 받은 부분도 분명히 있다. 그의 무위를 중요시하는 사상이 내게 깊게 영감을 주었던 것 같다. 세상은 늘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고 중요한 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금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작은 것들에 행복을 찾고 흘러가는 대로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 것이 나답게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믿는다. 이 믿음과 철학을 통해 과거에 연연하는 것보다 현재에 충실하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이루고자 하는 바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흘러가듯 살겠다는 말은 언뜻 나태하게 보일 수 있지만 결코 게으르게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방향을 확실히 하되 모든 일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기보단 흘러가듯이 살며 하루하루 성공을 향하여 착실히 나아가겠다는 다짐이다. 이번에 세운 나만의 철학을 통해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내려놓고, 삶의 여유와 균형을 되찾으며 조금씩 천천히 성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서*원: “과거, 아집, 걱정엔 집착 말고, 인내하고 감동을 주며 지금 실행하라”
중학교 2학년 때 갔던 이탈리아 패키지여행의 같은 일행이었던 의사 아저씨의

프로필 상태 메시지에 있던 문구인데 처음 봤을 때부터 지금까지 기억 깊숙이 자리 잡고 있으며, 내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 문구이기에 선택해 보았다. 당시에는 아직 정신적으로 미숙했던 때라 '지금 실행해라'에만 집중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던 것 같다. 가뜩이나 시간이 모자란 현재를 살기 위해 아쉬웠던 과거는 잊기 바빴고, 나도 모르게 이것저것 많은 걱정에 침식당하며 괴로운 나날을 보낸 것 같다. 이후 고등학교 1학년 때 지속적이고 과도한 공부량 등으로 인해 처음으로 번아웃이 오게 되고, 2학년 때 다니던 모든 학원을 끊고 명상을 시작한 후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었을 때 저 인생 철학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과거를 잊었기 때문에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과거의 내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내가 있는 것이었다. 과거에 존재했던, 어쩌면 수치스러웠을 수도 있고 과격했을 수도 있던 수많은 '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에서 내적인 평화가 오고, 그렇게 해야 진정으로 현재에 집중하며 살 수 있게 된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유명한 말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과거를 잊은 자에게 미래 또한 없다. 원래는 나만의 방식을 고집했었는데 지금은 과거에 비해 생각보다 많이 유해진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 진짜 바쁠 때 해결하고자 하는 일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일 효율의 측면에서 큰 장점이 있다. 하지만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뜨거운 눈초리를 받을 수 있다. 사람들에게 '일 잘하는 나'는 남을 수 있지만 '인간으로서의 나'는 기억에서 잊혀질 수 있다. 고등학교 2학년 담임선생님과 주변 친구 몇 명과의 갈등을 통해 자기방식을 고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이후부터는 번거롭더라도 일 처리 할 때 주변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며 살고 있다. 마지막으로 헤민 스님과 한창 명상을 같이할 때가 있었는데, 언젠가 "모든 걱정은 집착에서 온다"라고 말씀하셨을 때가 있었다. 과거의 내가 걱정에 침식당했던 것은 집착에서 걱정이 생겼고, 그 걱정을 또 집착해서 악순환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걱정만 하며 살았지, 나에게 감동이나 보상을 주는 삶은 살지 않았기에 고통이 축적되다 나중에 가서 터졌던 모양이다. 나중에 마음의 평온함을 깨달은 이후에는 걱정이 집착에서 나옴을 알게 되었고, 이 깨달음 이후부터는 집착을 줄이고 삶에서 '감사함'을 자주 느끼려고 하고 있다. 즉 우리는 늘 시도하고 나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에 집착 말고(과거를 인정하고 현재를 사는 것) 아집에 집착 말고(본인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님을 인지하고) 걱정에 집착 말고(걱정과 집착 서로 연결되어 악순환을 만든다는 것을 각인하고) 본인에게 감동(적절한 보상)을 주며 살아야 한다.

> 유*민: “자신감과 오만함을 헛갈리지 말자”

자신감은 사람에게 있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도서에서 나온 마하트마 간디도 믿음이 능력을 만든다고 말을 하였듯이 이때까지 내가 쌓아온 나의 노력, 현재의 나에 대한 믿음, 미래의 자신을 당당하게 사랑하는 것이 자신감이라 생각한다. 이런 자신감은 무언가를 실행할 때 어려워 보이는 일이라도 과감하게 시도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정말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나는 자신감이 정말 중요하며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오만은 조금 다르다. 자신감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지만, 오만은 자신을 과대평가한다는 차이가 있다. 작다면 정말 작은 차이이며, 크다면 큰 차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이 항상 자신감과 오만의 차이를 알기는 하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자신감인지 오만인지 정확한 판단을 내릴 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나에게 있어 자신감은 필수이지만 오만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이러한 명언을 만들게 되었다.

> **홍*우: “매사 감사의 마음을 갖고 살자”**

수많은 성공한 인물의 공통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이다. 오프라 윈프리는 힘든 유년을 보내는 와중에 절대 자신의 불우한 환경을 탓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는 모습을 통해 버텨내었다. 이후 그녀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오프라 윈프리 쇼의 진행자가 되었고,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는 여성이 되었다. 이처럼 나 또한 성공을 위해 힘쓰는 과정에서 실패하고 좌절할 수 있는 상황이 닥치더라도 항상 감사하며 후에 다가올 나의 성공을 위해 꾸준히 나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싶다. 오늘날 성공한 많은 인물이 온전히 자신의 힘만으로 성공이라는 결과를 만들었다고 착각하며 감사한 마음을 갖지 않기 때문도 있는 것 같다. 물론 오직 본인의 출중한 능력으로 인해 성공이라는 결과를 만들어 낸 것일 수 있지만, 주변의 도움과 적절한 환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을 것이라 예상한다. 그렇기에 살아가며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타인에게 베푸는 모습 등 겸손을 갖추고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후에 성공하였을 때 온전히 내가 잘해서 성공한 것이 아닌, 주변의 도움 또한 있었기에 성공이 존재하며, 겸손을 바탕으로 항상 감사하며 타인에게 그 공을 돌리는 낮은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인생철학이다.

> **김*우: “경험은 나의 이야기를 쓰는 잉크”**

이 명언은 내 삶의 가치관을 깊이 반영하고 있다. 경험은 단순히 지나간 사건이나 기억이 아니라, 나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4주 차에서 이야기했듯이, 남들과 다른 나만의 스토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 스토리의 주재료가 바로 '경험'이다. 각각의 경험은 나에게 고유한 시각과 감정을 부여하며, 이를 통해 나는 세상을 바라보는 나만의 렌즈를 갖게 된다.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 모든 순간은 나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된다. 실패와 도전은 현재의 나를 강하게 만들고, 성공의 순간은 나에게 또 다른 스토리를 준다. 결국, 경험은 나의 이야기를 풍부하게 하고, 나를 독특한 존재로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나는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새로운 경험을 통해 나의 이야기를 계속 써 내려가고 싶다. 이러한 철학은 나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 **책 내용 중 토론하고 싶은 질문**

1) **홍*우: 한 가지에 매진하는 것이 항상 성공이라는 결과를 갖고오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매진이 성공을 만든다는 로널드 레이건의 말에 대하여 동의하는가?**

> **남*현:** 로널드 레이건의 “매진이 성공을 만든다”는 말에 동의하는 이유로 집중과 헌신이 개인의 목표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개인의 운이나 시대의 흐름, 인물의 배경 등 다양한 요소들이 성공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성공이 반드시 보장된다고는 말할 수 없다. 하지만 한 가지 일에 매진하는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배움은 누군가에겐 추억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겐 지식적 자산이 될 수 있으며, 또 누군가에겐 새로운 세상을 보게 만들 수 있다. 우선 매진의 장점으로는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에 있다. 많은 일들을 동시에 시도하다 보면 흐트러지는 집중력으로 인해 혼란스러워지고, 비효율적으로 일을 실행하게 된다. 한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진하는 것은 높은 집중력과 함께 전략적이며 효율적으로 일을 시도하게 만들어준다. 이뿐만이 아니다. 매진은 인내심과 끈기를 기를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성공까지 걸리는 시간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적어도 하루 이틀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 즉, 성공을 맞보려면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매진은 이러한 인내를 기르는데 도움이 된다. 이외에도 매진을 시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수많은 장점이 존재하기에 나는 로건의 말에 동의한다.

> 권*영: 로날드 레이건의 “매진이 성공을 만든다”는 말에 나는 일정 부분 동의한다. 그의 말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인기가 성공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진 중요성을 보여준다.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가 품질 혹은 매진이라는 것은 소비자에게 있어서 그 상품들이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고 그것은 상품의 효용성과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매진은 단순히 매출의 이익뿐 아니라 상품의 차후 미래 가능성을 증명하는 큰 증거가 된다. 이렇게 매진은 분명 단기적, 장기적 모두로 봤을 때 긍정적인 결과이지만 이러한 결과가 매번 나오리라고 확신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상품이 유행을 많이 타는 품목이라면 매진이 일회성 이벤트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 이것은 결국 새로운 상품이나 방안을 내지 않는 이상 장기적인 성공으로 가긴 어려울 것이다. 또한 처음 매진이 되었더라도 이후 상품의 품질이나 여러 방면에서 고객의 만족도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결국 매출은 줄어든 것이고 성공으로 가는 길은 점점 멀어질 것이다. 이렇듯 매진은 성공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단계 중 하나이지만 장기적 성공을 위해서는 단순히 매진 이외에도 고객의 니즈 충족, 품질 유지 등 다른 중요한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매진이 성공을 만든다는 로날드 레이건의 말에 일정 부분만 동의한다.

> 서*원: 매진이 성공이라는 결과를 무조건 만들지는 못한다고 생각한다. 매진하다가 중간에 넘어지고 포기하는 일부의 과정만 보고 성공하지 못한 삶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매진하는 삶이 성공에 가까워지는 삶인 것은 확실하다. 일단 한 가지를 가정하고 넘어가야 한다. 다른 수많은 위인도 같은 생각이겠지만, 나도 중간에 넘어지고 포기하는 과정을 성공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매진하며 살다가 중간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성공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매진하는 삶이 성공으로 가는 삶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엔 중간에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가정이 있어야 한다. 정말 큰 노력 끝에 얻은 결과가 실패하면 낙담할 가능성이 크지만, 곧바로 포기하지 않고 작은 것부터 천천히 시작하며 다시 어떤 일에 매진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 또한 주위의 어떠한 자극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집중하는 상태인 ‘몰입’의 상태에서는 일의 효율이 상당량 증가하고 성과 또한 좋게 나온다. 따라서 몰입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몰입하는 사람들이 성과 측면에서 더 나은 결과를 낼 것이고, 그러면 성공에 가까워지게 될 것이다.

> **유*민:** 매진이 성공을 만든다는 말은 동의하지 않는다. 매진이 성공을 향하는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성공을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 가지의 목표를 잡고 그것을 위해 매진하는 것이 성공에 있어 가장 정직하고 올바른 길이지만 그것이 무조건 성공을 만든다고는 볼 수 없다. 그렇기에 매진이 무조건 성공을 만들지는 않지만, 성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로널드 레이건도 목표를 설정하고 매진하면 손해 보지 않는다고 말을 한 것이지 성공을 만든다고 말을 한 것은 아니다. 목표를 정하고 매진하면 성공을 향해 무엇이든 얻을 수 있기에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반드시 성공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 **홍*우:**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정신에 좋은 영향을 미치며 이는 곧 신체적으로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비극과 고통으로 가득한 뉴스를 보는 경우, 우리는 해당 뉴스의 내용으로 인해 부정적인 사고를 갖게 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이는 곧 부정적 행동과도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하기에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통해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몸과 마음은 건강해질 것이다. 또한 긍정적인 사고는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며, 실패를 겪더라도 그 과정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회복탄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문제상황과 직면하는 경우 해결하고자 하는 능동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되는 특징은 성공을 위한 목표를 가지며 이를 이루기 위한 동기부여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들은 실패를 겪더라도 그 과정에서 바로 포기하는 것이 아닌, 실패 요인이 무엇이며, 목표 실행 방안을 새롭게 설정하여 성공을 위해 나아가는 힘을 얻게 된다. 결국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정신적 안정과 신체적 건강을 동시에 도모하며 삶의 질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으로 과도하게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불가능해지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에 현실과 이상에 적절히 균형을 가지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김*우:** 로널드 레이건의 "매진이 성공을 만든다"는 말에 대해 완전히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매진하는 태도는 성공의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임이 분명하다. 우선, 한 가지 목표에 집중하여 열정을 쏟는 것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키우고 경험을 쌓는 데 도움이 된다. 꾸준한 노력은 지식과 기술의 성장을 촉진하며, 이는 결국 더 많은 기회와 성공 가능성을 만든다. 매진하는 사람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이를 극복할 능력을 키우며, 실패조차도 성장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다. 그러나 매진이 항상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성공에는 외부 환경, 운, 경쟁 상황 등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 아무리 노력해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진하는 과정에서 얻는 배움과 성장은 그 자체로 큰 가치가 있으며, 더 나은 결과를 위한 토대가 된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매진은 성공의 필수적인 조건이지만, 그것만으로 성공을 보장할 수는 없다. 매진의 과정에서 실패와 한계를 받아들이고 이를 성장의 기회로 삼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성공은 매진과 함께 현실적인 판단과 유연한 사고, 그리고 끊임없는 학습을 통해 비로소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2) 서*원: 오프라 윈프리는 비극과 고통으로 가득한 뉴스를 보지 말고 긍정적인 뉴스만을 전하는 '굿뉴스'를 보라고 하며 '긍정의 힘'을 강조한다. 그녀는 평소에 감사함을 느끼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좋은 삶을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는 삶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좋은 삶인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시오.

> 남*현: 나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인간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이라는 단어에서도 나오듯 인간에게 긍정은 부정보다 삶을 바라보는 시각을 변화시키고 삶의 질 또한 상승시키기 때문이다. 오프라 윈프리가 말한 것처럼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줄이는데 도움을 준다. 그렇기에 인간은 긍정적인 마음가짐 하나로 인해 정신적인 측면에서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다. 부정적인 감정을 완화 시키고, 곤란하거나 실패를 직면하게 되었을 때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는 우울증이나 각종 불안장애로부터 정신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한다. 신체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 긍정적인 감정은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한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심혈관 기능의 건강 상태가 우수하였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프라 윈프리의 말처럼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좋은 삶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 권*영: 오프라 윈프리의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단순히 기분이 좋을 뿐 아니라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도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실제로 정신과 신체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생각해 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라는 말처럼 정신적 상태는 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다. 나의 경우 스트레스를 장기간 받게 되는 경우 편두통, 위염, 소화 불량 등 바로 신체에 나타나는 편이기 때문에 더욱 느낄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정신적인 부분뿐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더욱 건강하고 안정된 상태로 있을 수 있게 도와준다. 또한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실제 행동과 결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긍정적인 사람들은 비관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낙담하거나 금방 포기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사고방식과 태도는 실패를 거치더라도 결국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고 성공적인 결과는 또다시 긍정적 사고방식의 도출로 이끈다. 이러한 이유로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신적, 신체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며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는 삶이 부정적으로 사는 삶보다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서*원: 나는 이 습관이 성공의 필수조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치료가 힘든 병 중 암에 걸린 사람을 생각해 본다면 오프라 윈프리같은 '긍정 전도사'들은 긍정, 행복 치료요법으로서 명상, 기도, 용서 등등 '긍정적인' 습관을 강조하지만, 이 습관만으로 암이 기적적으로 치유되지는 않는다. 2007년 [사이언티픽 아

메리칸]의 한 연구에서는 "면역 체계는 양날의 칼처럼 기능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면역 체계가 암을 촉진하는 경우도 있고 질병 발생을 막는 경우도 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면역 체계는 우리 몸의 세포는 피하고 외부 침입자들을 탐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암은 실제로 인체의 일부분이다. 따라서 소수의 예외를 제외하면 우리 면역체계는 암을 외부 침입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암을 촉진할 수도, 질병 발생을 막을 수도 있는 것이며, 이는 전적으로 신체적 기능에 따르기 때문에 정신 요법(명상, 기도, 용서 등등)으로는 암의 재발을 막을 수 없다. 자기실현적 예언만으로는 암을 치료할 수 없다는 뜻이다. 긍정적 정서,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이 면역 체계에 반응을 일으켜 좋은 결과가 생길 수는 있지만, 암 같은 면역 체계를 가진 조직 내에선 효과가 없을 수 있다. 암 치료를 위해 꾸준히 긍정적 사고 강화 훈련을 한 환자가 있는데 계속 암이 재발한다면 그것은 이미 피폐해진 환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도 있다.

> **유*민:** 긍정적 마음가짐은 신체적으로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도움 된다고 생각한다. 긍정적 마음가짐을 가지고 산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며 항상 긍정적으로 최선을 찾아 노력할 것이다. 물론 과도한 긍정적 사고는 삶을 너무 안일하고 낙천적으로 만들기는 하지만, 적당한 수준에서라면 긍정적 마음가짐은 정신 건강에 있어 정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이 신체적으로도 옳은지는 잘 모르겠다. 플라시보라 효과라는 말이 있듯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몸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 수 있지만 그렇다고 몸을 마냥 방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은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 긍정적 마음가짐은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만큼 건강에 있어서 도움 정도는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홍*우:** 결심을 통한 매진은 성공이라는 결과를 도출해낸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매진은 목표를 향한 끈기와 노력하는 행동을 의미한다고 보기 때문이며, 이러한 행동은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대한 성공 가능성을 확보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1만 시간 정도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곧 본인의 목표를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매진이 이러한 행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질문과 동일하게 매진이 항상 성공이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불러오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한 가지에 몰두하고 매진하더라도 본인의 적성에 맞지 않고, 주변 환경 등 외부적인 요인 조절은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매진이 성공과 이어지기 위해서는 목표와 방향성을 전략적으로 짜고 난 후 이행해야 한다. 목표와 전략 없이 비효율적으로 매진만 한다면 이는 실패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그렇기에 우리는 한 가지에 몰두하기 이전에 과연 이 일이 내 적성에 맞는지, 온전히 이 일에 몰두할 준비가 되었는지와 대한 파악이 우선적이어야 성공이라는 결과를 도출하도록 만들 것이다.

> **김*우:** 나 같은 경우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더 나은 삶을 제공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먼저 긍정적인 태도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더 잘 대처하며, 신체적으로도 회복력이 뛰어난

	<p>경향이 있다고 한다. 이는 심혈관 건강, 소화기 기능, 전반적인 신체적 웰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정신 건강에도 큰 도움을 준다. 긍정적인 태도를 지닌 사람들은 더 자주 행복과 감사의 감정을 경험하며, 우울증, 불안과 같은 정신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또한, 긍정적인 사람들은 대인관계에서 신뢰와 지지를 형성하기 쉬워,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게 만들기도 한다. 그러나 지나친 긍정은 현실을 무시하거나 문제를 회피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어려운 상황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간과하고 비현실적인 낙관으로 대응할 경우, 장기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긍정적인 태도는 균형 있게 유지해야 하며, 현실적인 사고와 함께 활용될 때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한다. 결론적으로, 긍정의 힘은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증진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면 어려움 속에서도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고, 궁극적으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p>
<p>활동사진</p>	

2024년 11월 18일

참가자대표: 남*현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무한도전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4년 11월 25일(월요일) / 장 소 : CLC 4층 동아리방																																																																																		
참석자 명단	학번	2020****	이름	남*현	학번	2020****	이름	유*민																																																																											
	학번	2024****	이름	권*영	학번	2021****	이름	홍*우																																																																											
	학번	2021****	이름	김*우	학번		이름																																																																												
	학번	2021****	이름	서*원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1. 7주차 토의 주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주차</th> <th style="width: 20%;">육하원칙</th> <th style="width: 70%;">내용</th> </tr> </thead> <tbody> <tr> <td>1주차</td> <td>누가</td> <td>대학을 다니고 있는 우리가</td> </tr> <tr> <td>2주차</td> <td>언제</td> <td>현재부터 10년 후까지의</td> </tr> <tr> <td>3주차</td> <td>어디서</td> <td>각자의 전공 혹은 관심 분야 중</td> </tr> <tr> <td>4주차</td> <td>무엇을</td> <td>어떠한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td> </tr> <tr> <td>5주차</td> <td>어떻게</td> <td>성공 사례를 보며 도달하기 위한 목적은 무엇인가</td> </tr> <tr> <td>6주차</td> <td>왜</td> <td>우리가 성공을 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인가</td> </tr> <tr> <td>7주차</td> <td>결론</td> <td>성공을 위한 마음가짐에 대하여</td> </tr> </tbody> </table> <p>2. 7주차 도서명 - 하버드 회복탄력성 수업</p> <p>3. 7주차 토의 세부 내용 Add. '하버드 회복탄력성 수업'의 가장 첫 장에 위치하는 회복탄력성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본인의 회복탄력성 지수를 측정하시오.</p> <p>> 남*현: 48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질문</th> <th style="width: 85%;">질문</th> <th style="width: 10%;">점수</th> </tr> </thead> <tbody> <tr><td>1</td><td>새로운 일이 주어져도 잘해낼 자신이 있다.</td><td>4</td></tr> <tr><td>2</td><td>실패를 통해서도 배우고 다음에 접근 방식을 바꾼다.</td><td>2</td></tr> <tr><td>3</td><td>일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도 불안해하지 않는다.</td><td>1</td></tr> <tr><td>4</td><td>내 주변에는 고민을 터놓을 친구나 동료가 있다.</td><td>4</td></tr> <tr><td>5</td><td>어떤 상황이든 나 자신을 용납한다.</td><td>4</td></tr> <tr><td>6</td><td>한 번 시작한 일은 끈기 있게 밀고 나간다.</td><td>4</td></tr> <tr><td>7</td><td>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나만의 방법이 있다.</td><td>3</td></tr> <tr><td>8</td><td>나만을 위한 시간을 따로 갖는다.</td><td>4</td></tr> <tr><td>9</td><td>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td><td>1</td></tr> <tr><td>10</td><td>내가 통제할 수 없는 문제들은 걱정하지 않는다.</td><td>1</td></tr> <tr><td>11</td><td>도움을 청하는 것은 약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td><td>3</td></tr> <tr><td>12</td><td>삶에 변화가 생기면 그에 맞게 생각을 바꾸려 한다.</td><td>4</td></tr> <tr><td>13</td><td>감정적인 문제가 대인관계나 일을 방해하지 않는다.</td><td>3</td></tr> <tr><td>14</td><td>감사해야 할 일이 많다.</td><td>3</td></tr> <tr><td>15</td><td>나는 평소 '아니오'보다는 '예'라고 자주 말한다.</td><td>3</td></tr> <tr><td>16</td><td>나는 언제나 사랑받는 사람이다.</td><td>4</td></tr> </tbody> </table>								주차	육하원칙	내용	1주차	누가	대학을 다니고 있는 우리가	2주차	언제	현재부터 10년 후까지의	3주차	어디서	각자의 전공 혹은 관심 분야 중	4주차	무엇을	어떠한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5주차	어떻게	성공 사례를 보며 도달하기 위한 목적은 무엇인가	6주차	왜	우리가 성공을 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인가	7주차	결론	성공을 위한 마음가짐에 대하여	질문	질문	점수	1	새로운 일이 주어져도 잘해낼 자신이 있다.	4	2	실패를 통해서도 배우고 다음에 접근 방식을 바꾼다.	2	3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도 불안해하지 않는다.	1	4	내 주변에는 고민을 터놓을 친구나 동료가 있다.	4	5	어떤 상황이든 나 자신을 용납한다.	4	6	한 번 시작한 일은 끈기 있게 밀고 나간다.	4	7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나만의 방법이 있다.	3	8	나만을 위한 시간을 따로 갖는다.	4	9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1	10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문제들은 걱정하지 않는다.	1	11	도움을 청하는 것은 약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3	12	삶에 변화가 생기면 그에 맞게 생각을 바꾸려 한다.	4	13	감정적인 문제가 대인관계나 일을 방해하지 않는다.	3	14	감사해야 할 일이 많다.	3	15	나는 평소 '아니오'보다는 '예'라고 자주 말한다.	3	16	나는 언제나 사랑받는 사람이다.	4
주차	육하원칙	내용																																																																																	
1주차	누가	대학을 다니고 있는 우리가																																																																																	
2주차	언제	현재부터 10년 후까지의																																																																																	
3주차	어디서	각자의 전공 혹은 관심 분야 중																																																																																	
4주차	무엇을	어떠한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5주차	어떻게	성공 사례를 보며 도달하기 위한 목적은 무엇인가																																																																																	
6주차	왜	우리가 성공을 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인가																																																																																	
7주차	결론	성공을 위한 마음가짐에 대하여																																																																																	
질문	질문	점수																																																																																	
1	새로운 일이 주어져도 잘해낼 자신이 있다.	4																																																																																	
2	실패를 통해서도 배우고 다음에 접근 방식을 바꾼다.	2																																																																																	
3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도 불안해하지 않는다.	1																																																																																	
4	내 주변에는 고민을 터놓을 친구나 동료가 있다.	4																																																																																	
5	어떤 상황이든 나 자신을 용납한다.	4																																																																																	
6	한 번 시작한 일은 끈기 있게 밀고 나간다.	4																																																																																	
7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나만의 방법이 있다.	3																																																																																	
8	나만을 위한 시간을 따로 갖는다.	4																																																																																	
9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1																																																																																	
10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문제들은 걱정하지 않는다.	1																																																																																	
11	도움을 청하는 것은 약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3																																																																																	
12	삶에 변화가 생기면 그에 맞게 생각을 바꾸려 한다.	4																																																																																	
13	감정적인 문제가 대인관계나 일을 방해하지 않는다.	3																																																																																	
14	감사해야 할 일이 많다.	3																																																																																	
15	나는 평소 '아니오'보다는 '예'라고 자주 말한다.	3																																																																																	
16	나는 언제나 사랑받는 사람이다.	4																																																																																	

> 권*영: 64점

	질문	점수
1	새로운 일이 주어져도 잘해낼 자신이 있다.	4
2	실패를 통해서도 배우고 다음에 접근 방식을 바꾼다.	4
3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도 불안해하지 않는다.	3
4	내 주변에는 고민을 터놓을 친구나 동료가 있다.	4
5	어떤 상황이든 나 자신을 용납한다.	5
6	한 번 시작한 일은 끈기 있게 밀고 나간다.	3
7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나만의 방법이 있다.	4
8	나만을 위한 시간을 따로 갖는다.	5
9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3
10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문제들은 걱정하지 않는다.	2
11	도움을 청하는 것은 약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4
12	삶에 변화가 생기면 그에 맞게 생각을 바꾸려 한다.	4
13	감정적인 문제가 대인관계나 일을 방해하지 않는다.	4
14	감사해야 할 일이 많다.	5
15	나는 평소 '아니오'보다는 '예'라고 자주 말한다.	5
16	나는 언제나 사랑받는 사람이다.	5

> 서*원: 70점

	질문	점수
1	새로운 일이 주어져도 잘해낼 자신이 있다.	5
2	실패를 통해서도 배우고 다음에 접근 방식을 바꾼다.	4
3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도 불안해하지 않는다.	4
4	내 주변에는 고민을 터놓을 친구나 동료가 있다.	5
5	어떤 상황이든 나 자신을 용납한다.	5
6	한 번 시작한 일은 끈기 있게 밀고 나간다.	5
7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나만의 방법이 있다.	5
8	나만을 위한 시간을 따로 갖는다.	5
9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3
10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문제들은 걱정하지 않는다.	3
11	도움을 청하는 것은 약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5
12	삶에 변화가 생기면 그에 맞게 생각을 바꾸려 한다.	4
13	감정적인 문제가 대인관계나 일을 방해하지 않는다.	4
14	감사해야 할 일이 많다.	4
15	나는 평소 '아니오'보다는 '예'라고 자주 말한다.	5
16	나는 언제나 사랑받는 사람이다.	4

> 유*민: 60점

	질문	점수
1	새로운 일이 주어져도 잘해낼 자신이 있다.	4
2	실패를 통해서도 배우고 다음에 접근 방식을 바꾼다.	4
3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도 불안해하지 않는다.	3
4	내 주변에는 고민을 터놓을 친구나 동료가 있다.	4
5	어떤 상황이든 나 자신을 용납한다.	4
6	한 번 시작한 일은 끈기 있게 밀고 나간다.	3
7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나만의 방법이 있다.	4
8	나만을 위한 시간을 따로 갖는다.	5
9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5
10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문제들은 걱정하지 않는다.	3
11	도움을 청하는 것은 약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4
12	삶에 변화가 생기면 그에 맞게 생각을 바꾸려 한다.	4
13	감정적인 문제가 대인관계나 일을 방해하지 않는다.	2
14	감사해야 할 일이 많다.	3
15	나는 평소 '아니오'보다는 '예'라고 자주 말한다.	4
16	나는 언제나 사랑받는 사람이다.	4

> 홍*우: 68점

	질문	점수
1	새로운 일이 주어져도 잘해낼 자신이 있다.	4
2	실패를 통해서도 배우고 다음에 접근 방식을 바꾼다.	4

3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도 불안해하지 않는다.	2
4	내 주변에는 고민을 털놓을 친구나 동료가 있다.	5
5	어떤 상황이든 나 자신을 용납한다.	4
6	한 번 시작한 일은 끈기 있게 밀고 나간다.	2
7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나만의 방법이 있다.	5
8	나만을 위한 시간을 따로 갖는다.	5
9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5
10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문제들은 걱정하지 않는다.	5
11	도움을 청하는 것은 약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5
12	삶에 변화가 생기면 그에 맞게 생각을 바꾸려 한다.	4
13	감정적인 문제가 대인관계나 일을 방해하지 않는다.	3
14	감사해야 할 일이 많다.	5
15	나는 평소 '아니오'보다는 '예'라고 자주 말한다.	5
16	나는 언제나 사랑받는 사람이다.	5

> 김*우: 46점

	질문	점수
1	새로운 일이 주어져도 잘해낼 자신이 있다.	3
2	실패를 통해서도 배우고 다음에 접근 방식을 바꾼다.	3
3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도 불안해하지 않는다.	3
4	내 주변에는 고민을 털놓을 친구나 동료가 있다.	2
5	어떤 상황이든 나 자신을 용납한다.	2
6	한 번 시작한 일은 끈기 있게 밀고 나간다.	2
7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나만의 방법이 있다.	2
8	나만을 위한 시간을 따로 갖는다.	4
9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1
10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문제들은 걱정하지 않는다.	4
11	도움을 청하는 것은 약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2
12	삶에 변화가 생기면 그에 맞게 생각을 바꾸려 한다.	4
13	감정적인 문제가 대인관계나 일을 방해하지 않는다.	2
14	감사해야 할 일이 많다.	5
15	나는 평소 '아니오'보다는 '예'라고 자주 말한다.	4
16	나는 언제나 사랑받는 사람이다.	3

Q2. 지금까지 읽은 도서 모두 현재 20대를 달리고 있는 우리에게 많은 경험을 통해 본인이 원하는 성공에 도달하라는 메시지를 전하였다. 이 경험은 항상 성공적이지 않을 수도 있기에 실패를 직면할 용기와 딛고 일어설 힘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용기와 힘을 갖기 위해서는 '회복탄력성'이 중요하다고 '하버드 회복탄력성 수업'의 저자가 전한다. 그렇다면 추가 활동'Add'를 통해 측정된 본인의 회복탄력성 점수를 분석 후 발전시킬 방법에 대하여 제시해 보시오.

> 남*현: 나의 회복탄력성을 측정해본 결과 48점으로 나왔다. 평가 기준에 따르면 나의 점수는 회복탄력성이 높지 않지만, 개선의 여지는 충분하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내면의 힘의 필요성에 대하여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점수가 나오게 된 계기에 대하여 생각하기 위해 문항 분석을 시도해 보았다. 문항은 총 16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측정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추측하며 분석해 보았다. 1번부터 3번 문항은 실패 혹은 새로운 일에 대한 개인의 견해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도전에 대한 마음가짐'을 측정하기 위한 질문, 4번부터 6번까지의 문항은 실패를 맞이하였을 때의 대처방안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질문들로 구성되어 '실패 극복 방안'과 관련되어 있으며, 7번부터 8번은 '개인의 스트레스 해소'와 관련되었고, 9번부터 10번까지는 '정해지지 않은 미래에 대한 개인의 생각'이며, 11번부터 13번은 '적응력'을, 14번부터 16번은 '긍정에 대한 개인의 생

각'에 대한 질문을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 16가지 문항 중 나에게 낮은 점수로 도출된 문항들은 내가 판단하였을 때 도전에 대한 마음가짐을 측정하기 위한 1~3번 문항,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기 위한 9~10번 문항이 눈에 띄게 낮은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부분이 낮은 이유로 나는 무슨 일을 수행하든 한 번에 완벽하게 끝냄을 통해 나의 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주기도 한다. 이러한 완벽함 때문에 재시도를 선호하지 않고, 이러한 부분에서 낮은 점수가 나오게 된 것 같다. 또한 이러한 문제가 9~10번 문항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는데, 완벽하게 끝낼 수 있도록 일정을 잡아 놓았는데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나의 일정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또한 이렇게 변화될 미래는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기 때문에 영향을 준 것 같다고 판단된다. 나의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추구하고자 하는 완벽함을 내려놓고, 융통성을 가지는 것이 도움이 되어 발전을 촉진 시킬 것이라 예상된다. 이러한 융통성을 기르기 위해서 저자가 추천한 방법은 바로 사고의 유연성을 기르는 것이다. 회복탄력성에 수반되는 유연성은 역경을 견디게 만들고 정상 궤도로 복귀하는 능력을 보이며, 상황이나 사물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게 만들어 자신이 처한 상황을 평가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한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나는 회복탄력성을 기를 것이며, 완벽함을 추구하는 나에게 유연한 사고까지 더해지며 정서적 안정감을 가진 성공적인 미래로 향하도록 도울 것이라 예상된다.

> 권*영: 나의 회복탄력성 지수는 총 64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왔다. 나는 평소 호기심이 많고 도전을 좋아하며 스트레스받는 일이나 기분 나빴던 일들은 금방 잊어버리는 편이다. 내가 가진 유연한 사고방식 또한 높은 점수에 기여한 것 같다. 하지만 만점인 80점과 비교해 보면 여전히 나아질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이 책을 통해 방법을 찾아볼 수 있었다. 이 책 '하버드 회복탄력성 수업'에서는 회복탄력성을 여러 힘든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용기와 힘 그리고 지혜와 같은 내적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부른다. 사실 평소에 우리가 회복탄력성의 힘을 체감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회복탄력성은 발견하지 못했을 뿐 모두에게 잠재되어 있고 이 책을 통해 내 회복탄력성에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지 사유할 수 있었다. 이 책에서 회복탄력성을 높이려는 방법으로 여러 방향을 제시하지만 내가 특히 집중했던 부분은 마음 근육이라는 단어였다. 마음 근육은 여러 가지 요소들을 포함하는데 여기에는 대인관계, 유연성, 끈기, 자기조절, 긍정성 그리고 자기돌봄이 있다. 내향적인 성격을 가진 나는 가끔 대인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는데, 목차 중 2장에서 인간관계에 관해 말하는 부분을 읽고 발전시킬 방법과 인간관계의 시야를 넓힐 수 있었다. 저자의 말대로 상호작용에 집중하고 교감을 추구함으로써 상호 간의 신뢰를 높이고, 이는 더 나은 대인관계로 이어진다. 더 나은 대인관계는 결국 마음 근육의 성장으로도 이어지고 회복탄력성 또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이 방법을 통해 마음 근육을 강화하고 나의 회복탄력성이 지금보다 더욱 강해지기를 소망한다.

> 서*원: 나의 회복탄력성 점수는 70점으로, 높은 편에 속한다. 설명에 따르면 나는 스트레스를 잘 해소하고 사고방식이 유연하며 대인관계가 원만한 사람이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고 매사에 긍정적이며 어떤 도전도 기꺼이 받아들

인다. 그리고 책을 통해 회복탄력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는 일찍이 심리학과 뇌과학을 배워서 회복탄력성의 기제에 대해서는 학창 시절부터 알고 있었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생긴 투쟁/도피/얼음 반응이 현대에서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인지와 동기'를 개입하지 않고 주의하는, 단지 바라보거나 비판단적으로 바라보는 명상의 한 방식인 '마음챙김 명상'을 하며 독이 될 수도 있는 진화론적 기제에 대항하며 살았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헤민 스님과 함께 일찍이 마음챙김 명상을 습관적으로 해왔고, 실제로 큰 도움이 되었다. 또한 "나쁜 일은 늘 일어나기 마련이다."(고통은 삶의 일부분이다), "모든 것은 변한다."(인간관계, 몸, 환경 모두), "내가 주인공이 아니다."(마음챙김을 통해 과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해결될 문제)를 항상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왔다. 위와 같은 이유로 내 회복탄력성이 높게 나온 것 같다. 나의 회복탄력성은 높은 점수지만 그래도 아쉬운 점은 최근에 마음챙김 명상을 하지 않게 되면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생각과 감정을 포착하기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갑자기 생기는 생각과 감정을 인지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만약에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면 그 감정에서 빠져나오기가 어려워진다. 책의 3장 내용을 언급하자면, '유연성'이 느슨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습관적인 마음챙김 명상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책에 나와 있는 대인관계, 자기조절, 자기돌봄 등의 문제는 해결했고 앞으로도 꼭 해결하게 될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마음챙김 명상을 이전처럼 습관적으로 실천하도록 해야겠다.

> **유*민:** 나의 점수는 60점으로 회복탄력성이 비교적 높은 편으로 나왔다. 사실 내가 생각했을 때 과거 나의 회복탄력성을 그리 좋은 편이 아니었다. 스트레스는 자주 받지만, 그것을 해소할 방법도 잘 몰랐으며 해결하려 애쓰지도 않았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냥 천천히 속으로 삼키며 넘어가기 마련이었다. 왜 그랬는지를 생각해 보면 방법을 몰랐던 것도 큰 이유 중 하나였지만, 잘 해내야만 한다는 부담감이 컸던 것 같다. 작게 창업을 시도하던, 주식을 하던, 어떤 활동을 하든지 간에 실수가 생기면 대부분 금전적 피해가 생기는 만큼 그 부담감이 심하게 다가왔던 것 같다. 과거와는 달리 지금의 내가 회복탄력성이 높게 나오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고 본다. 우선 첫 번째 이유는 1학기에 했던 심비우스 덕분이다. 1학기 심비우스에서 스트레스를 주제로 한 학기 동안 여러 차례 토론하며 스트레스 관리에 유용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스트레스를 다스리고 받아들이는 방법에 대하여도 알 수 있었고, 나아가 그것을 이용하는 방법 역시도 배울 수 있었다. 그렇기에 더 이상 스트레스로 인해 힘들어하는 것보다 유연하게 그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었다. 두 번째 이유는 경험 때문이라 생각한다. 이미 실패를 경험하며 스트레스를 받고 이겨냈던 사례가 있기에 지금의 나는 같은 이유로 스트레스를 크게 받지 않는 것이다. 경험이 있기에 조금 더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으며 새로운 도전 역시도 크게 겁내지 않을 수 있는 것 같다.

앞으로 회복탄력성을 더욱 발전시킬 방법이라면 나는 나의 경우를 이유로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경험 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억지로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조절하려 한다면 그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매도 많이 맞아본 놈이 잘 맞는다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것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덕분에 다음부터 이런 실수는 안 하겠네'라는 마음가짐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다. 대인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역시 좋

은 사람만 만나며 살아갈 수는 없기에 가볍게 넘어가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결국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 생각하며 어쩔 수 없이 오는 스트레스를 제외한다면 나머지는 양분으로 삼으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나의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 **홍*우:** 높은 회복탄력성은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였을 때 빠르게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생각한다. 실패를 경험했지만, 역경을 딛고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 이후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회복탄력성의 정도라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문항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의 태도와, 어떠한 자세로 실패를 수용하는지에 대한 문항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위에서 서술하였다시피 실패를 경험하였을 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이 회복탄력성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이 굉장한 모순이라 할 수 있다.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도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질문에서 가장 낮은 점수인 2점을 받았다. 실제로 무언가를 위해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차질이 생기거나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을 때, 진행을 포기하거나 계획에 대한 흥미를 빠르게 잃는 편이다. 실제로 계획한 부분이 틀어졌을 때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 편이다.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실패를 겪었을 때 이러한 모습을 자주 보이기에 이 부분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모습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실패나 차질에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여유로운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불안해하는 이유는 실패할 것이라 예상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바탕으로 여유를 가지며 일을 진행한다면, 차질이 생기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비슷한 부분으로, 이미 시작한 일에 끈기 있게 밀고 나가는 모습 또한 부족한 모습을 보인다. 무언가를 처음 계획할 때 높은 흥미를 바탕으로 일을 시작하지만, 그 흥미가 빠르게 식는 편이다. 그렇기에 한 가지 일을 끝까지 마무리한 적은 그리 많지 않았다. 아무래도 이러한 모습을 보인 이유는 일의 진행에 대한 동기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공통적인 요소로 보이는 문제점은 일을 시작하여 진행해 나아갈 때 부족한 끈기와 계획의 차질 등과 같은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일을 끝까지 진행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을 보완 및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여유로운 마음가짐과 한 가지 일에 끝까지 집중하려는 노력과 태도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여 높은 회복탄력성을 유지한다면 실패를 겪더라도 다시 일어나기까지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라 예상된다.

> **김*우:** 내가 생각하는 회복탄력성은 역경을 겪어 바닥을 치더라도 다시 올라올 수 있는 내적인 힘이다. 평소 긍정적인 마인드가 나의 강점이라고 생각해 왔기에 회복탄력성 지수가 높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나의 회복탄력성 지수는?' 테스트에서 46점이라는 예상보다 낮은 결과를 보고 스스로 부족한 점을 고민하며 책을 읽어나갔다. 책에서 저자는 회복탄력성을 키우기 위해 대인관계 능력, 유연성, 끈기, 자기조절, 자기돌봄과 같은 다양한 요소를 강조하지만, 나에게 특히 눈길이 갔던 부분은 긍정성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나는 좋지 않은 상황이 와도 웃어넘기며 스스로 다독이는 것이 긍정적 사고라고 믿어왔지만, 이는 저자가 말하는 참된 긍정성과는 거리가 멀었다. 저자는 "긍정성은 단순히 얼굴에 미소를 띠고 골치 아픈 감정을 숨기는 것이 아닌, 심각한 감정 기복의 순간 균형을 맞추

는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 이 문장을 읽고 나의 긍정성이 사실은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르거나 회피하려는 방식에 불과했음을 깨달았다. 이후 책에서 제안하는 회복탄력성 훈련을 통해 올바른 긍정성을 배우고자 한다. 우선, 감사를 통한 긍정성 강화를 실천해 보고자 한다. 매일 감사한 일을 기록하는 감사 일기를 작성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하루 중 작은 성취나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구체적으로 적어보려 한다. 또한,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내는 작은 실천을 통해 긍정적인 감정을 키울 것이다. 스트레스가 클 때마다 감사의 마음을 떠올리며,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훈련을 반복하려 한다. 더불어, 내면 비판자를 관리하는 방법도 실천할 계획이다. 스스로에게 던지는 부정적인 메시지를 인식하고, 그 진실성을 검토하며 긍정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을 통해 부정적인 생각을 줄여 나가겠다. 예를 들어, “나는 항상 실패해”라는 생각이 들 때, “이번에는 배울 기회가 될 거야”라는 긍정적인 대안을 나에게 제시할 것이다. 이를 통해 나의 긍정적인 면을 더 강조하며 스스로를 격려하는 연습을 하려 한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상상 훈련을 통해 하루의 시작과 끝을 다르게 바라보려 한다. 매주 월요일 아침, 이상적인 하루를 상상하며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동료나 가족과의 대화에서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연습을 통해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고받는 시간을 늘리고자 한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는 그날 있었던 긍정적인 경험을 떠올리며, 다음 날에 대한 기대감을 스스로 높이는 시간을 가지려 한다. 이러한 작은 실천들을 통해 긍정성이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는 방어 기제가 아닌, 회복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 이를 통해 내면을 더욱 건강하게 가꾸고, 회복탄력성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나의 회복탄력성 향상이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 책 내용 중 토론하고 싶은 질문

1) 권*영: 책에서는 극복과 관련된 내용을 자주 언급하였다. 그렇다면 본인이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으며, 당시에 어떤 방법으로 극복하였는가? 만약 다시 비슷한 상황이 온다면 이번 주차에 알게 된 회복탄력성이 어떻게 도움이 될 것 같은가?

> 남*현: 나에게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대학교 1학년 2학기 말이었다. 이때 힘들었던 이유로는 내가 어린 시절부터 가장 믿고 잘 따르던 어른, 내가 가장 믿고 의지하는 정신적 지주인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가장 고비였으며 힘들었던 것 같다. 이때 당시의 나는 시간이 약이라는 방법을 통해 흘러가듯 보내며 극복한 것으로 기억한다. 사실 현재의 내가 갖고있는 지식을 그때 당시의 내가 갖추고 있다는 가정하에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게 된다면 극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그저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 중 하나라고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사고하여 노력하는 방법이 최선일 것이라 생각한다.

> 권*영: 지금껏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누군가 내게 물어본다면 나는 항상 미국에서의 마지막 2년이 떠오른다. 중학교 3학년부턴 미국에서 학교에 다녔던 나는 당시 향수병이라든지 힘들음을 전혀 느끼지 못하였다. 오히려 가장

힘들어야 했을 초반에 멀쩡해서였을까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나는 정신적으로 많이 지쳐 있었던 것 같다.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입시 준비라던가 코로나를 겪으며 멀어진 인간관계, 또는 갑작스럽게 이상이 생긴 신체 등. 다시 되짚어 보니 힘들만 했다는 생각이 든다. 20살 무렵이었던 나는 나에게 찾아온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 등을 어떻게 유익하게 해소해야 할지 전혀 모르는 상태였고 시간이 약이라는 말을 믿으며 힘든 일은 꺾꺾 마음 깊은 곳에 눌러 담고 그저 그렇게 버텼었다. 이 '하버드 회복탄력성 수업'을 읽으며 내가 가장 힘들 때 이 책을 읽을 수 있었다면 무언가 달라졌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 했다. 이 책을 읽고 위로받고 역경을 딛고 나갈 수도, 혹은 책에 적힌 내용들을 불신하며 계속 똑같이 지냈을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현재의 나는 이 책을 읽었고 나 자신이 회복탄력성이 높다는 것을 알았으며 회복탄력성을 발전시킬 방안도 알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시 나에게 이런 힘든 순간이 찾아온다면 다시 한번 내가 가진 회복탄력성의 힘에 대해 생각하고 그를 토대로 당장의 감정을 긍정적인 방법으로 해소하려고 노력할 것 같다.

> **서*원:** 고등학교 1학년을 기준으로 전과 후의 삶이 많이 달랐던 것을 생각해 보면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다. 나는 중학생이었을 적에 내 솔직한 상담을 들어줄 든직한 친구와 늘 함께 있어 주는 여자친구가 존재했고, 비전 또한 확고하였고, 이를 위해 노력한 만큼 결과가 따라오기도 했다. 피아노도 취미 삼아 열심히 치며 자기 계발도 꾸준했다. 의지할 곳과 취미가 있었기에 정말 많은 힘들이가 시련으로 다가올 때 친구와 여자친구, 그리고 확실한 비전으로 버티고 나갈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대부분을 잃었다. 가까웠던 친구와 몸이 멀어지니 마음도 멀어지게 되었고, 새로 생긴 친구들은 성격이 맞지 않아 가까이하고 싶지 않았다. 여자친구와도 헤어져서 주변에 기댈 곳이 없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일부러 상위권 일반고를 지원했었는데 중학교 때만큼 노력한 만큼 결과조차 따라주지 않아 크게 위축됐었다. 그래서 잠을 줄여가면서 자기 전 샤워할 때 말고는 계속 공부하며 살았는데, 수면이 부족해지니 건강도 나빠지고, 환절기 질환에도 자주 걸리고, 정신적으로도 힘들어졌다. 아마도 자아고갈, 번아웃 상태가 왔던 것 같다. 그러다가 2학년 봄에는 방에 틀어박혀서 나오지 않은 적도 있었고, 상태가 더 심해져서 자살소동까지 벌였던 적이 있다. 한바탕 소동을 일으킨 후에는 모든 사교육을 다 끊고 매주 구청 심리상담센터에 다니기 시작했다. 그리고 센터에서 명상을 추천받고 '코끼리'라는 어플을 통해 혜민 스님과 명상하기 시작했다. 마음챙김 명상, 수식관 명상 등 다양한 명상을 접하며 2년간 집중하지 못했던 나 자신에게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내면의 소리를 마주할 시간이 없거나 마주해도 애써 무시했었다.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화를 참지 못하고 바로 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명상하기 시작한 후에는 응어리졌던 생각과 감정을 하나씩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감정적이었던 성격이 온화해지기 시작했다.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떠오르기 전에 이들의 출처를 생각하면 생각과 감정에 침식당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아, 내가 그래서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등 있는 그대로 순간을 '인식'하는 연습을 하면서 내면을 집중하기 시작했다. 명상을 접하고 정신이 맑아지니 자연스레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졌고, 자아탄력성이 높아졌다. 이후 일의 추진력을 얻었고 실패 후에도 딛고 일어날 힘이 생겼다. 생각보다 오래 수면하지 않았는데도 효과는 좋았다. 명상의 잠재적인 효과는 생각보다 컸다. 이렇게 명상을 접한 후에는 피곤하고, 쉽게 무

너졌던 나의 부정적인 측면들이 개선됐다. 그래서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명상하며 나의 내면에 집중해 볼 생각이다. 최근에는 명상과 비슷한 효과를 가지는 '글쓰기'도 많이 하고 있다. 글쓰기를 위해 먼저 새벽에 나만의 시간을 갖고 조용한 음악을 듣는다. 그리고 개인 블로그를 열고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되돌아보거나 내 안에 있던 신경 쓰였던 생각과 감정을 글로 적어나가기 시작한다. 그렇게 다 적고 나면 친구에게 고민 상담을 받았을 때, 명상을 무사히 마쳤을 때와 같은 활기차고 해소된 상태가 된다. 어떻게 쓰든 상관없다. 굳이 양식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쓰고 싶은 것을 다 써 내려가는 것만이 하루 동안 수고한 내가 나를 위해 해야 할 마지막 과업인 것이다.

> **유*민:** 22년도 군대에 있던 시절 비트코인 투자에서 큰돈을 잃었던 적이 있다. 그 순간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었으며, 군대에 있는 상황이다 보니 자유까지 없어 더욱 힘들었다. 사실 그 순간을 극복하지는 못하였다. 그냥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라는 생각으로 계속 힘들어하다가 지나갔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똑같이 힘들어하기만 하고 특별한 방법으로 극복하지는 못할 것 같다. 내 입장에서 너무나도 큰 액수의 금액이기도 하였으며, 군대라는 스트레스가 같이 있었기에 극복하기란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최대한 상황에 절망하지 않고 더욱 공부하여 투자해 원금을 회복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극복하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 생각한다.

> **홍*우:** 가장 기억에 남는 힘든 순간은 고등학교 1학년 당시이다. 중학교 졸업 후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 힘든 시기를 겪었다. 지금까지 내가 공부했던 것과는 달리 학교에서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였고, 많은 학생들이 그때 당시의 나보다 훨씬 앞서 나가 있었다. 당시 이러한 현실을 마주한 나는 그 힘든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 그 순간에서 도망쳤다. 그 시점부터 나는 공부를 하지 않고 포기한 내 모습을 발견하였으며, 힘든 상황들을 회피하는 습관이 생기기 시작했다. 위의 상황을 극복하였다고 보기보단,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상황에 대한 감각이 무뎠다고 생각한다. 좋지 않은 성적을 받고, 이것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반복되자 자연스럽게 적응이 되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위의 상황이 반복되었을 때 주변에 도움을 받았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남곤 한다. 성적 관련하여 어른들과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하였을 때 그들의 좋지 않은 시선과 질타를 걱정하여 혼자서 힘든 과정을 지나치려고 하였다. 만약에 과거에 지금과 같이 회복탄력성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어떠한 방법이 다시 시도하고 나아가는 과정에서 효과적인지 알았다면 힘든 시기에 공부를 손에서 놓지 않고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회복탄력성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생각을 바탕으로 용기와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질 힘을 준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서 목표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어내어 삶의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이다.

> **김*우:**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성인이 된 후 독립적인 삶을 시작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이다. 사회에 나가면서 금전적인 문제, 인간관계에서의 갈등 등 다양한 도전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는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강한 압박감을 느꼈고, 그로 인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이

런 마음가짐은 나에게 큰 부담이 되었고, 결국에는 스트레스가 목을 조여오는 상황까지 만들어 냈다.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혼자서 잘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못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썼다. 그 과정에서 느낀 고립감과 불안감은 나를 더욱 힘들게 만들었던 것 같다. 만약 그 당시 내가 조금이라도 힘들었을 때, 주변의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도움을 받는 것이 두렵지 않았다면, 더 나은 대인관계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 것이고, 이는 나의 회복탄력성을 더욱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 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내 회복탄력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앞으로 비슷한 상황이 온다면, 나는 더 이상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주변의 지지와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방법은 더 나은 해결책을 찾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회복탄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2) 유*민: 이때까지 성공을 위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지금까지의 토론을 바탕으로 본인이 생각하였을 때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남*현:** 성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움'이라고 생각한다. 새로움이라는 단어 자체에서 느껴지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접근 방식은 혁신적인 생각을 돕는다. 이러한 생각은 이전까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물품을 만들어 내며,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게끔 돕는다. 특히 트렌드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빨라진 현대 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추게 한다. 변화하는 트렌드를 잡으며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러한 개발은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이외에도 과거 성공한 사람들 중 유명인들을 보자면 새로운 무언가를 발명하거나, 새롭게 발명한 사람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새로운 무언가'는 물품이 아닌 이념이나 종교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이 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공이라고 생각한다.

> **권*영:** 지금까지 성공의 정의부터 성공으로 가기까지 다양한 것들을 얘기해 왔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마음가짐 외에도 성공에 다다르려면 필요한 것들이 많다. 경험도 있을 것이고 끈기 혹은 자본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던 옳은 마음가짐이 없다면 그 요소들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 예시로 경험을 빗대어 말해보자면 나는 마음가짐 다음으로 중요한 요소가 경험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다양하고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하게 될지라도 당장 내가 경험한 것들을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없다면 그 경험들이 과연 정말 성공으로 나아가는 데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까? 모든 일의 실행에 굳은 마음가짐을 갖는 것은 나 자신에게 확신과 자신감을 주고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할 뿐 아니라 원동력이 되어 준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성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마음가짐을 꼽는다.

> **서*원:** 지금까지 '성공' 키워드를 가지고 6주 동안 같이 이야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을 보장하는 한 단어를 고르는 것은 지금도, 앞으로도 어려울 것

같다. 실패, 끈기, 경험 등 사람마다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굳이 한 가지를 꼽자면 나는 '꾸준함'을 꼽을 것이다. 지금까지 삶을 살면서 포기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대부분 그 일들에 대해서 꾸준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예를 들어 나의 과학자로서의 꿈은 대학교 입시 기준과 또래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내 학습 수준이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더 공부할 수 있음에도 포기했다. 현실을 마주해도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것을 끝까지 밀고 나갔다면 나는 지금 공대에서 과학을 연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공부를 너무 많이 하지 않고 적당히 했었다면 번아웃이 오지 않은 상태에서 꾸준히 지속해서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많은 멘토와 선배들이 '중간만 가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중간을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이 어렵듯이 '꾸준함'을 지키는 것은 삶을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라 판단되며 성공에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한다.

> **유*민:** 성공을 주제로 한 학기 동안 많은 토론을 해보며 성공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나는 '경험'과 '운'이라고 생각한다. 7주 동안 성공에 관해 토론을 해보며 무엇이든 시도해 보고 경험을 해보아야 성공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경험 없는 성공은 존재하지 않는다 생각하며, 만약에 존재한다면 그것은 아마 정말 큰 '운'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렇기에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경험'과 '운'이 가장 중요하며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 **홍*우:** 7주 동안 성공한 이들의 삶에 대해 분석하고 토론한 결과 이들의 공통된 특징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꾸준히 나아갔다는 점이다. 그 과정에서 많은 실패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그들은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않고 오직 성공을 향해 전진했다. 결국, 그들은 많은 이들의 인정과 함께 성공적인 삶을 이루며 큰 부를 얻게 되었다. 스티브 잡스와 빌 게이츠 같은 인물들이 실패를 두려워하며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면, 업계에서 최고 자리에 오르지 못했을 것이고, 그로 인해 세상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되었을 것이다. 이들은 성공할 수 있다는 집념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를 바탕으로 큰 성공을 일구어냈다. 그렇기에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태도라고 생각한다.

> **김*우:** 심비우스를 통해 성공에 대하여 토의할 때마다 책에서는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경험이라고 강조해왔다. 경험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배우고 성장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새로운 상황을 이해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며,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는 특히 대한민국의 취업 시장에서 매우 중요하다. 많은 기업이 실무 경험을 중시하기 때문에, 인턴십이나 연구 프로젝트와 같은 경험은 단순히 학문적 지식을 넘어 실제 능력을 증명하는 기회가 된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가 직면한 실패와 어려움조차도 의미 있는 교훈으로 바꿀 수 있다. 이를 통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배우고,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예를 들어, 북클럽을 통해 나의 긍정이 잘못되었음을 배웠고, 책을 통해 옳은 긍정을 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법을 배운 것도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경험은 우리의 사고방식과 행동을 형성하며, 장기적인 성장과 성공의 방향을 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p>한다. 다양한 경험을 쌓다 보면 자신이 진정으로 열정을 느끼는 분야를 발견하고, 이를 바탕으로 목표를 구체화할 수 있다. 예컨대, 경험 속에서 얻은 통찰력은 앞으로 나아갈 길에 확신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도전을 지속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 결론적으로, 성공을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배우고 이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경험은 우리를 끊임없이 도전하게 만들고, 실패를 극복하며, 한층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 성공으로 가는 길은 경험이 축적되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p>
<p>활동사진</p>	

2024년

11월

25일

참가자대표: 남*현